

제 1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认识你很高兴)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조선사람과 함께 가면서 초보적인 인사말이나 배우려고 생각 하였습니다.
- 그가 배워준대로 인사말을 하리라고...
-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 사장이 신발의 도안이 잘 안겨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생산은 어떻게 하시려는가요?

본문 (课文)



심비회사 부사장 김휘는 조선의 어느 한 무역회사와 면담을 하기 위하여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 열차칸에는 마침 순희라는 조선처녀가 앉아있었습니다.


김휘는 조선사람과 함께 가면서 초보적인 인사말이나마 배우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순희에게 조선의 인사말을 좀 배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순희는 김휘에게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며 이미 알고있던 사람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에는 《오래간만입니다. 그간 건강하셨습니까?》라고 한다는것, 그리고 아래사람인 경우에는 《안녕하니? 잘 있었니?》라고 하면서 조선어에서는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에 하는 인사말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데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만났던 사람과 헤어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잘 다녀가십시오.》라고 하며 아래사람인 경우에는 《잘 가라.》, 《잘 있어라.》라고 한다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습니다.

김휘는 조선어의 인사말은 참으로 레의범절이 정확히 구별되어있는 인사말이라고, 웃사람과 아래사람과의 구별이 명백해서 참 좋다고, 그런 측면에서 조선어와 중국어는 서로 통하는데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어의 인사말들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면 그가 배워준대로 인사말을 하리라고.

발음 (发音)



• 무역회사	[무여회사]
• 인사말을	[인사마를]
• 옷사람과	[옷싸람과]
• 아래사람의	[아래싸라미]
• 정확히	[정화키]
• 있어라	[이씨라]




连音 (이어내기)

由元音开头的词尾或后缀前边的收音，连接到后边的音节而发音。双收音时，左边的收音读成收音读音，右边的收音读成后一元音的开头音。

례: 높이[노피], 삼발이[삼바리], 몸에[모메], 발으로
[바트로], 꽃을[꼬출], 닭을[달글], 꽃이[골씨], 값에
[갑세], 밭아[발바], 읊어[을피], 젊음이[절므니]

문형과 문법 (语言点)



조선사람과 함께 가면서 초보적인 인사말이나마 배우려고
생각하였습니다.

词尾“-나마/이나마”表示“让步”。

례: ○ 적은 성의나마 받아주십시오.

○ 말이나마 좋게 해주십시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김희, 생각하다, 인사말, 배우다, 쉽다

김희는 쉬운 인사말이나마 배우려고 생각하였다.

- 보다, 멀리서, 싶다, 어머니, 얼굴

- 약간, 차리다, 정신, 약, 먹다

그가 배워준대로 인사말을 하리라고.

不完全名词“대로”表示“按照、遵照”或“随……”的意思。

례: ○ 왕용은 항상 생각나는대로 말한다.

○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왕용, 말하다, 행동하다, 안내원

왕용은 안내원이 말한대로 행동하였다.

- 위병, 부사장, 치료하다, 영아, 처방

- 인공지능로봇, 사람, 이동하다, 음성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语法短语“얼마나 -니 지 모르겠다”表示“强调”。

예: ○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힘들다, 언어, 배우다

언어배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 날씨, 춥다, 오늘

○ 교육, 훌륭하다, 대학



조선절 (朝鮮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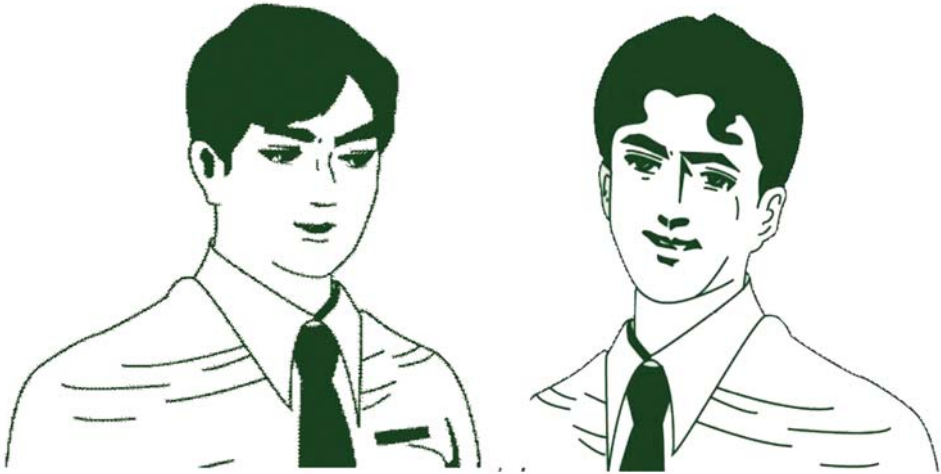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절로써 인사례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절은 대상과 장소에 따라 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길가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에는 서로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나누었지만 로인이나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우리 인민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례절바른것이 특징이다.

대화(会话)



남수: 안녕하십니까? 무역회사 부사장 김남수입니다.

평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김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휘입니다. 심비회사 부사장입니다.

남수: 제가 보낸 전자우편을 받았습니까?

김휘: 예, 그런데 사장이 신발의 도안이 잘 안겨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남수: 어떤 측면이 마음에 안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습니까?

김휘: 우선 색깔이 지내 어두운것같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너무 단조로운것 같고.

남수: 신발색깔을 다양하게 합시다. 앞부분과 뒤부분의 차이를 주겠습니다.

형태는 앞부분은 좀 모가 나고 뒤부분은 납작하게 하겠습니다.

김휘: 그렇게 하면 아주 멋있을것같습니다. 생산은 어떻게 하시려는가요?

남수: 대체로 8~9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휘: 8~9월이면 괜찮습니다.

남수: 그럼 그렇게 약속합시다.

김휘: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발음 (发音)



- | | |
|---------|---------|
| • 측면이 | [측머니] |
| • 앞부분은 | [압뿌부는] |
| • 뒤부분의 | [뒤뿌부니] |
| • 납작하게 | [납짜카게] |
| • 8~9월로 | [팔 구월로] |

문형과 문법 (语言点)

사장이 신발의 도안이 잘 안겨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词尾“-더군”是对等阶终结词尾，表示“告诉、目睹”的意思。

예: ○ 학생들이 론쟁을 하며 대학에 가더군.

○ 그가 조선어를 배우더군요.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비행기, 벌써, 떠나다

비행기가 벌써 떠나더군.

○ 선생님, 교실, 계시다

○ 의사, 약, 주다

생산은 어떻게 하시려는가요?

词尾《-는가요》是尊敬阶终结词尾，表示“疑问”。

례: ○ 중국에서 오시는가요?

○ 국수를 어떻게 먹는가요?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조선, 관광, 가다

조선에 관광을 가시는가요?

예, 조선에 관광을 갑니다.

○ 저녁, 오래, 산보하다

○ 호텔, 안내원, 만나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1) 심비회사 부사장 김휘는 조선의 어느 한 무역회사와 면담을 하기 위하여.

- 2) 웃사람과 아래사람의 구별이 명백해서 참 좋다고 하면서.
- 3) 어떤 측면이 마음에 안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습니까?
- 4) 형태는 앞부분은 좀 모가 나고 뒤부분은 납작하게 하겠습니다.
- 5) 대체로 8~9월로 예견합니다.

2. 뜻이 비슷한 단어를 표시해보시오. (选择近义词连线。)

함께	—————	성원
직원		차이
말투		같이
구별		갈라지다
헤어지다		어렴풋하다
희미하다		어조

3.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무역 ⇒ 무역구조, 무역규률, 무역거래

- 1) 렬차 ⇒
- 2) 인사 ⇒
- 3) 국제 ⇒
- 4) 렬행 ⇒
- 5) 가공 ⇒

4. 알맞는 단어를 찾아 대응시키고 문장으로 완성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连线, 并完成句子。)

직포공	그림	그리다
축구선수	공부	부르다
학생	글	짜다
교원	씨	하다
가수	천	차다
미술가	공	가르치다
농장원	노래	뿌리다

- 교원이 글을 가르칩니다.
-
-
-
-
-
-

5. 괄호안의 단어에 알맞는 토를 붙여보시오. (给括号里的词语加上恰当的词尾。)

본보기: 김희는 조선의 어느한 무역회사와 면담을 (하다) 위하여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 올랐습니다.

⇒ 김희는 조선의 어느한 무역회사와 면담을 (하기) 위하여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에) 올랐습니다.

1) 그가 오른 열차칸에는 (순희) 조선처녀가 (앉다)있었습니다.

⇒

2) 조선사람과 함께 (가다) 초보적인 인사말이나마 (배우다) 생각하였습니다.

⇒

3) 순희는 그에게 조선의 (인사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다)주었습니다.

⇒

4) 그런 (측면) (조선어) 중국어는 서로 통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인사말들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

5) 평양에 (도착하다) 그가 (배워주다)대로 인사말을 하리라고.

⇒

6.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본보기: 유망하다, 스무살, 전도, 소문, 그, 벌써, 나다

⇒ 그는 스무살에 벌써 전도가 유망하기로 소문이 났다.

1) 간직하고있다, 일기, 그, 적혀져있다, 소중한다, 수첩

⇒

2) 식당, 물고기료리, 이, 잘하다, 유명하다

⇒

3) 그, 복숭아보따리, 감추다, 부랴부랴

⇒

4) 숟가락, 퍼먹다, 사위, 자고나다, 시작하다, 밥

⇒

5) 편안히, 꾸념, 앓다, 안해, 늘어놓다

⇒

7. 토 《-는가요/은가요》를 리용하여 물음문을 만들어보시오. (以“-는가요/은가요”形式造疑问句。)

본보기: 비발, 세차다, 우산, 가져오다

⇒ 비발이 세찬데 우산을 가져왔는가요?

1) 이, 건물, 어떠한, 구락부, 있다

⇒

2) 반장, 발언, 끝내다

⇒

3) 딸, 고급중학교, 다니다

⇒

4) 눈, 많이, 오다

⇒

5) 경축야회, 시작되다, 언제

⇒

8. 토 《-나마》와 《-더군》을 붙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词尾“-나마”和“-더군”完成句子。)

본보기: 적다, 성의, 표시하다, 하다

⇒ 적은 성의나마 표시하라고 하더군.

1) 많다, 앓다, 량곡, 가져가다, 하다

⇒

2) 작다, 문제, 해결하다, 하다

⇒

3) 별치 앓다, 재주, 보다, 하다

⇒

4) 말, 잘하다, 하다

⇒

5) 마음, 흔들리다, 순간, 하다

⇒

9. 다음의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句。)

본보기: 모내기 ⇒ 우리는 모내기를 열흘이나 앞당겨 끝냈다.

- 1) 가격 ⇒
- 2) 도형 ⇒
- 3) 공학 ⇒
- 4) 구사일생 ⇒
- 5) 결승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희는 조선의 어느한 무역회사와 면담을 하기 위하여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에 올랐습니다.

...

단어 (词语)

간단히	简单地	단조롭다	单调
간직하다	珍藏	도형	图形
갈라지다	分开	도안	图案
고급중학교	高中	들어가다	进去
공학	工程学	대체로	大概
굽	沟壑	대응되다	对应
구별	区别	량곡	粮食
구사일생	九死一生	리용하다	利用
구조	结构	례	例
규률	规律	례의범절	礼貌
그간	这段时间	말투	语气
그럼	那	면담	面谈
그리다	画	명백하다	明确
글자	字	모내기	插秧
계시다	在	몸	身体
납작하다	扁	무역	贸易

문형	句型	푸념하다	牢骚
물음문	疑问句	희미하다	模糊
반장	班长	때	时候
발언	发言	짜다	织
번	次	알맞다	合适
벌써	早就	앞당기다	提前
별치 않다	没什么特别的	앞부분	前头
보따리	包	야회	晚会
부랴부랴	急急忙忙	약속	约定
부사장	副总经理	어렴풋하다	隐约
붙이다	贴	어조	语调
비발	雨柱	어떠하다	怎么样
비슷하다	差不多	얼마나	多么
사위	女婿	여러	多
삼발이	支子	열심히	认真地
성의	诚意	열흘	十天
수첩	手册	우습다	可笑
싶다	想	유망하다	有前途
세차다	厉害	음성	声音
전도	前途	이동하다	移动
전자우편	电子邮件	이러하다	就这样
주어지다	现有	이상	以上
주의	主义	이어내기	连音
지내	太	인공지능로봇	人工智能机器人
직원	职员	일기	天气
차근차근	仔细地	예견하다	预计
차리다	摆	외우다	背诵
측면	方面	위반하다	违反
피먹다	舀来吃, 大吃	완성하다	完成
편안하다	舒服		

성구(成語)

같은 값이면

“既然……就不如”或“既然……就要”的意思。

- 예: ○ 같은 값이면 따듯한 남쪽방에 듭시다.
○ 같은 값이면 래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떠납시다.

듣는것이 보는것만 못하다

耳听为虚，眼见为实

예: 순희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김휘는 듣는것이 보는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조선에 갈 결심을 하였다.



반갑습니다

기쁨에 넘쳐 뜨겁게 (♩=138)

작사, 작곡 리종오

Musical score for '반갑습니다' (Welcome). The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with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1. 동포 여러분 - 형제 여러분 - 이 령계 만 나니 - 반 갑 습-니다 - 얼싸안고 좋아 웃음이요 절싸안고 좋아 눈물일세 - 어 허 허 어 허 허 허 허 널리리야 (후렴) 반 갑 습-니다 - 반 갑 습-니다 - 반 갑 습-니다 - 반 갑 습-니다 -

2. 동포여러분 형제여러분
정다운 그 손목 잡아봅시다
조국위한 마음 뜨거우니
통일잔치날도 멀지 않네
어허허 어허허허허 널리리야
(후렴)

3. 동포여러분 형제여러분
애국의 더운 피 합쳐갑시다
해와 별이 좋아 행복이요
내 조국이 좋아 기쁨일세
어허허 어허허허허 널리리야
(후렴)



제2과. 평양고려호텔에서 (在平壤高麗飯店)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안내원은 유능한 의사**마냥** 건강까지 돌봐주었다.
- 남새로 만든 요리들외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다.
- 장정이 1년전에 이 호텔에 들었**댔**습니다.
- 안내원으로서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본문 (课文)



김희는 언제인가 친구 장정에게서 들은 평양고려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조선을 방문하여 평양고려호텔 505호에 든 장정이 안내원 영아에게 식사를 부탁하였는데 준비한 식탁에는 푸른 빛갈의 남새로 만든 요리들외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습니다.

언짢아하는 장정에게 영아는 《당신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때문에 소화에도 좋고 위장염을 치료하는데도 좋은 인삼을 넣은 요리들과 남새요리들을 위주로 차렸습니다.》라고 사연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정은 사실 안내원이라면 봉사만 잘해주면 그만이겠는데 이 안내원은 유능한 의사마냥 건강까지 돌봐주지 않는가, 조선에 온 기회에 늘 고생하던 위병을 고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평양에 도착하여 보름만에 장정의 병증상은 완전히 없어지고말았습니다.

고마움에 겨워 인사하는 장정에게 영아는 《그것은 나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물과 약초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은 그대로 약재로 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금은보화 가득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는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정은 영아의 말에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조선속담도 바로 당신과 같은 조선인민의 훌륭한 미풍량속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정의 이야기에서 큰 감동을 받은 김희는 조선에 가면 꼭 평양고려호텔에 들어 영아를 만나보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발음 (发音)



• 부탁하였는데	[부타카연는데]
• 빗갈	[빈갈]
• 위병	[위뻥]
• 전적으로	[전쩌그로]
• 505호에	[오백오호에]
• 삼천리금수강산	[삼철리금수강산]

문형과 문법 (语言点)



안내원은 유능한 의사**마냥** 장정의 얼굴을 보고 위가 좀 나쁘지 않은가고 물었다.

词尾“-마냥”表示“好像、犹如”的意思。

례: ○ 거리는 매일 명절**마냥** 흥성거렸다.

○ 그의 마음은 새**마냥** 하늘을 훨훨 날았다.


◆ 문장을 변경시켜보시오. (改写句子。)

○ 얼굴에는 활짝 핀 꽃송이**처럼** 웃음이 넘쳤다.

얼굴에는 활짝 핀 꽃송이**마냥** 웃음이 넘쳤다.

○ 그는 경기에서 성난 사자**처럼** 상대방을 공격하였습니다.

○ 숲은 광란하는 파도**처럼** 무섭게 설레었습니다.



남새로 만든 요리들외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다.

语法短语 “아무 -도 없다”表示“完全否定”的意思。

예: ○ 그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등산을 합니까?

◆ 《아무 -도 없다》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 “아무 -도 없다” 形式造句。)

○ 상점, 학용품, 밖, 것

상점에는 학용품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 가방, 책, 것

○ 그, 생활, 근심

평양고려호텔 (平壤高麗飯店)

주체74(1985)년에 건설된 45층 쌍탑목음식건물인 평양고려호텔은 서로 다른 규모의 손님방들과 식당, 연회장, 회의실, 영화관, 오락실 등 각종 봉사시설들이 잘 갖추어져있으며 건물의 꼭대기에는 회전전망식당도 있어 평양을 찾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널리 이용하고있다.

대화 (會話)



김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김휘입니다.

영아: 안녕하세요? 안내원 영아입니다. 평양고려호텔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김휘: 당신과 평양고려호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영아: 어떻게요?

김휘: 나의 친구 장정이 1년전에 이 호텔에 들었었습니다. 그는 평양고려호

텔에 들었던것을 행운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영아: 장정말입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습니까?

김휘: 그는 당신에게서 봉사를 받고 위병이 완쾌되어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영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어느 방에 들겠습니까?

김휘: 저도 장정이 들었던 505호에 들려고 합니다.

영아: 방 열쇠카드를 받으십시오. 그 방은 남쪽이여서 해빛이 잘 들고 경치를 부감하기에도 좋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김휘: 저도 장정처럼 조선의 유명한 인삼료리들을 먹고싶습니다.

영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휘: 당신은 장정에게서 들은 그대로 정말 친절한 안내원입니다.

영아: 뭘요. 안내원으로서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김휘: 조선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모두 친절합니다.

발음 (发音)



• 들었던것을	[드런뎌거술]
• 어떻게	[어떠케]
• 친절한	[친저란]
• 색깔	[새깔]

문형과 문법 (语言点)



장정이 1년전에 이 호텔에 들었뻬습니다.

词尾“-뻬”表示“过去时”。

례: ○ 너희들 오늘 모란봉에 올라갔뻬지?

○ 이 영화는 이미 보았뻬습니다.

◆ **로 《-됐》을 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以 “-됐” 形式完成句子。)

- 김훤, 기자, 되다, 신문사, 결심하다
김훤은 신문사의 기자가 되리라고 결심하였됐다.
- 영아, 노래, 그렇다, 잘, 부르다, 생각하다, 못하다
- 장정, 그, 영화, 관람하다, 말하다

안내원으로서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语法短语 “응당 -아/어/여야 하다” 表示 “应当、应该” 的意思。

- 례: ○ 우리는 응당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 식사는 응당 제시간에 하여야 한다.

◆ **《응당 -아/어/여야 한다》를 리용하여 문장을 들어보시오.**
(以 “응당 -아/어/여야 한다” 形式造句。)

- 당신, 거기, 가다
당신은 응당 거기에 가야 한다.
- 그들, 경기, 참가하다
- 우승자, 메달, 받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안내원 영아에게 식사를 부탁하였다.
- 2) 푸른 빛갈의 남새로 만든 요리들외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다.
- 3)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물과 약초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때문입니다.
- 4) 그는 평양고려호텔에 들었던것을 행운으로 여기고있습니다.
- 5)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습니까?
- 6) 그는 당신에게서 봉사를 받고 위병이 완쾌되어...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봉사 ⇒ 봉사구역, 봉사기관, 봉사단위

- 1) 요리 ⇒
- 2) 외국 ⇒
- 3) 관광 ⇒
- 4) 식사 ⇒
- 5) 규약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과업 ⇒ 과업을 수행하다, 과업과 방도, 과업을 받다

- 1) 가방 ⇒
- 2) 공격 ⇒

- 3) 배낭 ⇒
- 4) 가극 ⇒
- 5) 봉투 ⇒

4. 토 《-댓》이나 《-마냥》을 붙여 문장을 지어보시오. (以“-댓”和“-마냥”形式完成句子。)

본보기: 열중하다 ⇒ 문제풀이에 열중하댓는데 그가 들어와 학습분위기를 흐려놓았다.

- 1) 가꾸다 ⇒
- 2) 휘다 ⇒
- 3) 그치다 ⇒
- 4) 혈육 ⇒
- 5) 국보 ⇒

5. 제시된 단어들을 리용하여 《아무 -도 없다》나 《응당 -아/어/여야 하다》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아무 -도 없다”或“-응당 -아/어/여야 하다”形式造句。)

본보기: 배우, 사색, 동작, 반복하다 (아무 -도 없다)

⇒ 배우는 아무 사색도 없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 1) 과오, 교훈, 찾다 (응당 -아/어/여야 하다)
⇒
- 2) 무연하다, 광야, 과일나무, 없다 (아무 -도 없다)
⇒
- 3) 식당, 손님, 편리, 도모하다 (응당 -아/어/여야 하다)
⇒
- 4) 기척, 사과, 배, 가져가다 (아무 -도 없다)
⇒
- 5) 우리, 창조하다, 유, 무 (응당 -아/어/여야 하다)
⇒

6.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句。)

본보기: 식탁, 남새, 료리, 나물, 만들다, 가득차있다

⇒ 식탁에는 남새와 나물로 만든 료리들이 가득차있었다.

1) 소화, 인삼, 약효성분, 좋다, 많다

⇒

2) 지극하다, 정성, 꽃, 피다, 돌우

⇒

3) 입학생, 찾아다니다, 제가꿈, 담임선생

⇒

4) 신랑, 숙이다, 머리, 신부, 다소곳하다, 바라보다

⇒

5) 리군, 부당하다, 얼굴, 되다, 제기, 벌절다, 경리

⇒

7. 잘못 쓴 토를 찾아 고쳐보시오. (修改用错的词尾。)

본보기: 장정에게서 들은 평양고려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났다.

⇒ 장정에게서 들은 평양고려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1) 조선을 방문한 장정은 평양고려호텔 505호에서 들었다.

⇒

2) 평양에 도착한지 보름만에 장정의 병증상은 완전히 없어지고말았다.

⇒

3)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은 그대로 약재가 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서 리용되고있다.

⇒

4) 김훤은 조선에서 가면 영아를 꼭 만나보리라 생각하였다.

⇒

5) 조선속담도 바로 당신과 같은 조선인민에 훌륭한 미풍양속에 나온것이라고 말하였다.

⇒

8. 다음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본보기: 평양고려호텔 안내원들은 봉사성이 높아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 평양고려호텔 안내원들은 봉사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1) 영아는 손님의 얼굴을 보고 혹시 손님의 위가 좀 나쁘지 않은가고 물었습니다.

⇒

⇒

2) 인삼에는 소화에도 좋고 위장염을 방지하는데도 좋은 약효성분이 많이 들어있기때문에 그것을 쓰면 위병이 인차 낫는다.

⇒

⇒

3) 평양에 도착하여 보름이 지나 장정의 병증상은 완전히 없어지고말았다.

⇒

⇒

4) 그는 당신에게서 봉사를 받고 위병이 완쾌되어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

⇒

5) 그렇다니 저도 정말 기쁘데 당신은 어느 방에 들겠습니까?

⇒

⇒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본보기: 장정은 조선의 어느 호텔에 들었습니까?

⇒ 평양고려호텔에 들었습니다.

- 1) 청한 식탁에는 어떤 요리들이 차려져있었습니까?
⇒
- 2) 장정의 병에는 어떤 약초가 특효가 있습니까?
⇒
- 3) 장정의 병증상은 평양에 도착하여 얼마만에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
- 4) 김휘는 왜 숙소를 평양고려호텔로 정했습니까?
⇒
- 5) 장정은 조선의 속담이 어떻게 나온것이라고 말했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휘는 언제인가 친구인 장정에게서 조선의 평양고려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단어 (词语)

가득하다	满满	금은보화	金银财宝
가르다	分	기자	记者
가꾸다	管理	기척	动静
감동	感动	깊다	深
경리	经理	과오	错误
경치	景色	관람하다	观看
고생하다	辛苦	광란하다	狂乱
교훈	教训	광야	旷野
국보	国宝	나물	野菜
규약	规约	나오다	出来
그대로	照样	년	年
그만	就此	늘	常常
그치다	停	다소곳하다	低头不语

단어 결합	短语
담임 선생	班主任
도모하다	谋
돌보다	照顾
동작	动作
무연하다	一望无际
물	水
미풍량속	良好风俗
메달	奖章
바로	就
반복하다	反复
방지하다	防止
벌겋다	红彤彤
변경	改变
병색	病容
보름	十五天
봉사	服务
봉사성	服务态度
봉투	信封
부감하다	欣赏
부당하다	不妥当
분위기	气氛
빛갈	色彩
배낭	背囊
사색	思索
사자	狮子
삼천리금수강산	三千里锦绣河山
설레다	沸腾

성나다	生气
성분	成分
소화	消化
속담	俗话
숙소	宿舍
숙이다	低头
숲	森林
신랑	新郎
신부	新娘
자라다	成长
전적으로	完全
증상	症状
지극하다	极端
지나다	过
제가끔	各自
파도	波浪
평양고려호텔	平壤高丽饭店
풀	草
풀이	解释
피다	绽放
혈육	血肉
효과	效果
햇빛	阳光
행운	幸运
휘다	弯
약재	药材
약초	药草
약효	药效

언짢다 不愉快
 얼마 多少
 여기다 认为
 열쇠 钥匙
 열중하다 认真
 우승자 冠军
 유능하다 能干
 응당 应该

인삼 人参
 인상 印象
 입학생 新生
 위장염 胃炎
 위주 ……为主
 완전히 完全
 완쾌되다 全愈
 왜 为什么

성구(成语)

기억을 더듬다

回忆，仔细琢磨的意思。

례: 기억을 더듬어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았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时不我待

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기회는 앞질러 쟁취하여야 한다.



제3과. 한 교육자가정을 찾아서

(访问一个教育工作者的家庭)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집의 아이들이 공부하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 조선의 별식인 떡이**랑** 국수**랑**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상에 올랐습니다.
- 김희는 이렇게 많이 차렸**건만** 왜 별로 차린것이 없다고 말할가 하는 의혹을 가지였습니다.
-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에**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 그래서 아들을 내가 키울**수밖에** 없습니다.
- 앞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본문 (课文)



경제실무대표단으로 조선에 온 김휘는 참관일정에 따라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어느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풍습이 다른 조선의 가정들에서는 집을 어떻게 꾸리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집의 크기는 얼마쯤 되는지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김휘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늘 하듯이 과일과 꽃다발을 사들고 어느한 교육자가정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의 안주인이 반갑게 맞으면서 먼길에 힘들지 않았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김휘는 친근한 정을 느끼며 괜찮다고 말하였습니다.

집의 아이들이 공부하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을 다 돌아보았을 때 안주인은 손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서둘러 식사를 차리는것이였습니다. 조선의 별식인 떡이랑 국수랑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상에 올랐습니다.

다 차리고난 안주인은 뭐 별로 차린것 없지만 어서 들라고 하였습니다.

김휘는 이렇게 많이 차렸건만 왜 별로 차린것이 없다고 말할가 하는 의혹을 가지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차릴수 있는것을 못차렸다는 소리일가 아니면 자기가 제일 반가운 사람이 아니여서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휘는 여기서 생각하였습니다.

자기가 순간이나마 품었던 이상한 감정은 손님을 초청했을 때 하는 인사말의 문화적 차이때문에 온것이라고.

김휘는 다음날 함께 동행하였던 부사장 남수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의심했던 문제가 옳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을 초청했을 때 조선어와 중국어의 언어문화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발음 (发音)

• 참관일정에	[참과닐정예]
• 동행하였던	[동행하열편]
• 옳았음을	[오라쓰믈]
• 안주인이	[안쭈이니]
• 앓았는가고	[아난는가고]
• 성의	[성이]
• 특별히	[특별리]

문형과 문법 (语言点)

집의 아이들이 공부하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语法短语 “-다 말고” 表示 “停止”。

예: ○ 그는 축구를 하다 말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 식사를 하다 말고 어디 갑니까?

◆ 《-다 말고》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다 말고”形式造句。)

○ 왕용, 책, 읽다, 밖, 나가다

왕용은 책을 읽다 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 동동, 신문, 보다, 전화를 걸다

○ 왕근, 영화, 보다, 숙제, 하다

조선의 별식인 떡이랑 국수랑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상
에 올랐습니다.

词尾“-랑/이랑”表示“列举”。

례: ○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함께 가자요.

○ 신문이랑 잡지랑 샀습니다.

◆ 《-랑/이랑》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랑/이랑”形式造句。)

○ 왕용, 왕근, 책, 읽다, 밖, 나가다

왕용은 책을 읽다 말고 왕근이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 동동, 왕용, 보다, 신문, 잡지

○ 왕근, 왕용, 함께, 숙제, 놀이, 하다

김희는 이렇게 많이 차렸**건만** 왜 별로 차린것이 없다고 말할가 하는 의혹을 가지였습니다.

词尾 “-건만” 是连接词尾，表示 “对立”。

례: ○ 자식이 두명이**건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 1시간이나 기다렸**건만** 나타나지 않았다.

◆ 《-건만》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 “-건만” 形式造句。)

○ 왕근, 책, 읽다, 다, 전혀, 리해하다

왕근은 책을 다 읽었**건만** 전혀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 왕용, 보다, 잡지, 느끼다, 흥미,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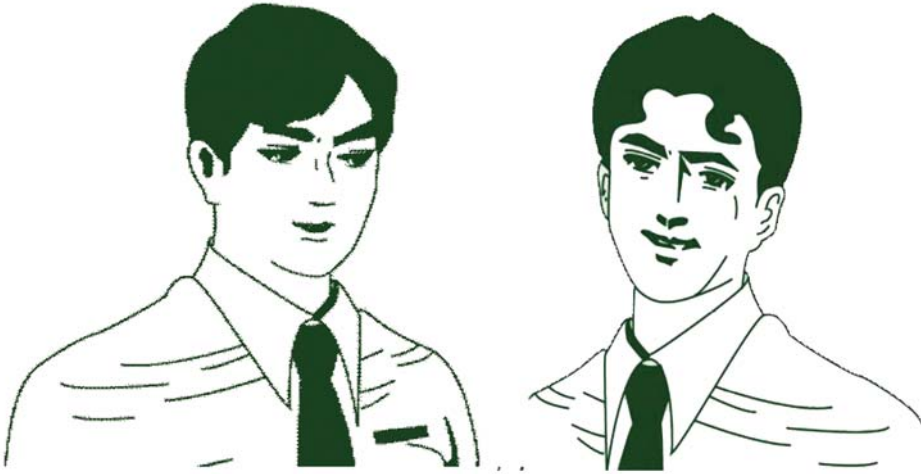
○ 동동, 주의하다, 경고, 끝내, 넘어지다

우리 인민의 설명절풍습(朝鮮人過春節的風俗) (1)

우리 인민들은 설을 맞으며 설달 그믐날 밤에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질도 하면서 설그림(세화)을 벽장이나 미닫이문같은데 붙여 장식하였으며 설옷(설빔 또는 세장)과 설음식(세찬)을 준비하였다.

명절행사는 정월초하루날 새벽부터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차례(제사)와 세배, 설음식대접, 민속놀이 등이었다.

대화(会话)



김희: 어제 돌아본 교육자가정이 참 행복해보입니다. 조선의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습니까?

남수: 예, 나의 가정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김희: 식구가 몇입니까?

남수: 네명입니다. 저와 안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김희: 안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남수: 그는 옥류아동병원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김희: 아들은 몇살입니까?

남수: 아들은 16살인데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김희: 그러니 딸은 초급중학교 학생이겠구만요.

남수: 아닙니다. 딸은 10살인데 지금 소학교 4학년생입니다.

김희: 두 자식을 키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남수: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당신네 가족은 식구가 몇입니까?

김희: 두명입니다. 나와 아들이 있습니다.

남수: 안해는 없습니까?

김희: 그는 1년전에 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가 키울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품이 참 많이 듭니다.

남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희: 김용입니다. 지금 15살입니다.

이번에 조선에 와서 화목한 가정들을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남수: 부디 행복하십시오.

발음 (发音)



- | | |
|------------|------------|
| • 교육자가정이 | [교육짜가정이] |
| • 옥류아동병원에서 | [옹뉴아동병워네서] |
| • 16살인데 | [열여섯싸린데] |
| • 1년전에 | [일련저네] |

문형과 문법 (语言点)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词尾 “-기에” 是连接词尾，表示 “原因”。

례: ○ 그가 기다리기에 함께 갔습니다.

○ 비가 오기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 **로 《-기에》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기에”形式造句。)

○ 날, 어둡다, 집, 돌아오다

날이 어둡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날씨, 덥다, 해수욕장, 가다

○ 비, 오다, 축구, 못하다

그래서 아들을 내가 키울수밖에 없습니다.

语法短语“-르/을수밖에 없다”表示“强调”。

례: ○ 이제는 그만둘수밖에 없습니다.

○ 차가 없으니 걸어갈수밖에 없습니다.

◆ **문법적구 《-르/을수밖에 없다》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르/을수밖에 없다”形式造句。)

○ 왕용, 그렇게, 하다

왕용은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 당신, 거기, 가다

○ 우리, 래일까지, 기다리다

앞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语法短语 “아무리 -더라도” 表示 “让步、强调”。

예: ○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 아무리 멀더라도 꼭 가겠습니다.

◆ 문법적구 《아무리 -더라도》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以 “아무리 -더라도” 形式造句。)

○ 슬프다, 견디다, 내다, 하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견디여내야 합니다.

○ 피롭다, 참다

○ 높다, 오르다, 꼭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1) 김휘는 참관일정에 따라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어느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2) 김휘는 다음날 함께 동행하였던 부사장 남수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의심했던 문제가 옳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3) 집의 안주인이 반갑게 맞으면서 먼길에 힘들지 않았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 4) 어제 돌아본 교육자가정이 참 행복해보입니다.
- 5) 그는 옥류아동병원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 6) 아들은 16살인데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고전 ⇒ 고전문학, 고전철학, 고전소설

- 1) 섬유 ⇒
- 2) 이동 ⇒
- 3) 다수 ⇒
- 4) 회복 ⇒
- 5) 리상 ⇒

3. 결합할수 있는 단어들을 줄을 그어 련결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连线。)

- | | |
|--------|------|
| 금슬(이) | 당기다 |
| 바줄(을) | 나다 |
| 부담(을) | 일어나다 |
| 사고(가) | 좋다 |
| 승용차(를) | 진행하다 |
| 폭발(이) | 다루다 |
| 담판(을) | 세우다 |
| 악기(를) | 지다 |

4. 토 《-기에》나 《-랑/이랑》, 《-건만》을 넣어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기에”、“-랑/이랑”、“-건만”形式造句。)

본보기: 영남, 같이, 형님, 그맘때, 강쪽, 거닐다 (-랑/이랑)

⇒ 영남이는 그맘때 형님이랑 같이 강쪽을 거닐고있었습니다.

1) 독촉하다, 귀국, 세우다, 해당하다, 대책 (-기에)

⇒

2) 바람, 세차다, 불다, 려행, 떠나다 (-건만)

⇒

3) 탁구장, 정구장, 야영소, 갖추어져있다, 모두 (-랑/이랑)

⇒

4) 많다, 풍부하다, 남새, 비타민, 섭취하다, 있다 (-기에)

⇒

5) 늘이다, 성화, 먹이다, 수출, 그, 고집하다, 그냥 (-건만)

⇒

5. 제시된 단어를 리용하여 《-다 말고》나 《-수밖에 없다》, 《아무리 -더라도》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다 말고”或“-수밖에 없다”、“아무리 -더라도”形式造句。)

본보기: 동생, 포도, 밤, 먹다, 찾다 (-다 말고)

⇒ 동생은 포도를 먹다 말고 밤을 찾았습니다.

1) 아찔하다, 나가다, 얼, 관성렬차, 타다 (-수밖에 없다)

⇒

2) 불쾌하다, 알려주다, 구체적, 실상 (아무리 -더라도)

⇒

3) 놓다, 수, 나가다, 밖 (-다 말고)

⇒

4) 폭우, 오다, 당신, 집, 머무르다 (-수밖에 없다)

⇒

5) 막히다, 억, 과실, 자기, 뉘우치다 (아무리 -더라도)

⇒

6. 다음의 문장들이 본문내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십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본보기: 조선에 온 김휘는 참관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려명거리에 있는 어느 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

- 1) 김휘는 중국에서와는 달리 꽃다발과 과일을 사가지고 교육자 가정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 2) 안주인은 손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을 서둘러 차렸습니다.
- 3) 안주인은 성의껏 차렸는데 많이 들라고 하였습니다.
- 4) 사람을 초청했을 때 조선어와 중국어의 언어문화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 5) 김휘와 함께 동행하였던 남수는 부사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7.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도대체, 불쑥, 가뜩, 도저히, 문뜩, 간혹

본보기: 잔디를 깎았는데 웬 사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 1) 우리끼리는 _____ 이 문제를 풀수 없었습니다.
- 2) _____ 영남이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 3) 방안에 가구들이 _____ 들어차서 발을 옮길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 4) 영남이에게 _____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 5) _____ 내가 휴가를 받는 날이면 온 집안이 명절이었습니다.

8. 다음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본보기: 김동무가 강의에 참가하지 못하였기에 그의 강의를 보충해주었습니다.

⇒ 김동무는 강의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를 보충해주었습니다.

1) 아버지는 대학의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십니다.

⇒

2) 불필요한 장식들이랑 없애고 서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

3) 우리는 영남동무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

4)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 말고 우리한테 달려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

5) 우리는 벼가을을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본보기: 김훤은 무엇을 사들고 교육자가정을 찾았습니까?

⇒ 꽃다발과 과일을 사들고 교육자가정을 찾았습니다.

1) 교육자가정의 안주인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

2) 교육자가정의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

3) 김훤은 안주인의 말에 왜 의혹을 가졌습니까?

⇒

4) 김훤은 다음날 누구와 동행하였습니까?

⇒

5) 김훤은 남수와의 대화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휘는 참관일정에 따라 미래과학자거리의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단어 (词语)

식구	家口	귀국	回国
가구	家具	과실	过失
가지다	拿	관성렬차	过山车
가득	满	팬찮다	还可以
간혹	偶尔	나가다	出去
감정	感情	넘어지다	摔倒
강둑	河坝	뉘우치다	悔过
거닐다	逛	다루다	弹
걸다	挂	다수	多数
견디다	坚持	달리	不一样
결합하다	结合	담판	谈判
경고	警告	당기다	拉
고급중학교	高中	도대체	到底
고려하다	考虑	도저히	简直
고전	古典	독촉하다	催促
고집하다	坚持己见	돌아오다	回来
공원	公园	동행하다	同行
국수	冷面	들어차다	装满
궁금하다	好奇	대책	对策
그냥	就那么	대표단	代表团
그러니	也就是说	려명거리	黎明大街
그맘때	那会儿	런결하다	连接
금슬	夫妻情	리상	理想
기다리다	等待	말다	卷
괴롭다	难过		

머무르다 逗留
 문학 文学
 문득 突然
 바줄 绳子
 벼 稻子
 별식 特餐
 보충하다 补充
 부담 负担
 부디 千万
 부럽다 羡慕
 분명 分明
 불쾌하다 不愉快
 불필요하다 不需要
 불쑥 突然
 배경 背景
 상 桌子
 서두르다 赶忙
 섬유 纤维
 섭취하다 吸取
 성화 麻烦
 소장 所长
 수(-예) 绣
 수출 出口
 슬프다 难过
 식구 家眷
 실상 实际上
 새(新) 新

장식 装饰
 철학 哲学
 초급중학교 初中
 친근하다 亲近
 키우다 养
 특별히 特地
 폭발 爆炸
 품 怀抱
 품다 怀着
 학년 年级
 한 一个
 회복 恢复
 화목하다 和睦
 확실히 确实
 확인하다 确认
 깎다 剪
 꾸리다 修
 찍다 拍
 아찔하다 发晕
 억 张口结舌
 얼 魂
 얼마쯤 多少
 오르다 上
 옥류아동병원 玉流儿童医院
 옮기다 搬
 일정 日程
 의심하다 怀疑
 의혹 疑惑

성구 (成語)

애를 먹다

遭罪, 吃苦头, 伤脑筋

례: 어지간히 애를 먹고서야 수학문제를 풀었다.

응석을 부리다

撒娇

례: 아무때나 응석을 부리면 안돼요.

말딸은 금주고도 못산다

长女金不换

례: 말딸은 금주고도 못산다지만 말아들어야 비기
겠는가.



제4과. 미래소학교에서

(在未来小学)

중심 문형 (重点句型)

- 미래소학교는 교육을 잘하기로 이름났습니다.
- 교원이 학생들에게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가르치고있는것 같았습니다.
- 지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마저 그 수가 대단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 조선에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었습니다.
- 이전같으면 웃음과 관련한 조선어어휘를 다 안다고 생각하겠는데.
- 다 알기는커녕 이제야 시작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본문(课文)

교육자가정을 나선 김희는 다음일정으로 미래 소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미래소학교는 교육을 잘하기로 이름났습니다.

어느한 교실에 들어서니 국어수업이 한창이었는데 교원이 학생들에게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가르치고있는것같았습니다.



조선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만 놓고보아도 참으로 풍부하다고 하면서 교원은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 《하하》, 처녀들의 웃음소리 《호호》, 아이들의 웃음소리 《해해》, 늙은이들의 웃음소리 《허허》, 각이한 웃음의 빛깔을 나타내는 웃음소리 《히히》, 《헤헤》, 《호호》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마저 아기의 웃는 모양 《생글생글》, 《해죽해죽》, 《해죽발죽》, 어른들의 웃는 모양 《싱글싱글》, 《싱긋싱긋》, 《싱글빙글》, 처녀들의 웃는 모양 《생글생글》, 《생긋생긋》, 비웃음의 빛깔을 나타내는 모양 《히죽비죽》, 《해죽배죽》 등 그 수가 대단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교원은 계속하여 사람의 걸음새를 나타내는 말을 놓고보아도 《아장아장》은 갓 걸음마를 뻔 아기의 귀여운 걸음새를 나타내는 말이고 《살짝살짝》은 가벼운 걸음새를 나타내는 말이며 《어정어정》, 《어슬렁어슬렁》, 《터벌터벌》, 《휘청휘청》, 《흔들쩍흔들쩍》, 《슬금슬금》은 느리고 무거운 걸음새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을수록 재미있고 배우고싶은 말이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은 김희는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의 하나인 민족어의 우수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들을수록 | [드를쭈록] |
| • 특징짓는 | [특짚진는] |
| • 우수성에 | [우수썩에] |
| • 웃는 | [운는] |
| • 웃음소리 | [우숨쑈리] |
| • 해죽밭쪽 | [해죽빨쪽] |



挤喉音化 (된소리되기)

读成[ㄱ, ㄷ, ㅂ]的收音读音后的不送气音读成挤喉音。

례: 국가[국까], 말사위[말싸위], 곱돌[곱똥],

흙밥[흑빡], 밭지[밭찌], 없다[업따]

문형과 문법 (语言点)

미래소학교는 교육을 잘하기로 이름났다.

语法短语 “-기로 이름나다” 表示 “突出” 的意思。

례: ○ 남수는 축구를 잘하기로 이름났습니다.

○ 학급에서 착하기로 이름난 옥이.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왕용, 탁구, 잘, 치다

왕용은 탁구를 잘 치기로 유명합니다.

○ 왕근, 동무, 도와주다, 잘

○ 동동, 힘, 세다

교원이 학생들에게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가르치고있는것같았다.

语法短语 “-는것같다” 表示 “现在时”、“推测”。

례: ○ 그는 공부를 잘하는것같습니다.

○ 사람들이 기다리는것같았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눈, 오다

눈이 오는것같습니다.

○ 친구, 찾다

○ 집, 가다

지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마저 그 수가 대단히 많다고 하였다.

词尾“-마저”表示“包含”。

예: ○ 바람이 세게 부는데다가 비마저 왔다.

○ 차가 고장나고 휘발유마저 떨어졌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머리, 아프다, 기침, 나다

머리가 아프고 기침마저 났다.

○ 모두, 떠나다, 그, 가다

○ 등, 굽다, 머리, 희여지다

대화(会话)



김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교원: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희: 조선에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었는데 이번에 조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같으면 웃음과 관련한 조선어어휘를 다 안다고 생각하겠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다 알기는커녕 이제야 시작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교원: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어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부르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를 실지 보는듯이 생동하게 나타낼수 있는 참으로 표현이 풍부한 언어입니다.

김희: 그러면 바다에 대한 표현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교원: 《사나운 바다》, 《노한 바다》, 《세찬 바다》, 《잔잔한 바다》 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생활의 바다》, 《사색의 바다》, 《언어의 바다》, 《현실의 바다》, 《피바다》, 《불바다》, 《별바다》, 《안개바다》는 바다에 비유하여 쓴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김휘: 그러면 《기쁨의 바다》, 《행복의 바다》, 《열정의 바다》라는 표현도 다 그렇게 리해하여야 합니까?

교원: 옳습니다. 그 표현들도 역시 말하려는 대상이나 현상이 헤아릴수없이 많거나 크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벼바다》, 《소금바다》, 《닭알바다》, 《기계바다》, 《노래바다》, 《웃음바다》와 같은 표현들도 널리 쓰이고있습니다.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라는 표현도 그 대표적실례입니다.

김휘: 그러면 바다와 관련한 성구속담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교원: 바다와 관련한 성구속담은 수십가지나 되는데 대표적으로 《바다를 낚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먹으라》,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격》, 《폭풍전야의 바다는 고요하다》, 《산에 가야 썩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바다로 나가야 할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와 같은 속담들을 들수 있습니다.

김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바다 하나와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표현이 풍부하니 산과 강, 벌에 대해서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교원: 그렇습니다.

김휘: 조선어는 정말 표현이 풍부한 언어입니다.

발음 (发音)



- | | |
|--------|--------|
| • 관련한 | [괄려난] |
| • 닭알바다 | [달갈바다] |
| • 실지 | [실찌] |

문형과 문법 (语言点)

조선에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습니다.

语法短语 “-기 전” 表示 “之前、以前” 的意思。

례: ○ 사람들이 오기 전에 끝냈다.

○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비, 오다, 집, 도착하다

비가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여야 한다.

○ 비행기, 착륙하다, 비행장, 가다

○ 방, 어둡다, 전등, 켜다,

이전**같으면** 웃음과 관련한 조선어어휘를 다 안다고 생각하겠는데.

语法短语 “-같으면” 表示 “要是、像” 的意思。

례: ○ 여느때**같으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 지난 시기**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다른 사람, 그렇게, 못하다
 다른 사람같으면 그렇게 못할것이다.
- 다른 때, 당신, 이해하다

- 어제, 그, 오다

다 알기**는**커녕 이제야 시작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词尾 “-는/은커녕” 表示 “不用说、别说” 的意思。

- 예: ○ 오기**는**커녕 소식도 없다.
 ○ 밥**은**커녕 국도 주지 않았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도착하다, 떠나다
 도착하기**는**커녕 떠나지도 않았다.
- 끝내다, 시작하다

- 최우등, 우등, 하지 못하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들을수록 재미있고 배우고싶은 말이였습니다.
- 2)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의 하나인 민족어의 우수성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 3) 우리 조선어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부르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를 실지 보는듯이 생동하게 나타낼수 있는 참으로 표현이 풍부한 언어입니다.
- 4) 헤아릴수 없이 많거나 크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 5) 그래서 《벼바다》, 《소금바다》, 《닭알바다》...
- 6) 그러면 바다와 관련한 성구속담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미장 ⇒ 미장공사, 미장작업, 미장기술

- 1) 박사 ⇒
- 2) 포장 ⇒
- 3) 언론 ⇒
- 4) 구제 ⇒
- 5) 급행 ⇒

3.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과목, 닭다, 명예, 서늘하다, 저지르다, 박물관

본보기: 그가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은/는) 수학입니다.

- 1) 사고를 _____ (고도) 제가 잘한것처럼 놀아댄다.
- 2) 해가 넘어가자 _____ (ㄴ/은) 바람이 불어왔다.

- 3) 영남이는 신통히도 자기의 할아버지를 _____ (았다).
- 4) 누구나 자기의 _____ (을/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 5) 우리는 래일 _____ (을/를) 참관한다.

4. 결합할수 있는 단어들을 줄을 그어 련결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连线。)

- | | | |
|----|-------|-----|
| 불만 | _____ | 켜다 |
| 성냥 | _____ | 높다 |
| 체온 | _____ | 터치다 |
| 기교 | _____ | 없다 |
| 보험 | _____ | 부리다 |
| 체면 | _____ | 먹다 |
| 국수 | _____ | 들다 |

5. 토 《-는/은커녕》이나 《-마저》가 들어가게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는/은커녕”或“-마저”形式造句。)

본보기: 향의, 말, 비치다, 한마디, 못하다 (-는/은커녕)

⇒ 향의는커녕 말도 한마디 비치지 못한다.

- 1) 혈압, 낮다, 알리다, 앓다, 맥박 (-마저)

⇒

- 2) 반격, 제대로, 방어, 못하다, 하다 (-는/은커녕)

⇒

- 3) 밥, 차다, 국물, 덥다, 못하다 (-마저)

⇒

- 4) 버섯, 미나리, 못하다, 뜯다, 오다 (-는/은커녕)

⇒

- 5) 바람, 비, 불다, 내리다, 세차다 (-마저)

⇒

6.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본보기: 상대방, 빙빙, 돌다, 주위, 옛보다, 기회, 그

⇒ 그는 상대방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회만 엿보았다.

1) 쉬임없이, 심판원, 선수, 살펴보다, 동작

⇒

2) 공지, 버드나무, 밋밋하다, 밑, 있다.

⇒

3) 체조경기, 이기다, 영희, 상대편, 선수

⇒

4) 태연하다, 창가, 영희, 비끼다, 모습

⇒

5) 방역사업, 범하다, 잘못, 사소하다, 하다, 말다

⇒

7. 주어진 단어를 리용하여 《-기로 유명하다》나 《-는것같다》, 《-기 전》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기로 유명하다”或“-는것같다”, “-기 전”形式造句。)

본보기: 어머니, 용하다, 의술 (-기로 이름나다)

⇒ 어머니는 의술이 용하기로 이름났습니다.

1) 목욕탕, 있다, 맞은편, 정거장(-는것같다)

⇒

2) 걸리다, 감기, 몸단련, 정상화하다(-기 전)

⇒

3) 형님, 치다, 잘, 혜염(-기로 이름나다)

⇒

4) 은행지점, 앓다, 멀다, 그리, 가다(-는것같다)

⇒

5) 알리다, 나, 결혼, 꼭, 하다(-기 전)

⇒

8.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1) 김휘는 참관일정에 따라 미래소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교실에서는 국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 김휘는 참관일정에 따라 미래소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교실에서는 국어수업이 한창이었다.

2) 교원은 학생들에게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가르치면서 조선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가 참으로 풍부하다고 하였다.

⇒

3) 교원은 사람의 걸음새를 나타내는 말을 설명한 다음 각이한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4) 김휘는 교원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고 조선어의 우수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

5) 우리 조선어는 표현이 대단히 풍부한 언어인데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를 생동하게 나타낼수 있다.

⇒

6) 조선에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었는데 이번에 조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1) 김휘가 방문한 소학교는 어느 거리에 있습니까?

⇒ 김휘가 방문한 소학교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있습니다.

2) 교원은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가르친 다음 어떤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

3) 조선어에서 처녀들의 웃음소리는 어떠합니까?

⇒

4) 《아장아장》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

5) 교원은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

6) 《기쁨의 바다》, 《행복의 바다》, 《열정의 바다》는 어떤 표현들입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휘는 참관일정에 따라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미래소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

단어 (词语)

가볍다	轻	국어	国语
각이하다	各种	급행	快车
감명	感受	기교	技巧
갓	刚	귀엽다	可爱
강조하다	强调	과목	科目
걸음마	脚步	관련하다	有关
걸음새	走路的姿势	나타내다	呈现
격	如	낮다	低
결혼	结婚	노하다	火
고요하다	寂静	다시금	再次
굽돌	滑石	단련	锻炼
곳	处	닮다	像
공사	工程	등	等
공지	空地	대상	对方
구제	救济	된소리	挤喉音

만사위	大女婿	싱글빙글	微笑
맞은켄	对面	싱글싱글	微笑
명예	名誉	싱긋싱긋	微笑
미나리	水芹	생글생글	微笑
미장	抹墙	생긋생긋	微笑
밋밋하다	平平的	생동하다	生动
맥박	脉搏	잔잔하다	潺潺
박사	博士	저지르다	闯祸
반격	反击	전야	田野
방역	防疫	지점	地点
버드나무	柳树	지어	甚至
버섯	蘑菇	징표	标志
범하다	犯	착륙하다	着陆
보험	保险	창가	窗边
불만	不满	체면	面子
비웃음	嘲笑	켜다	打开
비유하다	比喻	터벌터벌	蹒跚
빙빙	旋转	터치다	说出
사고(-치다)	闯祸	태연하다	泰然自若
사소하다	琐碎	포장	包装
살짝살짝	轻轻地	폭풍	暴风
성냥	柴火	하하	哈哈
소금	盐	항의	抗议
슬금슬금	悄悄地	허허	呵呵
신통히	妙	현상	现象
심판원	裁判	호탕하다	豪放
		호호	呵呵

흐흐	嘻嘻	뿐	只
흔들쩍흔들쩍	晃来晃去	아기	婴儿
히죽비죽	嘲笑	아장아장	姗姗
히히	嘻嘻	어슬렁어슬렁	缓悠悠
해죽발죽	笑盈盈	어정어정	姗姗
해죽배죽	笑盈盈	어휘	词汇
해죽해죽	笑盈盈	언론	言论
해해	嘻嘻	열정	热情
헤헤	嘿嘿	엿보다	偷看
헤염	游泳	우등	优等
휘청휘청	摇摇晃晃	우수성	优越性
끝내다	结束	울음소리	哭声
뜯다	采	이기다	赢

삼천리금수강산 (三千里锦绣河山)

삼천리는 우리 나라의 크기를 나타내며 금수강산은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나라의 최북단인 온성군 풍서리로부터 최남단인 제주도 마라도사이의 직선거리가 3천리나 된다.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강들과 산들을 비롯한 모든 자연요소들의 조화로운 결합과 아름다움이 마치 비단에 수를 놓은듯하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성구(成语)

하루가 멀다하게

三天两头

례: 그는 하루가 멀다하게 경기장에 갔다.

알고 한번 모르고 한번

下不为例

례: 알고 한번 모르고 한번이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5과. 송화거리에서 (在松花大街)

중심 문형 (重点句型)

- 김희는 인삼차를 사기 위하여 송화거리로 갔다.
- 젊은이가 레절이 없군.
- 내가 할머니에게 무엇을 잘못 말하였을가?
- 택시운전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마치 환상속의 거리에 와있는것 같습니다.
- 바로 이 80층아파트밑에 있는 상점에서 판다오.

본문 (课文)



김휘는 인삼차를 사기 위하여 송화거리로 갔습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80층 초고층살림집과 원형기둥모양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푸른 빛으로 단장한 송화거리는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김휘는 인삼차를 파는 상점이 어디냐고 물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앞에는 나이가 많아보이는 할머니가 어린 남자애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서툰 조선어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놀라면서 《젊은이가 레절이 없군. 늙은이를 보고 어떻게 <당신>이라고 할수 있소?》 라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순간 김휘는 실수하였다는 생각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무엇을 잘못 말하였을가?)

잠시 생각해본 김휘는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오래동안 조선주재 로씨야대사관에서 일하면서 조선의 문화를 잘 알고있는 친구인 쎌르게이가 조선에 가면 늙은이를 찾을 때 꼭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로씨야에서처럼 《당신》 이라고 하거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실례된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 조선어에서 늙은이에 대한 부름말은 로어에서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던 김휘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모스크바에 방문을 갔던 조선의 관광객 김영수가 거리에서 한 늙은이를 《할머니!》 라고 부르다가 그에게서 모욕을 당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김휘는 그때 그에게 《로씨야에서는 나이많은 늙은이를 찾을 때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찾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실례되는 말입니다. 반드시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라고 묻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휘는 생각하였습니다.

로씨야어와 조선어에서 늙은이에 대한 부름말은 대조되는 문화적차이를 가지고있다는것을...

김휘는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합니다. 저의 조선말수준이 아직 서툴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려인삼차를 사고싶은데 어디에서 팝니까?》

할머니는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바로 이 80층 아파트밑에 있는 상점에서 판다오.》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비껴있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기 집이 바로 80층 아파트인데 꼭 놀러오라고 하였다.

참으로 송화거리에서 있던 일은 김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발음 (发音)



• 80층	[팔십층]
• 많아보이는	[마나보이는]
• 늙은이를	[늘그니를]
• 절대로	[절때로]

문형과 문법 (语言点)

김휘는 인삼차를 사기 위하여 송화거리로 갔다.

语法短语 “-기 위하여” 表示 “为、为了” 的意思。

례: ○ 그들은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기장으로 갑니다.

○ 나는 조선어를 배우기 위하여 평양에 왔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동무, 경기, 이기다, 어떻다, 나, 열심히, 훈련하다

동무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나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합니다.

○ 동무, 친구, 만나다, 어디, 가다, 나, 광장, 뛰여가다

○ 동무, 연극, 관람하다, 극장, 언제, 떠나다, 나, 10시

젊은이가 레절이 없군.

词尾“-군”是不定阶终结词尾，表示“陈述”。

례: ○ 자네 설명이 리해가 안되는군.

○ 그럼 할수 없군.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형편, 말, 아니다

형편이 말이 아니군.

○ 세월, 빠르다, 정말

○ 이제야말로, 생각나다

내가 할머니에게 무엇을 잘못 말하였을가?

词尾“-르/을가”是不定阶终结词尾，表示“疑问”。

예: ○ 어떻게 하면 좋을가?

○ 아버지가 정말 여기에 을가?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무슨, 방도, 없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 왜, 생각, 못하다

○ 동생, 어디, 있다

바로 이 80층아파트밑에 있는 상점에서 판다오.

词尾“-다오”是不定阶终结词尾，表示“陈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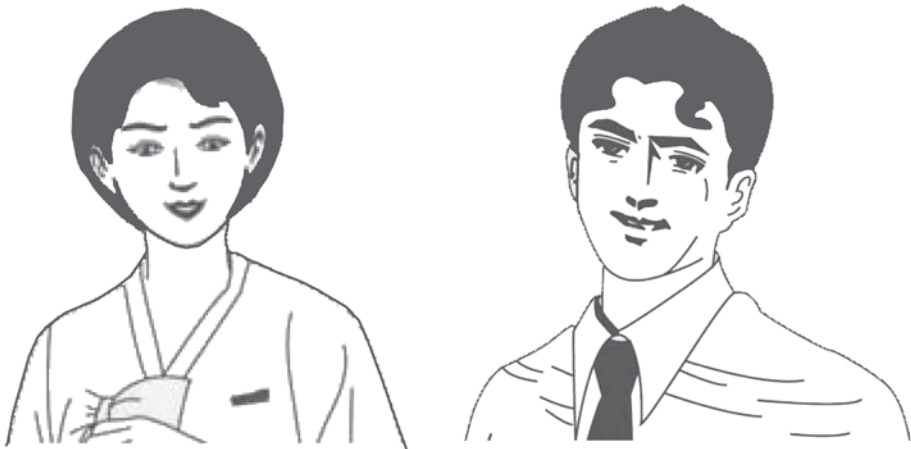
예: ○ 선생님은 정말 구수하게 이야기하신다오.

○ 송화거리가 정말 희한하다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사람들, 정말, 좋다
사람들이 정말 좋네요.
- 상점, 손님, 많다
- 손자, 공부, 잘하다

대화(会话)



순희: 김휘선생, 오래 기다렸습니까?

김휘: 아닙니다. 나도 방금 여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
일떠선 송화거리구만요.

순희: 그렇습니다.

김휘: 이 거리를 불과 한해사이에 건설했다는것이 정말입니까?

순희: 그렇습니다. 56정보의 부지면적에 백수십만㎡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160여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을 완공해야
하는 송화거리건설은 건축형식과 내용, 공사규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대전이었습니다.

김희: 정말 조선에서만 창조할수 있는 기적입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희: 앞쪽에 바라보이는 제일 높은 건물이 바로 80층아파트입니다. 저는 바로 그 아파트 1현관 11층 2호에서 삽니다.

김희: 야, 정말 대단히 높구만요. 저 아파트는 1층부터 살림집입니까?

순희: 아닙니다. 5층까지는 수십개의 봉사망으로 되어있고 6층부터 살림집입니다. 한개 층에 12세대의 살림집이 있답니다.

김희: 우리앞에 보이는 저 도로는 어디로 향해있습니까?

순희: 그 도로는 우리 평양시의 동쪽관문인 력포구역으로 향해있습니다.

김희: 알만합니다. 이 송화거리는 정말 희한합니다. 마치 환상속의 거리에 와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송화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순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젠 송화거리에서 유명한 송신각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김희: 그렇게 합시다. 저는 조선의 국수와 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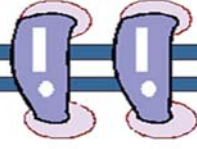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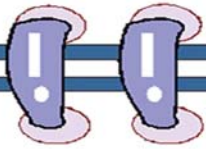
순희: 잘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선의 유명한 신선로도 맛보십시오.

김희: 조선에 와서 보고 들은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선으로 오자고 하겠습니다.

발음 (发音)



- 1현관 11층 2호 [이현관 시빌층 이호]
- 신선로도 [신설로도]
- 건축면적 [건축면적]
- 알만합니다 [알마남니다]
- 희한합니다 [희하남니다]



조선의 민족음식 - 신선로 (朝鮮传统的民族菜肴—神仙炉)

신선로요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요리이다.

신선로요리는 고기, 물고기, 남새, 산나물, 과일 등을 따로따로 가공하여 볶음, 전, 회, 완자 등을 만들어 신선로에 담고 끓여먹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요리이다.

신선로요리는 고급하고 다양한 음식재료, 독특한 형태의 그릇, 요리의 먹음직스러운 예술적꾸밈새, 사람들이 모여앉아 친근하게 식사하는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화목한 식생활풍습 등이 한데 어울려 완성된 조선요리의 걸작품이다.

문형과 문법 (语言点)

택시운전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词尾 “-한테서” 表示 “来源、出发点”。

례: ○ 이 책은 친구**한테서** 빌리었습니다.

○ 나는 형님**한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누구, 김희, 편지, 받다, 어머니, 오다

김희는 누구**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까?

김희는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 누구, 순희, 선생님, 책, 빌리다

- 누구, 당신, 꽃다발, 받다, 친구

마치 환상속의 거리에 와있는것 같습니다.

语法短语“마치 -는것 같다”表示“像、如同”的意思。

예: ○ 마치 산속에 있는것 같습니다.

○ 마치 꿈을 꾸는것같은 느낌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송화거리, 멋있다, 그림, 보다, 정말
송화거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것 같습니다.
- 영철, 통구, 잘, 하다, 통구선수, 보다

- 호수, 넓다, 바다, 보다

연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마침 앞에는 나이가 많아보이는 할머니가 어린 남자애와 함께 걸어가고있었다.
- 2) 늙은이를 보고 어떻게 《당신》이라고 할수 있소?

- 3) 연건축면적을 가진 160여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
- 4) 그 아파트 1현관 11층 2호에서 삽니다.
- 5) 알만합니다. 이 송화거리는 정말 희한합니다.
- 6) 저는 조선의 국수와 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건축 ⇒ 건축대학, 건축공학, 건축계획

- 1) 기후 ⇒
- 2) 모임 ⇒
- 3) 재정 ⇒
- 4) 무상 ⇒
- 5) 련쇄 ⇒

3. 주어진 단어들가운데서 적합한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选词填空。)

불현듯, 부디, 스스로, 자연히, 물끄러미, 잠자코

본보기: 어머니는 잠에 든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 1) 무슨 일이 생겼는지 ()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 2)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할 일을 () 찾아한다.
- 3) 그는 나에게 자기의 편지를 ()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
- 4) 그의 지성을 생각하면 () 눈에서 눈물이 난다.
- 5) 그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 앉아만 있었다.

4.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정문 ⇒ 정문이 요란하다, 정문을 통과하다, 정문에서 만나다

- 1) 학급 ⇒

- 2) 양말 ⇒
- 3) 갑문 ⇒
- 4) 비둘기 ⇒
- 5) 무게 ⇒

5. 결합할수 있는 단어들을 련결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连线。)

절벽(에)	일으키다
과문(을)	따르다
통제(를)	오르다
류행(을)	받다
목청(을)	보이다
본때(를)	올리다
환성(을)	뿡다
심부름(을)	가다

6. 다음문장의 빈칸에 알맞는 토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填上恰当的 词尾。)

본보기: 그는 퇴근시간(이) 되자 오솔길(을) 통과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 1) 진진은 노상 객기() 부리() 아무 일() 도말어나선다.
- 2) 그는 나를 만나() 어색하() 악수() 청하였다.
- 3) 교수선생님은 교통() 마비되() 조바심이 나() 어쩔줄 몰라하였다.
- 4) 그는 나() 아첨하() 별의별 연극을 다 하였다.
- 5) 리명은 창가() 다가가 밖() 주시하였다.

7. 토 《-한테서》나 《-르/을가》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한테서”或“-르/을가”形式造句。)

본보기: 인차, 오다, 편지, 사돈 (-한테서)
 ⇒ 사돈한테서 인차 편지가 왔습니다.

1) 없다, 책, 가방, 왜, 안 (-르/을가)

⇒

2) 제기되다, 상림, 착상, 새롭다 (-한테서)

⇒

3) 휴양하다, 바다가, 가다, 좋다, 얼마나 (-르/을가)

⇒

4) 부지중, 탄성, 리정, 러져나오다 (-한테서)

⇒

5) 순회, 생각하다, 단식경기, 이기다, 누구 (-르/을가)

⇒

8.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다오》나 《-기 위하여》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다오”或“-기 위하여”形式造句。)

본보기: 나, 동무, 가다, 상점 (-다오)

⇒ 나는 동무와 상점에 간다오.

1) 준비하다, 박동무, 주다, 꽃다발 (-기 위하여)

⇒

2) 리정, 생일, 상림, 가져가다, 꽃다발 (-다오)

⇒

3) 저녁, 그, 기숙사, 김동무, 만나다, 가다 (-기 위하여)

⇒

4) 불시에, 비난하다, 시작하다, 단장, 그 (-다오)

⇒

5) 그, 살피다, 귀, 동정, 강구다 (-기 위하여)

⇒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본보기: 김희는 송화거리에서 무엇을 사려고 했습니까?

⇒ 김희는 조선의 특산품인 인삼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1) 김희는 누구와 함께 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까?

⇒

2) 할머니는 무엇때문에 김희에게 레질이 없다고 했습니까?

⇒

3) 조선에서 늙은이를 찾을 때에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

4) 할머니는 어디에서 살고있습니까?

⇒

5) 할머니는 인삼차를 어디에서 판다고 하였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희는 인삼차를 사기 위하여 송화거리로 갔습니다.

...

단어 (词语)

간수하다	珍藏	관문	关口
갑문	水闸	광장	广场
강구다	倾听	너그럽다	宽容
건설	建设	노상	总是
건축	建筑	노을	霞
건축형식	建筑形式	놀라다	吃惊
공공건물	公共建筑	내용	内容
공사규모	建设规模	다가가다	走近
교수	教学	단식	单打
기적	奇迹	단장하다	打扮
객기	意气	도맡다	承办
계획	计划	둘러보다	环视
		대사관	大使馆

력포구역 力浦区

련쇄 连锁

류행 流行

리유 理由

마비되다 麻痹

마치 像

모임 聚会

목청 嗓子

무게 重量

무상 免费

물끄러미 呆呆地

미안하다 抱歉

방도 方法

별의별 各种各样

본때 厉害

봉사망 服务网

부름말 称呼

부지면적 用地面积

부지중 不知不觉中

불과 不过

불시 突然

불현듯 忽然

비난하다 指责

빛 光

사돈 亲家

살피다 观察

상상 想象

솟다 耸立

송신각 松新阁

송화거리 松花大街

수준 水平

스스로 自觉地

신선로 神仙炉

심부름 跑腿儿

세대 一代

자연히 自然地

잠 睡觉

잠자코 一声不吭

적합하다 合适

정문 正门

정보 町步

조바심 焦虑

주시하다 注视

주재 驻

즐비하다 鳞次栉比

지성 真诚

재정 财政

착상 构思

창조 创造

대전 交战

초고층 高楼大厦

초월하다 超越

탄성 赞叹声

통제 控制

특산품	特产品
휴양	修养
환상	幻想
환성	欢声
황금	黄金
빠짐없이	毫无遗漏
뽑다	拉唱腔
찌르다	刺
아침	拍马屁
아우성	惊叫
앞쪽	前面

양말	袜子
어색하다	尴尬
연건축면적	总建筑面积
오래	好久
오솔길	小径
운전사	司机
유명하다	有名
일으키다	引起
완공	完工

성구(成语)

앞장(에) 서다

打先锋; 站在最前列

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고 또 서고있다.

밤과 낮(밤낮)이 따로 없다

不分昼夜

례: 그는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한다.

일이 곱지 얼굴이 곱나

意思是在生活当中人们比起一些绣花枕头似的人更喜欢勤奋努力工作的人。

례: 《일이 곱지 얼굴이 곱나》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일을 잘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제6과. 조선어강습소에서 (第六课 在朝语培训班)

중심 문형 (重点句型)

- 혜영은 공간과 색깔에 대한 단어를 말해주었습니다.
- 단어를 쉽게 습득할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련이어 결합할수 있다니?
- 미처 《염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 나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다 합성할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본문 (课文)



송화거리에서 서툰 조선어로 하여 오해를 받은 김휘는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조선어를 속성으로 배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김휘는 평양문화어강습을 받으려고 조선어강습소 교원인 혜영을 찾아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혜영은 언어를 속성으로 습득하려면 요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공간에 대한 단어들을 사건, 장면과 연결하여 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실례로 《강은 깊고, 깊은것은 바다이며 바다는 넓고, 넓은것은 하늘이며 하늘은 높고, 높은것은 나의 리상이며 나의 리상은 대단합니다.》에서처럼 단어들의 꼬리를 련속 이어가면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대상적인 단어들과 성질적인 단어들을 쉽게 습득할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로 긴 숨을 쉬면서 넓은 사막을 걸어가는데 깊은 우물이 생겨 큰소리로 환성을 질렀습니다.》에서처럼 대상과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련결하여 표현하는 요령에 대하여서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과는 곁은 빨강고 속은 노랑고 씨는 까맣고 씨속은 하얗고 잎은 푸릅니다.》와 《순희는 빨간 리봉을 달고 흰 저고리를 입고 파란 치마를 입고 노란 양말을 신고 까만 구두를 신고있습니다.》에서처럼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 문장에 넣어 표현하는 언어습득요령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혜영은 《앞으로 단어를 많이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면 사건, 대상, 사실 등과 련결하여 표상을 가지고 학습하는것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언어습득의 몇가지 요령들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혜영의 말대로 공부하니 해당한 단어들인 장면, 사실들과 련결되어 머리 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언어습득요령이었습니다.

발음 (发音)



- 속성으로 [속썩으로]
- 넓고 [널꼬]
- 무한합니다 [무하남니다]
- 효과가 [효과가]
- 잊혀지지 [이쳐지지]
- 계속 [계속]

문형과 문법 (语言点)

혜영은 공간과 색깔에 대한 단어를 말해주었습니다.

语法短语“-에 대한”表示“关于、对于”的意思。

예: ○ 그는 언어습득요령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평양에 대한 감상이 어떻습니까?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명승지, 설명, 해주다

명승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첨단과학, 설명, 듣다
- 조선어문법, 강의,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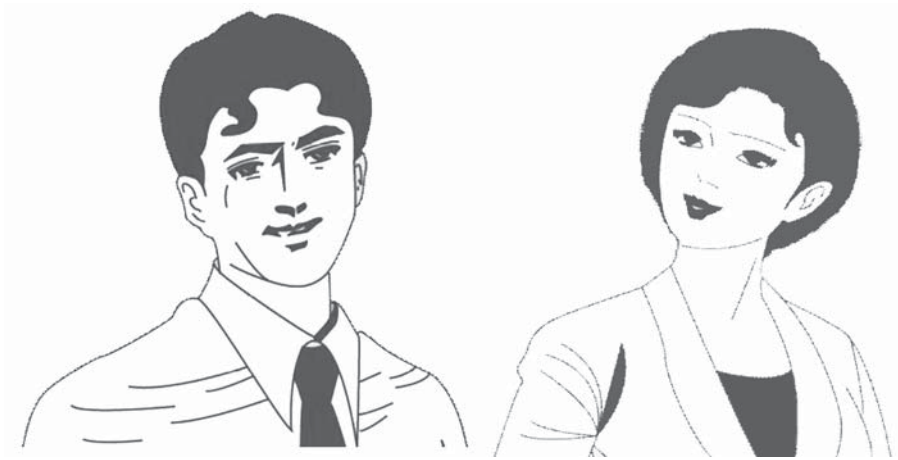
단어들을 쉽게 습득할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语法短语“-게 되다”表示“有了某种结果”。

- 예: ○ 김희는 조선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 그들은 평양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인터넷, 통하다, 그, 알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 대학, 오다, 그, 만나다
- 방금, 그, 사귀다

대화(会话)



김희: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조선어습득의 요령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혜영: 그렇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김희: 그런데 조선어에서 단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합니까?

혜영: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선어에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면 단어들을 련이어 결합할수 있습니다.

김희: 련이어 결합할수 있다니? 어떻게 말입니까?

혜영: 실례로 《경제》라는 단어에 《실무》라는 단어가 붙어 《경제실무》가 되고 여기에 《회담》이 붙어 《경제실무회담》이 되며 《진행》이라는 단어와 《과정》이라는 단어가 련속 붙어 《경제실무회담진행과정》이라는 단어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어에서 단어들은 결합방식이 자유롭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합성어들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김희: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구만요. 그러면 임의의 단어들을 이렇게 붙여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실례를 들어 《사람》과 《염통》을 붙여 《사람염통》.


혜영: 《사람염통》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는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통》이라는 단어는 주로 짐승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염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심장》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김휘: 제가 미처 《염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쪽을 잘 알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다 합성할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혜영: 그래서 언어마다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휘: 잘 알았습니다. 해당 언어를 배우려면 언어습득요령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의 민족적특성도 잘 알아야 한다는것을 말입니다.

발음 (发音)



• 그렇다니	[그러타니]
• 논리적으로	[롤리저그로]
• 성립될수	[성닙펼쑤]
• 붙여	[부쳐]
• 임의의	[이미의/이미에]

문형과 문법 (语言点)



런이어 결합할수 있다니?

词尾“-다니”是终结词尾, 表示“不赞成、反对”的意思。

예: ○ 어린애를 혼자 보내다니?

○ 오늘 비가 오다니?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태풍, 불다
태풍이 불다니?
- 마음, 들다, 앓다
- 당신, 양보하다, 앓다

미처 《염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쪽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副词“미처”表示“还没有、没来得及”的意思。

- 례: ○ 미처 인사의 말을 하지 못하였다.
○ 미처 알아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중국사람, 왕용, 알다
왕용이 중국사람이라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 심하다, 위병, 왕근, 앓다, 느끼다
- 찾다, 컴퓨터, 오유, 알다

나는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면 다 합성할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词尾“-려니”是连接词尾，表示“猜测”。

예: ○ 저절로 되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 시험에 통과하려니 기대했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누군가, 오다, 기다리다
누군가 오려니 기다렸습니다.
- 경기, 이기다, 생각하다
- 실험, 성공하다, 기대하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김훤은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조선어를 속성으로 배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 2) 높은것은 나의 리상이며 나의 리상은 대단합니다.
- 3) 머리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 4) 그런데 조선어에서 단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합니까?
- 5) 조선어에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단어들이 련이어 결합할수 있습니다.

6) 그러면 입의의 단어들을 이렇게 붙여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교위 ⇒ 교위간부, 교위인사, 교위관직

- 1) 수표 ⇒
- 2) 석유 ⇒
- 3) 수수 ⇒
- 4) 방학 ⇒
- 5) 민속 ⇒



우리 인민의 설명절풍습(朝鮮人過春節的風俗)(2)

설날에는 모두 명절옷을 차려입고 먼저 돌아간 사람들에게 대한 차례를 지냈으며 이어 웃사람들에게 세배를 하였다. 설명절음식으로는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떡과 지짐류, 당과류,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과일, 술들을 마련하였고 특히 떡국은 설날음식으로서 빠질수 없는것이였다. 설날에는 윷놀이, 널뛰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제기차기 등 여러가지 놀이로 명절을 즐기였다.

3. 결합할수 있는 단어들을 련결해보시오. (選擇恰當的詞語連線。)

- | | |
|-------|------|
| 혜택(을) | 벗다 |
| 요강(을) | 많다 |
| 인구(가) | 입다 |
| 가면(을) | 부리다 |
| 각도(를) | 작성하다 |
| 간사(를) | 재다 |

4.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토 《-다니》 또는 《-려니》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다니”或“-려니”形式造句。)

본보기: 것, 잇다, 말다, 하다 (-다니)

⇒ 잇지 말아야 할것을 잇다니.

1) 그, 나, 생각하다, 솔직하다 (-려니)

⇒

2) 보수, 받다, 후하다, 잃다, 분별 (-다니)

⇒

3) 그, 사오다, 바이올린, 말다, 생각하다 (-려니)

⇒

4) 잘못, 저지르다, 자기, 뛰다, 펄펄 (-다니)

⇒

5) 그, 보여주다, 생각하다, 특기동작, 안되다 (-려니)

⇒

5.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게 되다》나 《-에 대한》, 《미처 -지 못하다》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게 되다”或“-에 대한”、“미처 -지 못하다”形式造句。)

본보기: 영남이, 입학하다, 마침내, 대학 (-게 되다)

⇒ 영남이는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 유전, 강의, 우리, 오늘, 받다 (-에 대한)

⇒

2) 영남이, 결함, 퇴치하다 (미처 -지 못하다)

⇒

3) 나, 말, 영남이, 실망하다, 듣다 (-게 되다)

⇒

4) 중형기계, 소문, 발명, 퍼지다, 널리 (-에 대한)

⇒

5) 저희, 선생님, 올리다, 대답 (미처 -지 못하다)

⇒

6.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본보기: 태평양, 지리학자, 한복판, 판정하다, 방위

⇒ 지리학자들은 태평양의 한복판에서 방위를 판정했습니다.

1) 일기예보, 비, 내리다, 래일, 의하다

⇒

2) 그, 멈추다, 종시, 고동, 심장

⇒

3) 그, 낡다, 교체하다, 보름동안, 기와

⇒

4) 술직하다, 일, 그간, 터놓다, 있다, 영희

⇒

5) 그, 서서히, 꽃, 시작하다, 시들다

⇒

7. 주어진 단어들을 빈자리에 넣어 알맞는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순수, 다소, 와락, 얼핏, 마구, 가깝스로

본보기: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깝스로) 안정시켰습니다.

1) 영남이는 () 자기의 힘으로 숙제를 했습니다.

2) 그의 제의는 ()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의 표정을 보니 ()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만난 아들을 () 부둥켜안았습니다.

5) 어린애는 밖에서 놀겠다고 () 떼었습니다.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본보기: 김휘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려고 조선어강습소 교원인 혜영이를
 찾아갔습니다. ()

- 1) 혜영은 언어습득에는 특별한 요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2) 단어들의 꼬리를 편속 이어가면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면
 단어들을 쉽게 습득할수 있습니다.
- 3) 혜영은 다양한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 문장에 넣고
 표현하는 요령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였습니다.
- 4) 혜영은 김휘에게 언어습득의 한가지 요령을 설명해주었습니다.
- 5) 혜영이 가르쳐준 언어습득요령은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본보기: 김휘는 무엇때문에 혜영을 찾아갔습니까?

⇒ 김휘는 평양문화어강습을 받으려고 혜영을 찾아갔습니다.

- 1) 혜영은 언어를 속성으로 배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
- 2) 혜영은 김휘에게 몇가지 요령을 말해주었습니까?
 ⇒
- 3) 김휘는 혜영이 말해준 언어습득요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 4) 혜영은 어떤 색깔들을 실례들어 언어습득요령을 설명해주었습니까?
 ⇒
- 5) 혜영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송화거리에서 오해를 받은 김희는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조선어를 속성으로 배우리라 결심하였습니다.

...

단어 (词语)

가까스로	好容易	리봉	蝴蝶结
각도	角度	마구	胡乱
간만에	好久	마침내	终于
간부	干部	멈추다	停止
간사	奸诈	명승지	名胜地
강습	培训	무한하다	无限
결함	缺点	문화어	普通话
경제	经济	미처	来不及
고동	心跳	멤돌다	盘旋
고유하다	原有的	발명	发明
고위	高层	방식	方式
공간	空间	방위	方位
교체하다	替换	보수	修补
그래서	所以	복판	正中
기억하다	记得	부둥켜안다	拥抱
기와	瓦	분별	懂事理
과정	过程	사건	事件
관직	官职	사막	沙漠
노랗다	黄	서서히	缓慢
다소	多少	석유	石油
두근거리다	忐忑不安	성공하다	成功
런속	连续	성립	成立
런이어	接连	성질	性质

솔직하다	诚实	펼 펼	暴跳
수수	高粱	폭	宽度
수표	签名	표상	表象
순수	纯粹	표정	表情
습득	掌握	하얗다	白
시들다	凋谢	후하다	丰厚
실망하다	失望	혜택	优待
실무	业务	까맣다	黑
장면	画面	꼬리	尾巴
저절로	不由自主	떼쓰다	赖皮
저희	我们	양보하다	让步
전번	上次	얼핏	一瞬间
종시	始终	여지	余地
주로	主要	염통	心脏
중형	重型	오유	错误
저지르다	造成	요강	大纲
지리학자	地理学者	요령	窍门
질문	提问	우물	水井
제의	提议	유전	遗传
첨단	尖端	인구	人口
체류	逗留	인사(사람)	问候
터놓다	坦白	인터넷	网络
태평양	太平洋	잃다	失去
태풍	台风	임의의	任意
퇴치하다	修正	입학하다	入学
파랗다	蓝	의미	意思
판정하다	判定	의하다	根据
		와락	猛然

성구(成語)

의심할바(가) 없다

毋庸置疑

례: 경기에서 우리 팀이 승리하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교문을 나서다(나오다)

學校畢業

례: 이제는 교문을 나선지도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제7과. 시를 감상하면서 (欣赏诗篇)

중심 문형 (重点句型)

- 한 녀학생이 **선채로** 시를 읊고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 정말 안타깝네.
- 동무야말로 문학의 화신이로구만.
- 조기천선생은 **이외에도** 많은 시들을 남긴 유명한 작가입니다.

본문 (课文)



김희는 송화거리에 있는 어느한 공원에서 두 남녀대학생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녀학생이 선채로 시를 읊고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라고 읊으면서 앉아있는 남학생에게 시의 이 대목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당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을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 비겨 노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이 시의 바로 이 대목에 명사, 동사, 대명사, 부사, 지어 합성어까지 다양하게 배합되어있어 훌륭한 문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녀학생이 시가 기승전결의 원칙에서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라는 대목에서 사건의 승화를 절정

에로 끌어올리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은 시의 이 문장에는 단일문과 확대문, 수사학적물음문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녀학생이 또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에서처럼 시는 소박한 감정으로 시작하여 소박한 감정으로 끝났다고 하자 남학생은 느낌법, 대조법, 과장법, 대구법, 되풀이법, 은유법을 비롯한 문체론적수법들로써 다양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녀학생이 남학생에게 《야, 정말 안타깝네. 동무는 모든것을 언어학적으로만 보는데 습관되었구만요.》라고 하자 남학생은 《동무야말로 문학의 화신이로구만. 모든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니 말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김휘는 두 대학생의 학문상차이로 하여 분석각도가 달라졌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김휘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시는 과연 그 값이 얼마일가!?

발음(发音)

- 열정적으로 [열쩡쩌그로]
- 읊고있었는데 [읍꼬이썸는데]
- 같이 [가치]
- 묻혔다가도 [무첼따가도]
- 비롯한 [비로탄]
- 안타깝네 [안타깝네]

문형과 문법 (语言点)

한 녀학생이 **선채로** 시를 읊고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语法短语 “-ㄴ/은채로” 表示 “保持原有的状态” 的意思。

례: ○ 범을 산채로 잡았다.

○ 두 동무는 손을 잡은채로 계속 이야기하였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옷, 입다, 물, 뛰어들다

옷을 입은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 옷, 입다, 자리, 눕다

○ 모자, 쓰다, 인사, 하다, 안되다

정말 안타깝네.

词尾 “-네” 是对等阶终结词尾, 表示 “陈述”。

례: ○ 지금 회사로 가는 길이네.

○ 방금 회의가 시작됐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모두, 도로, 수리하다
모두가 도로를 수리하네.
- 칼, 나무, 깎다
- 책, 종이, 만들다

동무야말로 문학의 화신이로구만.

词尾“-야말로”表示“强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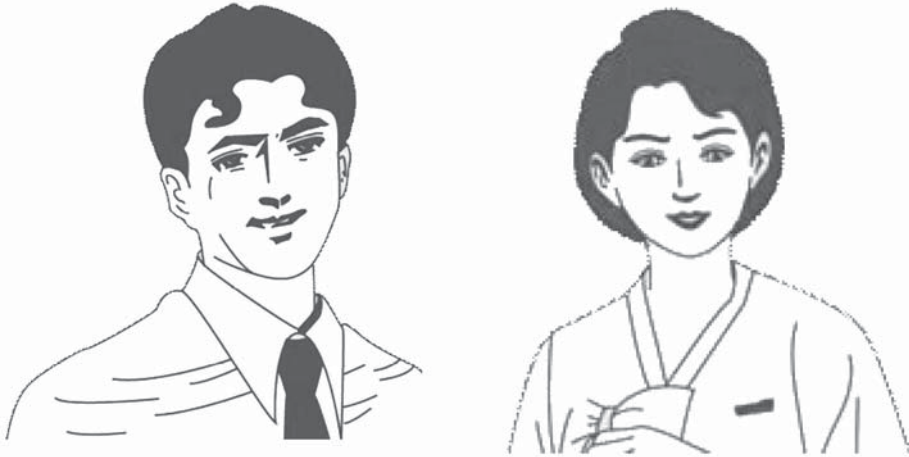
례: ○ 당신이야말로 계산에서는 귀신입니다.

○ 이 가공기술이야말로 첨단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기계, 첨단기술, 이, 제품, 도입되다
이 기계야말로 첨단기술이 도입된 제품입니다.
- 유명하다, 시, 쓰다, 작가
- 그, 누구, 할아버지, 장기, 당하다, 못하다

대화 (会话)



김 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김휘입니다.

녀학생: 예,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인데 이름은 리혜정입니다.

김 휘: 알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실례되는줄 알면서도 아까 당신들이 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 재미
있어 좀 들었습니다. 당신은 문학에 조예가 아주 깊은것 같습니다.
당신은 시문학을 전공합니까?

녀학생: 예, 저는 문학을 전공한답니다.

김 휘: 그렇다면 정말 잘되었습니다. 저도 시를 사랑합니다. 만약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시인이 됐을것입니다.
아까 열정적으로 읊던 그 시는 무슨 시입니까?

녀학생: 그 시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시인 김철선생의 서정시 《어머니》
입니다. 이 시는 우리 인민모두를 어머니처럼 품어안아 키워주는
조선로동당을 노래한 시입니다.

김 휘: 그 시는 듣기에도 무척 좋은 시 같습니다.
조선에는 그밖에도 좋은 시들이 많겠지요?

녀학생: 물론이지요. 당신은 우리 나라의 어떤 시들을 알고있습니까?

김 휘: 나는 조선의 시들은 잘 모르고 노래 《휘파람》을 알고있습니다.
《휘파람》은 정말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가사도 좋고 곡도 좋습니다.

녀학생: 그 노래에는 조선청년들의 열정적이며 창조적인 모습이 비껴있습니다.
《휘파람》은 조기천선생이 쓴 시를 노래로 읊긴것입니다. 조기천
선생은 이외에도 많은 시들을 남긴 유명한 작가입니다.

김 휘: 그렇습니까? 당신은 중국의 어떤 문학작품들을 알고있습니까?

녀학생: 저는 지난 1930년대 중국의 역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 《청춘의 노래》가 좋습니다.

김 휘: 조선사람들은 역시 애국주의주제를 좋아하는구만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발음 (发音)

• 읊던	[읍편]
• 그밖에도	[그바께도]
• 읊긴것입니다	[읊긴거십니다]
• 아이적목소리	[아이쩍목소리]
• 의하다	[의하다]

문형과 문법 (语言点)

조기천선생은 **이외에도** 많은 시들을 남긴 유명한 작가입니다.

语法短语 “-외에” 表示 “除了” 的意思。

례: ○ 가방외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 생각외에 대단히 훌륭하였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체육, 무엇, 좋아하다
체육외에 무엇을 좋아합니까?
- 아버지, 누구, 모르다
- 그, 무엇, 바라다



혁명시인 조기천 (革命诗人——赵基天)

움쓰크고리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선 사범대학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시를 썼다. 조국이 해방되어 귀국한 그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시창작을 진행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주체40(1951)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조직될 때 부위원장의 직책에서 사업하였다. 서사시 《비행기사냥군》을 창작하던중 희생되었다.

연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한 녀학생이 시를 읽고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 2)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 3) 김휘는 두 대학생의 학문상차이로 하여 분석각도가 달라졌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 4) 그렇게 훌륭한 시는 과연 그 가치가 얼마일가?
 - 5) 아까 열정적으로 읽던 그 시는 무슨 시입니까?
 - 6) 조선에는 그밖에도 좋은 시들이 많겠지요?
 - 7) 《휘과람》은 조기천선생이 쓴 시를 노래로 옮긴것입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음향 ⇒ 음향처리, 음향효과, 음향흐름

1) 모형 ⇒

- 2) 마루 ⇒
- 3) 재배 ⇒
- 4) 구급 ⇒
- 5) 폭풍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대접 ⇒ 대접을 받다, 대접을 하다, 대접이 후하다

- 1) 제방 ⇒
- 2) 승객 ⇒
- 3) 진단 ⇒
- 4) 간격 ⇒
- 5) 여유 ⇒

4.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토 《-네》나 《-야말로》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네”或“-야말로”，形式造句。)

본보기: 피우다, 소란, 앓다, 좋다(-네)
⇒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네.

- 1) 의사, 생명, 인간, 기사(-야말로)
⇒
- 2) 원하다, 철수동무, 공부하다, 함께(-네)
⇒
- 3) 고향, 우리, 살다, 좋다, 곳(-야말로)
⇒
- 4) 조국, 내, 좋다, 한없이(-네)
⇒
- 5) 민족, 특징짓다, 언어, 가장, 중요하다, 징표, 하나(-야말로)
⇒

5.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ㄴ/은채로》나 《-외에》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ㄴ/은채로”或“-외에”形式造句。)

본보기: 지금, 녀동생, 아무, 없다, 집 (-외에)

⇒ 지금 집에는 녀동생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1) 다리, 상하다, 그, 가다, 집 (-ㄴ/은채로)

⇒

2) 그, 고사리, 좋아하다, 버섯 (-외에)

⇒

3) 동생, 자다, 입다, 옷, 앓다 (-ㄴ/은채로)

⇒

4) 어머니, 살구, 상점, 추리, 사다 (-외에)

⇒

5) 식사하다, 서다, 시간, 없다, 때, 많다 (-ㄴ/은채로)

⇒

6.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본보기: 먹다, 있다, 로적가리, 우, 낱알, 다람쥐

⇒ 다람쥐는 로적가리우에서 낱알을 먹고있습니다.

1) 그, 들여다보다, 성적, 자기, 서글프다

⇒

2) 손실, 방면, 회사, 여러, 입다

⇒

3) 증거자료, 찬찬하다, 검사, 살펴보다

⇒

4) 기상예보, 내리다, 많다, 눈, 래일, 하다

⇒

5) 건물, 흑심하다, 형체, 파괴되다, 없이

⇒

7.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填上恰当的的词尾。)

본보기: 그의 고향소리() 모두가 깜짝 놀랐다.

⇒ 그의 고향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1) 그는 불의에 생기() 정황에 어쩔바() 몰라하였다.

⇒

2) 대학생들() 언제나 학습에 전심하() 한다.

⇒

3) 생사의 갈림길() 그의 심리() 대단히 복잡하였다.

⇒

4) 우리 팀() 태반() 택시를 타고왔다.

⇒

5) 그들() 교과서() 본문을 읽()있었다.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1) 김희는 려명거리를 지나다가 두명의 녀학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2) 한 녀학생이 시를 읊고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 남학생은 이 문장에는 단일문과 확대문, 물음문이 조화를 이루으로써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 녀학생은 언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5) 김희는 그 시를 사려고 값을 물었습니다.

6) 김희는 분석각도가 다른 두 대학생들의 학문상차이를 포착 하였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1) 김희는 어디에서 두 대학생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 송화거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 시에서는 당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을 누구에 비겨 노래하였습니까?
⇒

3) 시는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여 어떤 감정으로 끝났습니까?
⇒

4) 문체론적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5) 남학생은 무엇을 전공하고있습니까?
⇒

6) 녀학생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훤은 송화거리에 있는 어느한 공원에서 두 대학생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단어 (词语)

김일성 종합대학	金日成综合大学	계산	计算
가공	加工	귀신	鬼
가사	歌词	과연	究竟
간격	间隔	난알	谷粒
갈림길	岔路	눕다	躺
감상하다	欣赏	느낌법	感动法
고사리	蕨菜	단일문	单句
고함	呐喊	도입되다	采用
곡	曲	동사	动词
그대	您	들여다보다	窥视
그러자	然后	대구법	对偶法
기상	气象	대명사	代词

대목	段	승객	乘客
대접	接待	승화	升华
되풀이법	反复法	시	诗
로적가리	谷堆	시선	视线
마루	地板	시인	诗人
만약	如果	심리	心理
명곡	名曲	생사	生死
명사	名词	장기	象棋
모형	模型	전공하다	专业
무척	非常	전심하다	专心
문체론	修辞学	정겹다	深情的
방면	方面	정황	情况
복잡하다	复杂	조선로동당	朝鲜劳动党
부사	副词	조예	造诣
분석	分析	종이	纸
불	火	주제	主题
불의에	出其不意	증거	证据
비롯하다	以及	재배	栽培
살구	杏	제방	堤坝
살뜰하다	体贴	쥐뿔	一点也
상하다	受伤	찬찬하다	仔细
서정	抒情	참견하다	参与
성적	成绩	칼	刀
소란	骚乱	대반	大半
손길	关怀	파괴되다	被破坏
손실	损失	포착하다	抓住
수리하다	修理	하늘가	天边
수법	手法	혁신자	革新者
습관되다	习惯	형체	形体

혹심하다	残酷	영원히	永远
흩어지다	分散	은유법	隐喻法
휘파람	口哨	음향	音响
화신	化身	읽다	朗诵
확대문	扩大句	이외	以外
안타깝다	急死人了	인간	人间
어찌하다	怎么办	애국주의	爱国主义
언어학	语言学	예보	预报
여유	余地	원하다	愿意

성구(成语)

초를 다투다

争分夺秒

례: 100m달리기경기는 그야말로 초를 다투었다.

쥐뿔도 모른다

一无所知, 一窍不通

례: 쥐뿔도 모르면서 참견하려 들지 마시오.



휘파람

작사 조기천
작곡 리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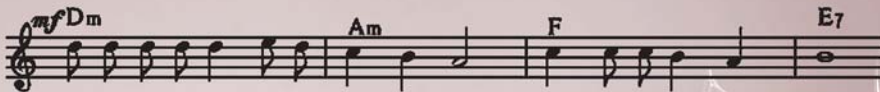
정답게 (♩=143)



1. 어 제 밤 에 도 불 - 었 네 휘 파 람 휘 파 람



벌 써 몇 달 짜 불 - 었 네 휘 파 람 휘 파 람



복 순 이 네 집 앞 을 지 날 땐 이 가 슴 설 레 어



나 도 모 르 게 안 타 까 - 이 휘 파 람 - 불 었 - 네
(후렴)



휘 휘 휘 호 호 호 - 휘 휘 호 호 - 호



휘 휘 휘 호 호 호 - 휘 휘 호 호 - 호

2. 한번 보며는 어쩐지 다시 못볼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싶네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인타오 이 일을 어찌하랴
(후렴)

3.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며는
복순이도 내 마음 알리라 알아주리라
(후렴)

제8과. 천리마타일공장에서 (在千里马磁砖厂)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조선어강습을 마치**고**난 김휘는 조선어를 빨리 익히려고...
- 옷차림을 곱게 꾸몄**다**고 하는게 아니라 멋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 김휘는 영아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
- 래일 평양고려호텔에서 만나기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강습소에서 배운것을 **말했**을뿐입니다.

본문 (课文)



조선어강습을 마치고난 김휘는 조선어를 빨리 익히려고 안내원 영아의 곁을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에 따라 굴지의 건재생산기지인 천리마타일공장을 참관하는 날이 왔습니다. 명실공히 주체가 선 공장,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애국공장,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으로 알려진 단위에 대한 참관인것으로 하여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김휘가 멋지게 옷차림을 하고 나선 영아에게 《오늘 당신은 옷차림을 곱게 꾸몄습니다.》라고 하자 영아는 호호 웃더니 《옷차림을 꾸몄다고 하는게 아니라 멋있게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여 장식타일직장을 돌아볼 때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참, 왜서인지 오늘 저녁에는 너자닭 한마리를 먹고싶구만요.》라고 말하여 크게 웃기기도 하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게 웃던 영아는 《너자닭이 아니라 암닭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 <암>과 <수>를 붙이고 <녀자>와 <남자>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붙입니다.》라고 친절히 알려주면서 그의 말을 수정해주었습니다.

바닥타일직장에서 《저기 얇은 로동자가 무엇을 합니까?》라고 하였을 때에도 영아는 사람에게는 《얇은》이 아니라 《약한》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고쳐주었습니다.

김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휘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서 이쯤한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망신하지 않는것이였기때문입니다.

그후에도 김휘는 영아에게서 조선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참으로 조선에서의 하루하루는 조선어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속에서 익힐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웃던 | [웃편] |
| • 암탉이라고 | [암탈기라고] |
| • 붙이고 | [부치고] |
| • 얇은 | [얄븐] |
| • 약한 | [야칸] |



送气音化(거센소리되기)

• 不送气音位于词尾或后缀的开头时，该不送气音在词干的末尾收音“ㅎ, ㄴㅎ, ㄹㅎ”的后边，读成送气音。

예: 좋다[조타], 많고[만코], 옹지[올치]

• 在一个词里，收音“ㄱ, ㄷ, ㄴ, ㅈ”或“ㄴ, ㄹ, ㄹ”后边有“ㅎ”时，该“ㅎ”分别读成“ㅋ, ㅌ, ㄲ, ㅊ”。

예: 먹히다[머키다], 말형[마형], 잡히다[자피다], 맺히다 [매치다], 얹히다[언치다], 밝히다[발키다], 밟히다[발피다]

문형과 문법 (语言点)

조선어강습을 마치**고나** 김휘는 조선어를 빨리 익히려고...
语法短语 “-고나다” 表示 “动作的完成”。

- 례: ○ 설명을 듣고나서 결심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보고나서 토론합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밥, 먹다, 22시, 되다
 밥을 먹고나니 22시가 되었다.
- 도시, 돌아보다, 완전히, 변하다, 것, 느끼다
- 숙제하다, 밥, 먹다, 때, 지나다

옷차림을 곱게 꾸**었다고** 하는게 아니라 멋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语法短语 “-다고 하다” 表示 “引用”。

- 례: ○ 그는 부모님들과 같이 산다고 하였다.
○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차다고 합니다.

◆ 《-다고 하다》를 리용하여 문장을 변화시켜보시오.

(以“-다고 하다”形式改写句子。)

- 왕용: 《축구를 좋아합니다.》
왕용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 영수: 《조선어를 학습합니다.》
- 옥희: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희는 영아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

语法短语“-와/과 같이”表示“和……一起”的意思。

예: ○ 그는 부모님들과 같이 삽니다.

○ 나는 누나와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김희, 친구, 생활하다
김희는 친구와 같이 생활합니다.
- 영수, 동무, 말하다
- 남수, 철수, 일하다



천리마동상 (千里马铜像)

천리마동상은 주체50(1961)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49돐을 맞으며 건립되었다.

원래 《천리마》라는 말은 하루에 천리씩 달리는 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오래전부터 빨리 달린다는 상징적술어로서 쓰여왔다.

네굽을 안고 구름우로 날아오르는것만 같은 천리마우에는 당중앙위원회 붉은 편지를 높이 추켜든 남성로동자와 벼단을 안은 녀성농민의 힘찬 모습이 형상되어있다.

대화 (会话)



녀자: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하나 좀 물어봅시다. 영아동무를 보지 못했습니까?

김휘: 예, 보지 못했습니다. 손전화로 찾아보십시오.

녀자: 아까부터 찾았는데 받지 않고있습니다.

김휘: 그렇습니까? 무슨 일인지 제가 대신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자: 래일 다시 오겠으니 꼭 만나기 바란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김희: 알만합니다. 제가 꼭 전해주겠습니다.
 여자: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중국사람입니까?
 김희: 예, 저는 중국사람입니다.
 여자: 그런데 어떻게 조선말을 그렇게 잘할수 있습니까?
 김희: 강습소에서 배운것을 말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영아동무에게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자: 아, 그렇습니까? 당신의 조선말수준이 참 훌륭합니다.
 김희: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희: 아, 영아동무. 어디에 갔댔습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영아: 전화기를 놓고 자리를 좀 떴댔습니다.
 김희: 방금 어떤 여자가 왔다갔습니다.
 영아: 누가 왔댔습니까?
 김희: 잘 아는 사이인것같습니다. 래일 다시 오겠으니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영아: 그렇습니까? 전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발음 (发音)

• 손전화로	[손저바로]
• 떴댔습니다	[떨뻔씀니다]
• 정확하게	[정화카게]

문형과 문법 (语言点)

강습소에서 배운것을 말했**을뿐입니다**.
 语法短语 “-ㄴ/을뿐이다”表示“只不过……而已”的意思。
 례: ○ 취미로 좀 할뿐입니다.
 ○ 제가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공부, 조금, 잘하다
공부를 조금 잘했을뿐입니다.
- 그들, 의견, 주다

- 당신, 성의, 표시하다

래일 평양고려호텔에서 만나기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语法短语“-기 바라다”表示“期待、希望”的意思。

- 예: ○ 나는 당신이 건강하기 바랍니다.
○ 위병이 빨리 나아지기 바랍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대학생, 유명하다, 학자, 되다
대학생은 유명한 학자가 되기 바란다.
- 관광객, 보다, 경치, 훌륭하다

- 김희, 오늘, 만나다, 영아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허리가 끊어지게 웃던 영아는 《여자닭이 아니라 암닭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2) 오늘 약한 노동자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3) 《짐승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 <암>과 <수>를 붙이고 <여자>와 <남자>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붙입니다.》
- 4) 김훤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 5) 손전화로 찾아보십시오.
- 6) 아까부터 찾았는데 받지 않고있습니다.
- 7) 전화기를 놓고 자리를 좀 떴습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미역 ⇒ 미역국, 미역발, 미역술

- 1) 정령 ⇒
- 2) 차단 ⇒
- 3) 우호 ⇒
- 4) 음성 ⇒
- 5) 표식 ⇒

3. 결합할수 있는 단어들을 줄을 그어 련결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连线。)

- | | | |
|-----|---|------|
| 지방 | | 보내다 |
| 우편 | | 배양하다 |
| 고층 | — | 치다 |
| 균 | | 많다 |
| 기원 | | 느끼다 |
| 몸부림 | | 겪다 |
| 자책 | | 도모하다 |
| 편의 | | 열다 |

4.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법적구 《-고나다》나 《-르뿐이다》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고나다”或“-르뿐이다”形式造句。)

본보기: 식사, 유보도, 거닐다, 산보하다, 끝내다 (-고나다)

⇒ 식사를 끝내고 나서 유보도를 거닐며 산보하였다.

1) 차, 오늘, 마시다, 것 (-르뿐이다)

⇒

2) 사장, 문건, 결심하다, 보다 (-고나다)

⇒

3) 아침, 달리기, 30분동안, 하다 (-르뿐이다)

⇒

4) 두시간, 휴식하다, 버스, 오르다 (-고나다)

⇒

5) 약간, 다치다, 놓았다 (-르뿐이다)

⇒

5.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기 바라다》나 《-와(과) 같이》, 《-다고 하다》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기 바라다”或“-와(과) 같이”, “-다고 하다”形式造句。)

본보기: 올림픽, 이번, 우승하다, 꼭 (-기 바라다)

⇒ 이번 올림픽에서 꼭 우승하기 바란다.

1) 친척, 그는, 도와주다, 우리 (-과 같이)

⇒

2) 어머니, 아깝다, 이불 (-다고 하다)

⇒

3) 너, 빌다, 잘못, 그 (-기 바라다)

⇒

4) 그, 집, 아담하다, 처자, 살다 (－와 같이)

⇒

5) 하다, 입원, 없다, 가망 (－다고 하다)

⇒

6.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감히, 한꺼번에, 홀로, 열심히, 대략, 듬뿍

본보기: 문이 열리더니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1) 지원물자를 () 실은 차가 도착하였습니다.

2) 철남이는 밤길을 () 걸어왔습니다.

3) 시험기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 공부합니다.

4) 지난 시기에는 ()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5) 어머니는 형님의 표정을 보고 사연을 () 짐작하였습니다.

7.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句。)

본보기: 전지, 날, 저물다, 그, 켜들다

⇒ 날이 저물자 그는 전지를 켜들었습니다.

1) 동생, 서두르다, 가다, 구경, 준비하다

⇒

2) 안내원, 친절하다, 장미, 주다, 한송이

⇒

3) 그, 저으기, 밀천, 설마, 없어지다, 의아해하다

⇒

4) 봉우리, 서늘하다, 올라가다, 바람, 불어오다

⇒

5) 음악, 있다, 소질, 수업, 참가하다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표시하십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본보기: 조선어강습기간 김휘는 안내원 영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 1) 김휘는 멋지게 옷차림을 하고 나선 영아에게 옷차림을 곱게 꾸렸다고 했습니다.
- 2) 언제인가 김휘는 영아에게 녀자닭 한마리를 먹고싶다고 했습니다.
- 3) 김휘는 농장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후 영아에게 얇은 로동자와 인사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 4) 영아는 국수는 춡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시원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 5) 김휘는 외국어를 배우는데서 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 1) 김휘는 왜 안내원 영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까?
 ⇒ 조선어를 빨리 익히려고 영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 2) 영아는 김휘에게 옷차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해주었습니까?
 ⇒
- 3) 김휘는 공장을 참관하고 누구와 인사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까?
 ⇒
- 4) 영아는 김휘에게 사람에게는 《얇은》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
- 5) 김휘는 국수를 먹고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
- 6) 김휘는 외국어를 배울 때의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조선어강습을 마치고난 김휘는 조선어를 익히려고 안내원 영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말을 시켰습니다.

...

단어 (词语)

가망	希望	맏형	大哥
감히	敢	망신하다	丢脸
건재	建材	먹히다	被吃掉
겪다	经历	명실공히	名副其实
고충	苦衷	몸부림	挣扎
굴지	屈指	문	门
균	菌	물자	物资
그리	不太	미역	海藻
그림자	身影	밑천	本钱
기원	起源	변하다	变
계기	契机	보통	普通
듬뿍	满满的	빌다	乞求
대략	大概	전지	电筒
대신	代替	배양하다	培养
락제하다	不及格	사연	缘故
로동자	工人	산보하다	散步
마리	只	설마	难道
마치다	结束	소질	才能

수(암-)	雄(母)	천리마	千里马
수정하다	修改	친척	亲戚
자부심	自豪感	최대	最大
자책	自责	최상	最高
장미	玫瑰	타일	磁砖
장식	装饰	편의	便利
저으기	颇有	평가	评价
정령	政令	표식	标志
좀처럼	怎么也	한꺼번에	一下子
짐작하다	估计	홀로	单独
제격	马上	꾸미다	编
차다(冷)	冷	쓸모	用途
차단	断绝		

성구 (成语)

하나부터 (에서) 열까지

① 从头到尾, 彻头彻尾

② 子午卯酉

례: 이제는 다 큰 아이인데 어떻게 부모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래라저래라 하겠느냐?

신발을 잘못 신기다

没能从一开始正确引导或管制某人做某事。

례: 내가 용팔이녀석 신발을 잘못 신기는가 보네.



제9과. 휴게실에서 (在休息室)

중심 문형 (重点句型)

- 남수의 이야기를 듣자니 김희는 생각되는것이 많았습니다.
- 겨울의 설경은 언제나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곤 **한답니다.**
- 마식령스키장에서**뿐 아니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의 겨울풍경은 그야말로 불만합니다.
- 조선의 사계절은 어느 계절에 **관계없이** 다 좋은 계절이군요.

본문 (课文)

남수는 어느날 휴게실에서 조선의 사계절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하면서 그것을 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봄!

나는 봄을 사랑합니다. 봄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산과 들에는 온갖 꽃이 피어나며 새싹들이 파릇파릇 돌아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어서 인생의 활력도 돋구어줍니다.



여름!

나는 여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수영 선수이기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땀으로 젖은 온몸을 시원한 바다에 그대로 잠그고 파도를 헤치며 수영을 할 때의 그 기쁨을 아마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입니다.

가을!

나는 가을을 사랑합니다. 드넓은 벌판에는 오곡백과 무르익고 산마다 열매가 주렁졌으며 바다에는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려퍼집니다. 이런 풍요한 경치를 가을을 떠나서 어찌 말할수 있겠습니까.



겨울!

나는 겨울을 사랑합니다. 귀뿌리를 도려내는 맵쌀 바람과 함께 세찬 눈보라가 일 때 마식령스키장의 높은 마루에서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오는것은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듯한 느낌입니다.》

남수의 이야기를 듣자니 김훤은 생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조선의 사계절이 이처럼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감정도 참 풍부해지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발음(发音)

- 오곡백과 [오곡빼과]
- 만선의 [만서네]
- 마식령스키장의 [마싱녕스키장의]
- 쏜살같이 [쏜살가치]
- 배고동소리 [배꼬동쏘리]

문형과 문법 (语言点)

남수의 이야기를 듣자니 김희는 생각되는것이 많았습니다.

词尾“-자니”是连接词尾，表示“原因、猜测”。

예: ○ 가만히 앉아있자니 지루합니다.

○ 사람들에게서 듣자니 일이 잘되었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솔직히, 이야기하다, 좀, 부끄럽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니 좀 부끄럽습니다.

○ 친구, 작별하다, 가슴, 아프다

○ 외국어, 공부하다, 정말, 힘들다

대화(会话)

김희: 평양의 봄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한 평양은 마치 한쪽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남수: 그렇습니다. 저기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가에 움터나는 벚들개지들과 새봄을 알리는 진달래꽃이나 살구꽃들을 바라볼 때의 감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김희: 아마 조선의 사계절중에 봄이 제일 좋은 계절인것같습니다.

남수: 봄도 좋지만 여름도 좋습니다. 문수물놀이장과 마전해수욕장, 시중호해수욕장 등에서 푸른 물결 헤가르며 시원하게 수영을 하는 여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희선생은 수영을 할줄 압니까?

김희: 잘하지 못합니다. 이번 조선체류기간에 수영을 꼭 배울 결심입니다. 남수선생, 조선의 가을풍경은 어떻습니까?

남수: 울긋불긋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풍경 또한 장관입니다. 협동별마다에 무연하게 펼쳐진 황금의 벼이삭소리, 땅이 꺼지게 주렁진 사과바다, 만선의 배고동 울려가는 황금해의 노래소리... 가을풍경은 정말 한편의 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희: 그렇습니까? 저도 가을을 좋아하지만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겨울의 설경은 언제나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군 한답니다. 물론 조선의 겨울도 같겠지요?



남수: 물론이지요. 겨울의 하얀 설경속에 마식령스키장에서 나는듯이 스키를 타고내려오는 그 쾌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김휘: 야, 정말이지 마식령스키장에도 한번 가보고싶군요.

남수: 마식령스키장에서뿐 아니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의 겨울풍경은 그야말로 불만합니다.

김휘: 선생의 말을 들으니 조선의 사계절은 어느 계절에 관계없이 다 좋은 계절이군요.

남수: 예, 그렇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울긋불긋 | [울근빨근] |
| • 대동강가에 | [대동강까에] |
| • 물결 | [물곶] |
| • 나는듯이 | [나는뜨시] |
| • 관계없이 | [관계업씨] |

문형과 문법 (语言点)

겨울의 설경은 언제나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곤
한답니다.

语法短语 “-곤 하다” 表示 “反复” 的意思。

례: ○ 바람이 불어와 길가의 눈을 날려보내곤 한다.

○ 동무들이 일요일마다 놀러 오곤 합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일요일, 모란봉, 오르다

일요일에 모란봉에 오르곤 합니다.

○ 저녁, 극장, 가다

○ 매일, 아침, 달리기, 하다

마식령스키장에서뿐 아니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의
겨울풍경은 그야말로 불만합니다.

语法短语 “-에서뿐 아니라” 表示 “不仅……而且……”
的意思。

례: ○ 그는 축구에서뿐 아니라 룡구에서도 명수이다.

○ 인물에서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제일이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남수, 학습, 체육, 으뜸

남수는 학습에서뿐 아니라 체육에서도 으뜸이다.

○ 김희, 학교, 집, 열심히, 공부하다

○ 남수, 경기장, 훈련장, 성실하다

조선의 사계절은 어느 계절에 관계없이 다 좋은 계절이군요.

语法短语“-에 관계없이”表示“无论、不管”的意思。

예: ○ 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 스키장은 계절에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 다음의 단어들로 《-에 관계없이》의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에 관계없이”形式造句。)

○ 영아, 왕용, 민족, 벗, 지내다

영아와 왕용은 민족에 관계없이 벗으로 지냅니다.

○ 조건, 과제, 수행하다

○ 날씨, 등산, 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 (阳德温泉文化休养地)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종합적인 온천 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체육문화기지이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일떠섬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마련되었으며 인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가 개척되게 되었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봄에는 ...온갖 꽃이 피어나며 새싹들이 파릇파릇 돌아납니다.
- 2)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어서 인생의 활력도 돋구어줍니다.
- 3) 드넓은 벌판에는 오곡백과 무르익고 산마다 열매가 주렁졌으며 바다에는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려 퍼집니다.
- 4) 이번 조선체류기간에 수영을 꼭 배울 결심입니다.
- 5) 겨울의 하얀 설경속에 마식령스키장에서 나는듯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 쾌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봉건 ⇒ 봉건국가, 봉건관념, 봉건도덕

- 1) 전류 ⇒
- 2) 력학 ⇒
- 3) 아동 ⇒
- 4) 수여 ⇒
- 5) 개화 ⇒

3. 다음단어들이 들어간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공로 ⇒ 공로를 세우다, 공로가 크다, 공로가 있다

- 1) 선반 ⇒
- 2) 덜미 ⇒
- 3) 등지 ⇒
- 4) 무게 ⇒
- 5) 공백 ⇒

4.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选词填空。)

그득, 설사, 자못, 종종, 워낙, 성큼

본보기: 혼자서 숙제를 하자니 (종종) 힘에 부치는 때가 없지 않았다.

- 1) 어머니는 사과를 ()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 2) 오래간만에 집에 오니 () 들어서게 되지 않았다.
- 3) 눈이 () 많이 내리니까 앞을 가려볼수 없었다.
- 4) () 난관이 막아나서더라도 이 길에서 물러설수는 없다.
- 5) 집안에는 () 흥겨운 분위기가 돌았다.

5.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본보기: 켈레, 축구화, 아버지, 형님, 위하다, 사오다, 하나

⇒ 아버지는 형님을 위하여 축구화를 한켈레 사왔습니다.

- 1) 영남, 설계하다, 컴퓨터, 직승기, 부분품
⇒
- 2) 어머니, 다심하다, 덕택, 성장하다, 오늘
⇒
- 3) 동경하다, 나라, 우리, 사람, 찾아오다, 늘어나다
⇒
- 4) 나, 갑갑하다, 마시다, 오미자단물
⇒
- 5) 영남, 새다, 날, 때, 하다, 독서
⇒

6. 다음의 단어들로 토 《-자니》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자니”形式造句。)

본보기: 걸레, 앓다, 보이다, 청소, 하다
⇒ 청소를 하자니 걸레가 보이지 않았다.

- 1) 모자라다, 시간, 처리하다, 일감, 미진되다
⇒
- 2) 새롭다, 제기되다, 과제, 쇠다, 설
⇒
- 3) 유원지, 서기, 반대하다, 가다
⇒
- 4) 각색하다, 영화, 사람, 많다, 반대하다
⇒
- 5) 처리하다, 걸리다, 마음, 대강
⇒

7.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군 하다》나 《-에 관계없이》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군 하다”或“-에 관계없이”形式造句。)

본보기: 불다, 통행, 금하다, 태풍, 세차다 (-군 하다)
⇒ 태풍이 세차게 불면 통행을 금하군 한다.

1) 간청, 형님, 나, 수영하다, 혼자, 가다 (－에 관계없이)
⇒

2) 따스하다, 오다, 봄, 하다, 나무심기 (－군 하다)
⇒

3) 영남이, 사건, 그, 말하다, 객관적 (－에 관계없이)
⇒

4) 형님, 부리다, 독단, 언제나 (－군 하다)
⇒

5) 그, 앓다, 제멋대로, 배열순서 (－에 관계없이)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십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본보기: 봄이 되면 산과 들에 온갖 꽃이 피어납니다. ()

- 1) 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돌아옵니다.
- 2) 가을이 오면 드넓은 벌판에는 오희백과가 무르익습니다.
- 3) 겨울에는 귀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맵짠 바람이 불니다.
- 4) 겨울이 오면 산에는 열매가 주렁집니다.
- 5) 남수는 조선의 사계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본보기: 김훤은 어디에서 조선의 사계절에 대한 글을 썼습니까?

⇒ 김훤은 휴계실에서 조선의 사계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1) 봄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

2) 남수는 왜 여름을 사랑합니까?

⇒

3) 가을이 오면 드넓은 벌판에는 무엇이 무르익습니까?

⇒

4) 우리 나라 계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5) 남수는 무슨 체육종목을 좋아합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남수는 어느날 휴게실에서 조선의 사계절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하면서 그것을 김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

단어 (词语)

가만히	悄悄地	내려오다	下来
각색하다	改编	다심하다	好操心
간청	请求	단풍	红叶
갑갑하다	闷	담다	装
걸레	抹布	덕택	恩情
공백	空白	덜미	脖颈
교제	交往	도려내다	剝
그렇다	是	독단	独断
그득	满满地	독서	读书
금하다	禁止	돋다	长出
길가	路边	동경하다	憧憬
개화	开化	둥지	窝
객관적	客观的	드넓다	宽广
관념	观念	들	田野
권고	劝告	순서	顺序
난관	难关	시중호	侍中湖

새다	漏	명수	名手
쇠다	过	모란봉	牡丹峰
자못	极其	모자라다	缺
작별하다	告别	물결	波浪
잡그다	泡	물러서다	退出
장관	壮观	미진되다	未完
적외선	红外线	맵싸다	凛冽
전류	电流	버들개지	柳絮
정화	净化	벌판	田野
젖다	湿	벼이삭	稻穗
종종	经常	봉건	封建
주렁지다	累累	부치다	寄
지니다	带	부끄럽다	害羞
지내다	度过	선반	车床
지루하다	无聊	설	元旦
직승기	直升飞机	설경	雪景
진달래	金达菜	설계하다	设计
축구화	球鞋	성실하다	诚实
쾌감	快感	성큼	阔步走
파릇파릇	绿茸茸	소생하다	苏生
편	篇	솔	松
대강	草草	수행하다	执行
력학	力学	수여	颁发
례절법	礼法	풍경	风景
마전해수욕장	麻田海滨浴场	풍요하다	富裕
만물	万物	협동벌	合作农场的田野
만선	满船	흥겹다	喜气洋洋
맞이하다	迎接	헤가르다	拨开

황금해	黄金海	오미자	五味子
땀	汗	온갖	所有
싹	芽儿	운영	运营
쏟살같이	飞箭般地	울긋불긋	花花绿绿
쪄이다	晒	움트다	发芽
아동	儿童	유원지	游园地
야	呀	으뜸	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阳德温泉文化修养地	워낙	本来
열매	果实		

성구(成语)

더위를 먹다

中暑

례: 머리에 적외선을 지나치게 쪼이면 더위를 먹을수 있다.

솔이 푸른것은 겨울에 가봐야 안다

路遥知马力, 日久见人心。

례: 영아는 조선어에서의 례절법은 자신있다는 김휘에게 솔이 푸른것은 겨울에 가봐야 안다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볼것을 권고하였다.



제 10과. 모란봉에서 (在牡丹峰)

중심 문형 (重点句型)

- 보면 볼수록 황홀한 모란봉의 풍치이다.
- 유유히 감도는 대동강의 물결우에 장관을 이루는 평양의 야경을 보느라면 참으로 생각이 깊어진다.
-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려면 여기 모란봉으로 꼭 와보시라.
- 당신에게는 노란색이 좋지 않은 색이라지만 나는 노란 개나리도 좋습니다.

본문 (课文)



4월 20일 수요일 날씨 개임

나는 오늘 참관일정에 따라 평양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모란봉은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일만경치를 이루었습니다.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이 경치를 모두 담을수는 없을가?

종이우에 그리는것도 좋고 사진기에 담아보는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번 조선체류기간에 배운 조선어로 모란봉의 경치를 한번 담아보렵니다.

모란봉은 예로부터 평양의 이름난 명승지라고 합니다.

최승대를 중심으로 연출연출 잇달려 봉긋봉긋 머리든 못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도 울긋불긋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는 모란봉.

절승경개로 이름난 금수산을 모란봉이라고 부르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봄마다 송이송이 피어난 진달래와 떨기떨기 개나리는 몽계몽계 솟아난 구름을 이고 산들산들 봄바람에 너홀너홀 춤을 추며 나를 반겨줍니다.

봄풀은 비죽비죽 움터나고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데 나무들은 우죽우

죽 키돋음하며 일어서고 그사이로 해빛이 반짝반짝 비쳐듭니다.

출렁출렁 대동강의 푸른 물은 굽이굽이 청류벽을 감돌아흐르고 피꼬리는 피꿀피꿀, 종다리는 지종지종, 온갖 새가 노래하는 모란봉.

쿵작쿵작 울리는 장단소리에 덩실덩실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애련정의 남녀로소는 모란봉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좌악- 좌악- 비단필 드리운듯 경상골의 모란폭포와 철썩철썩 청류벽의 청류폭포는 모란봉의 푸른 숲과 어울려 자연경관을 더 한껏 돋구어줍니다.

보면 볼수록 황홀한 모란봉의 풍치입니다.

모란봉의 밤풍경은 또 얼마나 희한한가.

번쩍번쩍 별무리 흐르는 개선청년공원에서 왁작박작 떠드는 행복넘친 모습들에 등실등실 두등실 부벽루의 달맞이풍경은 서로서로 조화를 이룬다.

유유히 감도는 대동강의 물결우에 장관을 이루는 평양의 야경을 보느라면 참으로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려오는 나라.

그속에서 가지가지 해빛을 향해 피어난 웃음꽃들...

조선의 모습이 이 모란봉에 다 비껴있거니.

나는 조선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습니다.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려면 여기 모란봉으로 꼭 와보시라.

발음 (发音)



- | | |
|----------|-------------|
| • 갖가지 | [갈까지] |
| • 못봉우리들의 | [물뿔우리드림] |
| • 봄바람에 | [봄빠라메] |
| • 부벽루의 | [부병누의] |
| • 청류벽을 | [청류벼글/청누벼글] |
| • 물방울에 | [물뽕우레] |

문형과 문법 (语言点)

보면 볼수록 황홀한 모란봉의 풍치이다.

语法短语 “-면 -르수록” 表示 “越……越……” 的意思。

례: ○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납니다.

○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듣다, 더, 듣고싶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습니다.

○ 지내다, 더, 정들다

○ 하다, 더, 재미나다

유유히 감도는 대동강의 물결우에 장관을 이루는 평양의 야경을 보**느라면** 참으로 생각이 깊어진다.

词尾 “-느라면” 是连接词尾, 表示 “假设”。

례: ○ 계속 노력하**느라면** 성공할 날이 있겠지.

○ 연구하**느라면** 방도가 생길것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모란봉, 경치, 참관하다, 어떻다, 감탄하다, 모두, 되다
모란봉의 경치가 어떻습니까?

모란봉을 참관하느라면 모두가 감탄하게 될것입니다.

○ 이, 무슨, 책가방, 생각, 하다, 보다, 생각, 많다

○ 전망, 있다, 첨단기술연구, 계속하다, 결실, 보다

조선에 대하여 **알려면** 여기 모란봉으로 꼭 와보시라.

词尾“-려면”表示“对意图的假设”。

예: ○ 걸어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그를 만나려면 도서관으로 가십시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외국어, 배우다, 많이, 듣다

외국어를 배우려면 많이 들어야 합니다.

○ 비행장, 가다, 택시, 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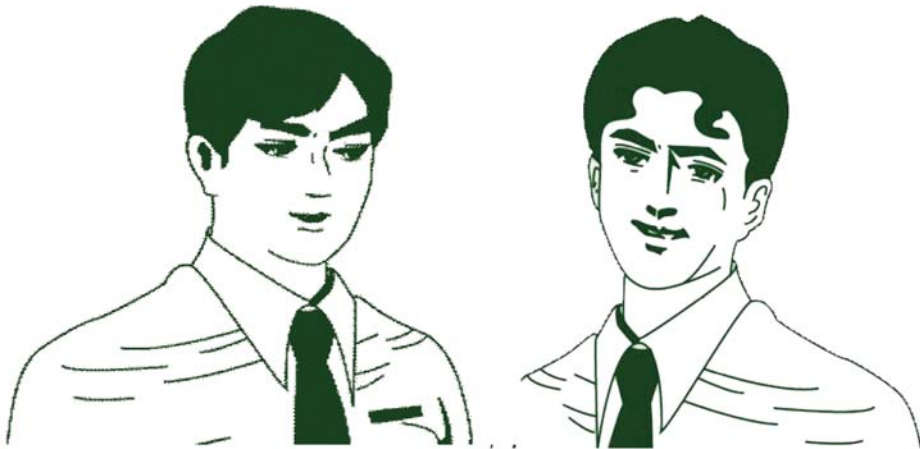
○ 김선생님, 만나다, 연구소, 가다

부벽루 (浮碧楼)

부벽루는 대동강을 면하고있는 모란봉 청류벽에 있는 루정이다.

고구려시기인 393년 모란봉에 있는 영명사의 부속건물로 지은 루정으로서 영명루라고 부르다가 12세기초부터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우에 등실 떠있는듯한 루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달밤의 경치가 매우 이채롭기때문에 부벽루의 달맞이는 평양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대화 (会话)



김희: 화창한 봄날이여서 그런지 꽃들이 정말 많구만요. 이 나무에 핀 흰 꽃은 무슨 꽃입니까?

남수: 그 꽃은 우리 인민의 억세고도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상징하고있는 목란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 꽃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입니다.

김희: 나도 이 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전에 장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빨간 장미꽃을. 그것은 장미가 열정의 상징으로서 고운데도 있지만 가시가 있기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이지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수: 저기에 흰 개나리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희: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란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노란꽃은 주기 싫어합니다.

남수: 나는 노란 개나리도 좋습니다. 노란색이 당신에게는 좋지 않은 색이라지만 그것도 다 이 모란봉의 경치를 돋구는데 이바지하는 꽃이기때문입니다.

김희: 참, 철학이 있습니다. 아, 이 나무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가 아닙니까? 모란봉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군요.

남수: 예, 우리 인민들은 나무중에서도 이 소나무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것은 소나무가 추운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있기때문입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기상이 이 소나무에 다 비껴있습니다.

김희: 소나무의 의미가 참으로 깊구만요. 소나무에 대한 새로운 강의를 받았습시다. 나도 소나무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에도 푸른 잎을 그대로 가지고 끄떡없이 한모습인 강한 의지의 상징-소나무!

남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성이 있구만요. 이번 합작이 아주 잘될것같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목란꽃입니다 | [몽난꼬칩니다] |
| • 겉모양도 | [건모양도] |
| • 좋아하지 | [조아하지] |
| • 붓나무를 | [분나무를] |

문형과 문법 (语言点)

당신에게는 노란색이 좋지 않은 색이**라지만** 나는 노란
개나리도 좋습니다.

词尾“-라지만”是连接词尾，表示“让步”。

예: ○ 봄이**라지만** 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 큰 문제가 **아니라지만** 심상치 않았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축구선수, 룽구, 잘하다
축구선수**라지만** 룽구도 잘합니다.
- 일요일, 사람들, 적다
- 초면, 인차, 친숙해지다

연습 (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나는 오늘 참관일정에 따라 평양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모란봉에 올랐다.
- 2) 봉긋봉긋 머리든 못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도 울긋불긋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블케 한다는 모란봉.
- 3) 모란봉의 밤풍경은 또 얼마나 희한한가.
- 4) 두동실 부벽루의 달맞이풍경은 서로서로 조화를 이룬다.
- 5)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입니다.

- 6)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7) 저는 노란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 8) 그것은 소나무가 추운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기때문입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통속 ⇒ 통속음악, 통속가요, 통속문학

- 1) 의례 ⇒
- 2) 배합 ⇒
- 3) 수평 ⇒
- 4) 종소 ⇒
- 5) 토양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김치 ⇒ 김치를 담그다, 김치가 시다, 김치를 먹다

- 1) 비중 ⇒
- 2) 장갑 ⇒
- 3) 칭찬 ⇒
- 4) 양보 ⇒
- 5) 의혹 ⇒

4.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选词填空。)

온통, 오죽, 대개, 벌떡, 썩, 과시

본보기: 금강산이 좋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과시) 천하명승입니다.

- 1) 풀짜기는 () 과일나무로 덮여있었습니다.
- 2) () 보고싶었으면 찾아왔겠습니까?
- 3) 영남이는 숙제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 일어났습니다.

- 4) 그는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적마다 서슴없이 () 나섰습니다.
 5) 우리 학급동무들은 () 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5. 다음의 단어를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본보기: 그, 치다, 사기, 북, 돌구다

⇒ 그는 북을 치면서 사기를 돌구었습니다.

- 1) 별방, 사람, 많다, 오다, 방목하다

⇒

- 2) 영화, 민요, 연회석상, 부르다

⇒

- 3) 그, 과제, 자진하다, 수행하다

⇒

- 4) 제비, 날아가다, 좀처럼, 앓다

⇒

- 5) 그, 통과하다, 다행히, 출구, 쉽다

⇒

6. 다음의 단어들로 토 《-느라면》, 《-라지만》이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느라면”或“-라지만”形式造句。)

본보기: 체육선수, 훌륭하다, 축구, 잘하다, 못하다 (-라지만)

⇒ 훌륭한 체육선수라지만 축구는 잘하지 못합니다.

- 1) 알다, 요령, 노력하다, 열심히, 되다 (-느라면)

⇒

- 2) 인차, 나이, 대학, 아직, 없다, 철, 가다 (-라지만)

⇒

- 3) 배워주다, 차근차근, 이해하다, 있다, 때 (-느라면)

⇒

4) 배우다, 이미, 속담, 영수, 없다, 이해하다 (-라지만)

⇒

5) 모란봉, 오르다, 가다, 평양, 경치, 한눈, 안겨오다 (-느라면)

⇒

7.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면 -르수록》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면 -르수록”形式造句。)

본보기: 룽두지짐, 더, 먹다, 싶다

⇒ 룽두지짐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싶습니다.

1) 말, 배우다, 늘다

⇒

2) 비, 오다, 물, 불다

⇒

3) 어렵다, 병, 목다, 고치다

⇒

4) 달다, 저울, 차이나다, 점점

⇒

5) 번역, 외국어수준, 하다, 높아지다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1) 김희는 참관일정에 따라 아름다운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

2) 김희는 조선어강습기간에 배운 조선어로 모란봉의 경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3) 금수산을 모란봉이라고 부르는것은 여기에 모란꽃이 많이
피기때문입니다.

- 4) 모란봉에는 청류벽과 애련정이 있습니다.
- 5) 조선에 대하여 알려면 모란봉에 꼭 와보아야 합니다.
- 6) 김훤은 모란봉의 경치를 사진에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1) 김훤은 참관일정에 따라 평양의 어느 봉우리에 올랐습니까?

⇒ 김훤은 참관일정에 따라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2) 금수산은 왜 모란봉이라고 불려왔습니까?

⇒

3) 모란봉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있었습니까?

⇒

4) 애련정의 남녀로소는 어떤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춥니까?

⇒

5) 개선청년공원은 평양의 어디에 있습니까?

⇒

6) 조선에 대하여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훤은 참관일정에 따라 평양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

단어 (词语)

가지가지	各种各样	수평	水平
가요	歌曲	순결하다	纯洁
감돌다	围绕	실지	实际
감탄하다	感叹	좌악-	飒飒
강하다	强	자진하다	自愿
겉모양	外形	자연경관	自然景观
결실	结果	장단	节奏
경상골	庆上谷	저울	天平
공통성	共同性	전망	前景
구름	云	절승경개	无比绝妙的景致
국화	国花	점점	渐渐
굽이굽이	曲曲弯弯	정들다	产生感情
그러나	可是	좀처럼	怎么也
개나리	迎春花	중소	中小
개선청년공원	凯旋青年公园	천하명승	天下名胜
굉장히	非常	철썩철썩	啪啪
과시	果然	청류벽	清流壁
과업	任务	청류폭포	清流瀑布
날다	飞	초면	初次见面
남녀로소	男女老少	추다	跳
너홀너홀	摇摆	추위	寒冷
넘치다	充满	출렁출렁	哗啦哗啦
늘다	长进	친숙하다	亲密
능숙하다	熟练	최승대	最胜台
다행히	幸亏	쿵짝쿵짝	冬冬
달맞이	赏月	키돋움하다	踮脚
담그다	泡	토양	土壤
덩실덩실	手舞足蹈	통속	通俗
덮이다	覆盖	한껏	尽力
감돌아흐르다	蜿蜒而流	두둥실	轻飘飘

등실등실 翩翩
 드리우다 垂下
 등대 灯塔
 대개 大部分
 마찬가지로 同样
 목란꽃 木兰花
 무리 群
 묵다 逗留
 못봉우리 群峰
 뭉게뭉게 一团一团
 바람 风
 반기다 欢迎
 반짝반짝 一闪一闪
 방목하다 放牧
 방불하다 仿佛
 번쩍번쩍 闪闪发光
 번역 翻译
 벌방 平原
 벌떡 猛然站起
 봇나무 白桦树
 봉 峰
 봉긋봉긋 冒尖儿
 부벽루 浮碧楼
 북 鼓
 비단필 成匹的绸缎
 비죽비죽 露出尖儿
 비중 比重
 산들산들 微微地
 서슴없이 毫不犹豫
 석상 石像
 합작 合作

흥 兴致
 화창하다 春光明媚
 황홀하다 辉煌灿烂
 꺾꽂이 坚强地
 떠들다 吵闹
 떨기떨기 一朵一朵
 썩 立刻
 야경 夜景
 역경 逆境
 연줄연줄 接连不断地
 연회 宴会
 오죽 多么
 온통 全部
 우주 宇宙
 우죽우죽 尖尖的
 유유히 悠悠地
 은하수 银河
 이다 是
 이바지하다 增添
 일만경치 一万景致
 일어서다 起来
 잇달리다 连接
 애련정 爱恋亭
 예 古
 의례 礼仪
 의지 意志
 왁작박작 闹闹嚷嚷

성구(成語)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다

形影不離

례: 할머니는 그림자와 같이 손자애를 따라다녔다.

록음(이) 우거지다

綠樹成蔭

례: 록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여.

비단우에 꽃 = 밥우에 떡

雙喜臨門，錦上添花

례: 새 며느리를 맞은데다 떡돌같은 손자까지 보았으니 비단우에 꽃인셈이요.



반월가(반달)

좀 천천히

작사, 작곡 윤극영



1. 푸 른하 늘 은 - 하 수 하 얀쪽 배 에



계 수 나 무 한 - 나무 토 끼 한 마 리



뚝 대 도 아 니 달 고 샷 대 도 없 이



가 기 도 잘 도 간 다 서 - 쪽 나 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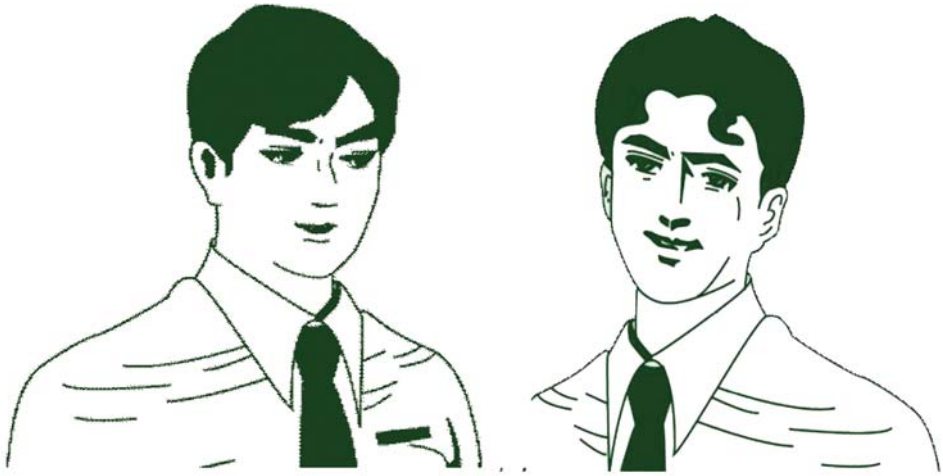
2.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진
새별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제11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在西山足球场)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이미 TV에서 보았던바와 같이 도로의 양옆에는 여러가지 전문체육시설들이 마치 가로수처럼 준비하게 늘어서있었다.
- 김휘는 조선어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실천학습을 많이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선어수준이나 지식수준이나 할것없이 모두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본문 (课文)



체육을 좋아하는 김휘의 요청에 따라 김휘와 남수는 청춘거리에 있는 체육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TV에서 보았던바와 같이 도로의 양옆에는 여러가지 전문체육시설들이 마치 가로수처럼 즐비하게 늘어서있었습니다.

축구선수들의 훈련모습을 바라보던 김휘는 남수에게 《축구선수들의 공을 노는 솜씨가 높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조선어에서는 영어나 로어에서처럼 체육종목에 《놀다》라는 단어를 붙이는것이 아니라 체육종목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를 붙인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의아해하는 김휘를 바라보며 남수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 말에서는 체육종목에 따라 붙이는 단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공은 찬다고 말하고 축구, 룽구, 배구는 하다, 탁구, 정구, 야구, 바드민톤은 치다, 스케트, 스키는 탄다고 한답니다.》

그제서야 김휘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배우는데 열성인 김휘는 그러한 표현들에는 또 어떤것들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남수는 조선어의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면서 악기와 관련한 표현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악기와 관련된 표현도 매우 다양한데 피아노는 치다, 손풍금과 기타는 타다, 바이올린은 켜다, 나팔과 피리는 불다, 북과 징은 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조선말에 대하여 어지간히 안다고 자부하였던 김휘는 조선어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실천학습을 많이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남수는 음식만들기와 관련한 표현도 다양하다고 하면서 《밥은 짓다, 떡은 치다, 죽은 쭈다, 두부는 앓다, 만두는 빚다, 김치는 담그다, 지짐은 지지다》라고 한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김휘는 이런것을 잘 알면 조선어수준이나 지식수준이나 할것없이 모두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발음 (发音)



- 훈련 모습을 [훈련모스블]
- 불이는것이 [부치는거시]
- 할것없이 [할꺼덱씨]



同化 (담기)

收音“이”后边有词尾或词缀“ㄷ, ㄸ”时, 分别读成[지, 치]。

례: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같이[가치], 불이다[부치다]

문형과 문법 (语言点)

이미 TV에서 보았던바와 같이 도로의 량옆에는 여러가지 전문체육시설들이 마치 가로수처럼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语法短语 “-았/었/였던바와 같이” 表示 “像……一样/那样”。

- 례: ○ 당신이 말했던바와 같이 날씨가 개였습니다.
○ 이미 보았던바와 같이 실태는 이렇습니다.

◆ 다음의 물음에 문법적구 《-았/었/였던바와 같이》를 넣어 대답해보시오. (以 “-았/었/였던바와 같이” 形式回答问题。)

- 어째서 늦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 러명거리를 돌아본 감상이 어떻습니까?
- 경기성적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미 TV에서 보았던바와 같이 도로의 량옆에는 여러가지 전문체육시설들이 마치 가로수처럼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语法短语 “마치 -처럼” 表示 “像……一样/那样” 的意思。

- 례: ○ 마치 돌처럼 굳어졌다.
○ 겨울이지만 마치 봄날처럼 따스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그, 새, 하늘, 날고싶다
그는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날고싶었다.
- 남수, 전문선수, 탁구, 잘하다
- 김희, 조선사람, 조선어, 잘하다

김희는 조선어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실천학습을 많이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语法短语“-기 위한”表示“目的”。

예: ○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훈련을 벌리었다.

○ 견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 다음의 물음에 문법적구 《-기 위한》을 넣어 대답해보시오.
(以“-기 위한”形式回答问题。)

- 김희는 무슨 학습을 많이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조선어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실천학습을 많이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훈련장에서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 김치는 어떻게 담급니까?



조선어수준이나 지식수준이나 할것없이 모두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语法短语“-나 -나”是连接词尾，表示“无论……
都”的意思。

례: ○ 자나깨나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 김휘는 앞으나서나 공부를 생각합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남수, 축구, 배구, 다, 잘하다

남수는 축구나 배구나 다 잘합니다.

○ 철수, 낮, 밤, 계속, 훈련하다

○ 조선, 봄, 여름, 날씨, 좋다

대화(会话)

김희: 남수선생, 아까 체육촌에서 훈련하던 여자축구선수들이 어느 팀 선수들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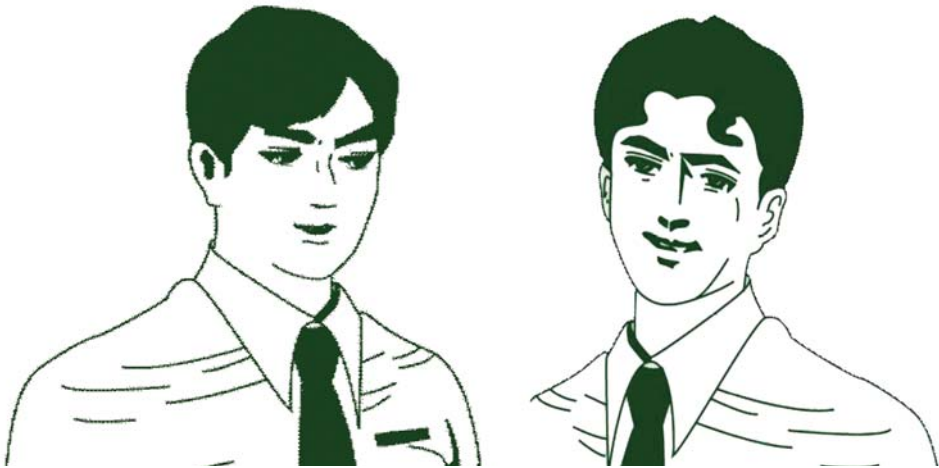
남수: 그들은 4.25팀 선수들입니다.

김희: 선수들이 훌륭하던데 특히 공격수들이 아주 빠릅니다.

남수: 그들은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축구에 특별한 관심이 있구만요.

김희: 예, 나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는 로씨야의 유명한 문지기였던 야신을 숭배합니다.



남수: 아, 《검은 문어》! 레브 야신은 우리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김희: 영아동무도 《검은 문어》 야신을 알고있더군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조선의 탁구녀왕 박영순을 잘 압니다. 우리 중국사람들은 대담하고도 인물이 고운 세계탁구녀왕 박영순을 지금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마지막 한알을 남겨두고도 침착할뿐 아니라 완강하게 공격하곤 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수: 나는 탁구를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박영순을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탁구에서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희: 이번에 나에게 탁구를 좀 배워주겠습니까?

남수: 그렇게 합시다.

김휘: 조선에 와서 계약은 물론 조선어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가면 소득이 참으로 클것입니다.

남수: 당신의 탁구기술소유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음 (发音)

- | | |
|------------|------------|
| • 특히 | [트키] |
| • 특별한 | [특뻬란] |
| • 탁구녀왕 | [탁꾸녀왕] |
| • 침착할뿐 아니라 | [침차칼뿌 나나라] |

조선의 정통무도 — 태권도 (朝鲜的传统武术——跆拳道)

태권도는 조선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고유한 운동으로서 몸에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발과 주먹을 리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술이다.

태권도는 모든 기본동작들과 구성요소들이 과학적리치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우수한 무술로서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보급되고있다.

연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축구선수들의 훈련모습을 바라보던 김휘는...
- 2) 체육종목에 《놀다》라는 단어를 붙이는것이 아니라 체육종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붙인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 3) 악기와 관련한 표현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 4) 조선어수준이나 지식수준이나 할것없이 모두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는...
- 5) 선수들이 훌륭하던데 특히 공격수들이 아주 빠릅니다.
- 6) 당신은 축구에 특별한 관심이 있구만요.
- 7) 나는 조선의 탁구녀왕 박영순을 잘 압니다.
- 8) 마지막한알을 남겨두고도 침착할뿐 아니라 완강하게 공격하군 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소형 ⇒ 소형로봇, 소형컴퓨터, 소형자동차

- 1) 소음 ⇒
- 2) 접근 ⇒
- 3) 흑색 ⇒
- 4) 컴퓨터 ⇒
- 5) 선물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승인 ⇒ 승인을 하다, 승인을 받다, 승인이 되다

- 1) 호령 ⇒
- 2) 여론 ⇒
- 3) 욕망 ⇒
- 4) 인재 ⇒
- 5) 기분 ⇒

4.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选词填空。)

제일, 흐지부지, 애당초, 구태여, 넉지시, 늘쌍

본보기: 할머니는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라고 (늘쌍) 말씀하십니다.

- 1) 동무들도 다 알겠는데 내가 () 반복할 필요가 있겠소?
- 2) 그는 무슨 영문인지 말끝을 () 얼버무렸습니다.
- 3) 영남이는 모든 과목들중에서 수학과목을 () 좋아합니다.
- 4) 그는 아무러한 미안한 생각도 없이 ()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 5) 우리는 ()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5.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본보기: 교과목, 평가, 공정하다, 진행하다, 그

⇒ 그는 교과목의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1) 나, 앓다, 맞다, 비위, 못하다, 붕어회, 먹다
⇒
- 2) 편집원, 끝내다, 수정, 원고, 속히, 말하다
⇒
- 3) 맥주, 차다, 보관하다, 너무, 앓다, 좋다
⇒
- 4) 철부지, 조르다, 굴, 그냥, 먹다
⇒
- 5) 세밀하다, 실내, 있다, 장치, 설치되다
⇒

6. 다음의 단어들로 《-기 위한》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기 위한”形式造句。)

본보기: 참관, 하다, 준비, 독특하다

⇒ 참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독특하게 하였습니다.

1) 언어, 요령, 습득하다, 있다, 여러가지

⇒

2) 서두르다, 준비, 경기, 나가다, 말다

⇒

3) 계약, 끝나다, 체결하다, 모든, 공정

⇒

4) 조선어, 높다, 수준, 방법, 연구하다

⇒

5) 원인, 사고, 해명하다, 진행되다, 계속, 조사

⇒

7.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마치 -처럼》, 《-나 -나》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마치 -처럼”或“-나 -나”形式造句。)

본보기: 형님, 엄격하다, 나, 욕하다, 아버지 (마치 -처럼)

⇒ 형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나를 엄격하게 욕하였습니다.

1) 연구조수, 실험, 앓다, 서다, 생각하다 (-나 -나)

⇒

2) 그, 치다, 보다, 것, 누에, 나서다, 앞 (마치 -처럼)

⇒

3) 형님, 창의고안, 자다, 깨다, 하다, 생각, 하다 (-나 -나)

⇒

4) 형님, 넓다, 학문, 나서다, 것, 연단 (마치 -처럼)

⇒

5) 비, 눈, 오다, 어머니, 늘, 직장, 출근하다 (-나 -나)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표시하십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 1) 김희는 체육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
- 2) 김희와 남수는 광복거리에 있는 체육촌을 찾게 되었습니다.
- 3) 조선어에서는 체육종목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를 붙입니다.
- 4) 남수는 김희에게 체육종목과 악기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주었습니다.
- 5) 조선어에는 음식만들기와 관련한 표현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 6) 김희와 남수는 참관일정에 따라 청춘거리에 있는 체육촌을 찾게 되었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 1) 영어에서는 체육종목에 어떤 단어를 붙입니까?
⇒ 영어에서는 체육종목에 《놀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 2) 본문에는 어떤 구기종목들이 언급되었습니까?
⇒
- 3) 조선어에서 손풍금과 기타에는 어떤 단어가 결합될수 있습니까?
⇒
- 4) 원래 남수는 자기의 조선어지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
- 5) 조선어에는 음식만들기와 관련한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
- 6) 김희는 무슨 체육종목을 좋아합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희와 남수는 청춘거리에 있는 체육촌을 찾게 되었습니다.

...

단어 (词语)

가로수	行道树	해명하다	查明
검다	黑	회	生鱼片
공	球	깨다	醒
공격수	前锋	쭈다	熬
공정	公正	아시아	亚洲
교과목	科目	앗다	磨
구태여	何必	어지간히	差不多
굳다	僵硬	어째서	为什么
그리하다	这样	언급	谈到
계단	楼梯	얼버무리다	含糊
관심	关心	여러가지	各种
넌지시	悄悄地	여론	舆论
누에	蚕	소음	噪音
늘쌍	经常	속히	很快
두부	豆腐	솜씨	本领
대담하다	大胆	숭배하다	崇拜
량옆	两旁	승인	批准
로봇	机器人	실천	实践
만두	饺子	세밀하다	周到
문지기	守门员	자부하다	自信
문어	章鱼	장치	设备
바드민톤	羽毛球	전문	专门
붕어	鲫鱼	접근	接近
비위	口味	조르다	纠缠
빙그레	微笑	조사	调查
빚다	包	조수	助手
선율	旋律	징	锣
선수권	优胜者	창의고안	创意
소득	收获	철부지	不懂事的孩子
소형	小型	청춘거리	青春大街

촌	村	영문	理由
침착하다	稳重	요청	邀请
체결하다	签订	욕망	欲望
편집원	编辑	욕하다	骂
평가	评价	이제	现在
피리	笛子	애당초	当初
호령	命令	의아해하다	怀疑
흐지부지	含糊不清	완강하다	顽强
검은색	黑色	원고	原稿
해돋이	日出		
연단	讲台		

성구 (成语)

기억(이) 나다
记起来了。

례: 꼼꼼히 생각해보니 기억이 납니다.

서리맞은 호박잎같다
一蹶不振, 泄气。

례: 축구경기에서 진 영남이네 학급동무들의 모습은 마치 서리맞은 호박잎같았다.



제12과. 청류관에서 (在清流馆)

중심 문형 (重点句型)

- 평양랭면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 늙은이건 젊은이건 모두 좋아합니다.
- 식사를 끝내고서 김희와 영아는 보통강유보도를 거닐었습니다.
- 색깔과 향기가 좋은데다가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 나는 이 은정차의 맛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

본문 (课文)



김휘와 영아는 조선의 특산인 평양랭면을 함께 맛보기 위하여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청류관으로 갔습니다.

청류관에서 봉사하는 평양랭면은 조선의 이름난 민족음식의 하나입니다.

평양에 가서 평양랭면을 먹어보지 못하면 평양에 갔다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할만큼 평양랭면은 훌륭한 평양특산입니다.

둥글고 큰 쟁반에 쫄고기며 닭알이며 김치며 육수까지 합쳐진 평양랭면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정작 먹기 시작하니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그대로였습니다.

김휘가 영아에게 조선의 국수가 이렇게 맛있는줄은 몰랐다고 하자 그는 평양랭면은 참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식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아는 조선사람들이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국수를 먹는 풍습이 전해져오며 늙은이건 젊은이건 모두가 좋아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지어 그 풍습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이들에게 《빨리 국수를 먹자.》, 《언제쯤 국수를 먹을수 있겠나?》 라고 말하면 《빨리 시집(장가)을 가라.》, 《언제 결혼하겠나?》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은 국수를 즐겨먹는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성구로 굳어져버렸습니다.

김희는 조선의 국수가 조선어속에 남긴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영아와 함께 청류관에서 평양랭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서 김희와 영아는 보통강유보도를 거닐며 조선의 민족음식과 그와 관련된 성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청류관의 평양랭면맛은 국수와 관련한 조선어성구와 함께 김희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특산인 | [특짜닌] |
| • 청류관으로 | [청뉴과느로] |
| • 일상생활과도 | [일쌍생활과도] |
| • 끝내고서 | [꾼내고서] |

문형과 문법 (语言点)

평양랭면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语法化词尾 “-기만 하다” 表示 “只顾、只是” 的意思。

예: ○ 그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

○ 김희는 걸기만 하였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남수, 글, 쓰다
남수는 글을 쓰기만 하였습니다.
- 영아, 노래, 부르다

- 혜영, 춤, 추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모두 좋아합니다.

语法短语“-건 -건”是连接词尾，表示“不论是……都”的意思。

- 예: ○ 비가 오건말건 항상 달리기를 합니다.
○ 낮이건 밤이건 생각합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남수, 누가, 뭐라고, 하다, 말다, 흔들리다, 앓다
남수는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영아, 누가, 보다, 말다, 부지런히, 일하다

- 김희, 공부, 하다, 체육, 하다, 항상, 정열적이다

식사를 끝내고서 김희와 영아는 보통강유보도를 거닐었습니다.

词尾“-고서”是连接词尾，表示“先后关系、方式”。

례: ○ 토론을 끝내고서 식사를 하였다.

○ 그들은 문건을 보고서 결심을 하였습니다.

◆ 물음에 대답해보시오. (回答问题。)

○ 동무는 일을 끝내고서 무엇을 합니까? (통구, 하다)

나는 일을 끝내고서 통구를 합니다.

○ 김희는 어떻게 자기의 조국으로 갑니까? (비행기, 타다)

○ 영아동무는 식사를 하고서 대학에 갔습니까? (도서관,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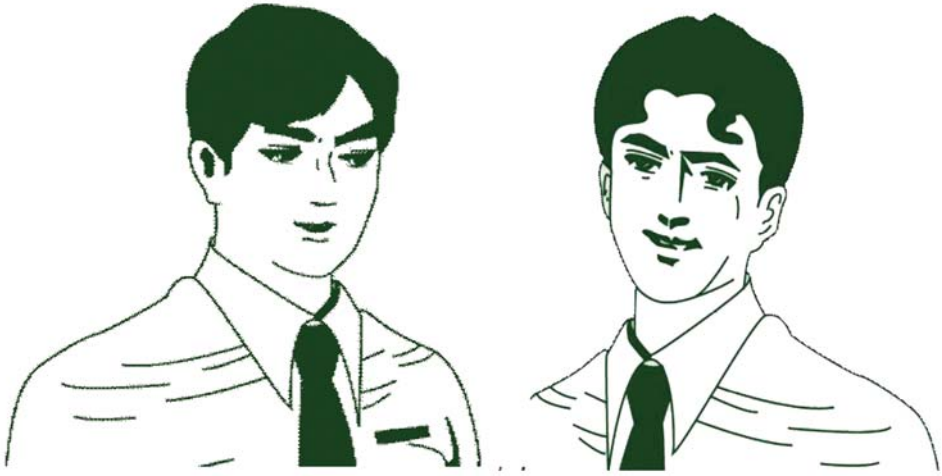


청류관 (清流馆)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청류관은 주체70(1981)년에 준공한 대중봉사기지이다.

주체97(2008)년에 개건된 청류관은 건물내부전반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최신식봉사설비들과 근로자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을 원만히 갖춘 종합적인 민족료리봉사기지이다.

대화 (会话)



남수: 김휘선생, 차맛이 어떻습니까?

김휘: 음, 한마디로 말할수는 없는데 색깔과 향기가 좋은데다가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맛을 보면 록차와 비슷한데 무슨 차입니까?

남수: 역시 김휘선생은 차에도 조예가 깊구만요. 이 차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은정차입니다.

김휘: 예? 조선에서도 차를 재배합니까? 차는 아열대지역에서만 나오는줄로 알고있는데 ...

남수: 예, 차는 원래 아열대지역에서 재배하지만 이 차는 우리 나라 기후에 풍토순화된 강령지방의 은정차입니다. 우리의것이여서 그런지 우리 인민들은 모두 이 차를 사랑하고 즐겨마시고있습니다. 내 나라의 맑은 물과 내 나라의 우수한 차잎으로 만든 내 나라의 차!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휘: 남수선생은 정말 대단합니다.


남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김휘: 오늘 이렇게 조선의 유명한 은정차를 맛보면서 우리의 뉴대가 더욱 밀접해진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정차에 감사를 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 은정차의 맛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


남수: 그렇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다음번에는 개성의 유명한 고려인삼차를 맛보도록 합시다.

발음 (发音)



• 비슷한데	[비스탄데]
• 맛보면서	[맛뽀면서]
• 밀접해진것같습니다	[밀쨌괘진것같습니다]

문형과 문법 (语言点)



색깔과 향기가 좋은데다가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词尾 “-ㄴ/는데다가” 是连接词尾，表示 “不但……而且……” 的意思。

례: ○ 탁구를 잘하는데다가 축구도 잘합니다.
○ 기술이 높는데다가 속도도 빠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누나, 곱다, 생기다, 크다, 동무, 키, 우리
동무의 누나는 곱게 생겼습니까?
예, 우리 누나는 곱게 생긴데다가 키도 큼니다.
- 왕용, 노래, 잘, 부르다, 춤, 추다

- 금강산, 아름답다, 높다, 경치, 높이

나는 이 은정 차의 맛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

语法短语“절대로 -지 않을것이다”表示“决不……”的意思。

례: ○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

○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을것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이것, 후회하다
이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것입니다.
- 부정, 용납하다

- 꿈, 포기하다

연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조선의 특산인 평양랭면을 함께 맛보기 위하여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청류관으로 갔습니다.
- 2) 사람들의 식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고 하였습니다.
- 3)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국수를 먹는 풍습이 전해져오며...
- 4) 식사를 끝내고서 김희와 영아는 보통강유보도를 거닐며 조선의 민족 음식과 그와 관련된 성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5) 맛을 보면 룡차와 비슷한데 무슨 차입니까?
- 6) 오늘 이렇게 조선의 유명한 은정차를 맛보면서 우리의 뉴대가 더욱 밀접해진것같습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비닐 ⇒ 비닐가방, 비닐구두, 비닐그릇

- 1) 성능 ⇒
- 2) 지속 ⇒
- 3) 권리 ⇒
- 4) 내장 ⇒
- 5) 다량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모닥불 ⇒ 모닥불을 피우다, 모닥불이 타오르다, 모닥불을 쪼이다

- 1) 고래 ⇒
- 2) 공 ⇒
- 3) 동향⇒
- 4) 리론 ⇒
- 5) 법령 ⇒

4.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选词填空。)

절로, 정녕, 등등, 훌쩍, 어쩐지, 언뜻

본보기: 성공은 절대로 (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 1) 창밖에 무슨 그림자가 ()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 2) 영남이는 달리는 차우에서 () 뛰어내렸다.
- 3) 그는 ()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하였다.
- 4)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것이 () 좀 이상했다.
- 5) 아득히 높고 푸른 하늘에 흰구름 몇송이가 () 떠간다.

5.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填上恰当的词尾。)

본보기: 아지랑이가 아물거리() 산우() 나어린 꼬마가 내려왔다.

⇒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산우(에서) 나어린 꼬마가 내려왔다.

- 1) 그는 전도가 양양하였() 어촌에 내려와 연구사업을 계속하() 하였다.

⇒

2) 그는 구구하() 변명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

3) 몸집이 실하() 사람이 무례하() 사람들사이() 비집고 들어왔다.

⇒

4) 착실하() 치료를 받았() 상처가 인차 아물었다.

⇒

5) 산촌() 고요하() 정숙이 깃들었다.

⇒

6. 다음의 단어들로 로 《-ㄴ 데다가》나 《-고서》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 보시오. (用下列词语以“-ㄴ 데다가”或“-고서”形式造句。)

본보기: 다니다, 이리저리, 고생하다, 동생, 잃다 (-ㄴ 데다가)

⇒ 이리저리 다니며 고생한데다가 동생까지 잃었다.

1) 그, 흠치다, 땀, 이마, 시작하다, 말 (-고서)

⇒

2) 고프다, 몹시, 배, 춥다, 하다 (-ㄴ 데다가)

⇒

3) 비상대책, 사장, 세우다, 응하다, 회담 (-고서)

⇒

4) 국수, 질기다, 물, 구수하다, 정말, 맛있다 (-ㄴ 데다가)

⇒

5) 빨리, 식사, 하다, 곧, 가다 (-고서)

⇒

7.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절대로 -지 않을것이다》, 《-건 -건》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절대로 -지 않을것이다”或“-건 -건”形式造句。)

본보기: 앞으로, 문, 열다, 자다 (절대로 -지 않을것이다)

⇒ 앞으로는 절대로 문을 열고 자지 않을것이다.

- 1) 크다, 작다, 강토, 아니다, 문제, 그것 (－건 －건)
⇒
- 2) 지조, 신념, 굽히다 (절대로 －지 않을것이다)
⇒
- 3) 긴급하다, 앓다, 보고하다, 제때에, 하다 (－건 －건)
⇒
- 4) 나, 본분, 자기, 저버리다 (절대로 －지 않을것이다)
⇒
- 5) 그, 가다, 말다, 상관하다, 앓다 (－건 －건)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십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 본보기: 청류관은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있습니다. (☑)
- 1) 조선의 이름난 민족음식에는 평양랭면도 있습니다.
 - 2) 평양랭면은 훌륭한 평양특산인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 3) 조선사람들은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만 국수를 먹습니다.
 - 4) 김희와 영아는 대동강가의 어느한 공원에서 조선의 민족음식과 성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5) 김희와 남수는 평양랭면을 먹기 위하여 청류관으로 갔습니다.

9.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 1) 김희는 누구와 함께 청류관에 갔습니까?
⇒ 김희는 영아와 함께 갔습니다.
- 2) 평양랭면은 대체로 어떤 그릇에 담습니까?
⇒
- 3) 조선사람들은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어떤 주식을 먹습니까?
⇒

4) 조선어의 성구 《국수를 먹다》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있습니까?

⇒

5) 김휘와 영아는 어디에서 조선의 민족음식과 성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

6) 청류관의 평양랭면맛은 어떤 성구와 함께 김휘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졌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휘와 영아는 평양랭면을 함께 맛보기 위하여 청류관으로 갔습니다.

...

단어 (词语)

강토	疆土	사라지다	消失
결국	结果	때때로	有时
고래	鲸鱼	아득히	遥远
곧	就	아물거리다	浮动
군침	涎水	아물다	愈合
그릇	器具	아지랑이	河影
기슭	岸	아열대	亚热带
긴급하다	紧急	양양하다	不可限量
깃들다	变得 (一片寂静)	어촌	渔村
개성	开城	언듯	一瞥眼
권리	权利	상관하다	管
뉴대	纽带	상처	伤口
내장	内脏	성능	性能
동향	动向	송이	朵
둥둥	飘荡	시절	时节
리론	理论	시집	嫁
마디	句	식생활	饮食
모닥불	篝火	심정	心情
몸집	身躯	자리잡다	位于
무례하다	无礼	장가	娶
밀접하다	密切	전통	传统
반영	反映	절로	自然而然
법령	法令	정녕	真的
변명하다	辨明	정숙	肃静
보통강기슭	普通江畔	정작	真的
비닐	塑料	정열적	热情
비상대책	紧急措施	지속	持续
비집다	挤		

지조	气节	꼬마	小孩子
착실하다	老实	용납하다	容许
타오르다	燃烧	육수	肉汤
포기하다	放弃	은정차	恩情茶
풍토	风土	응하다	答应
향기	香气	이리저리	这样那样
후회하다	后悔	이마	额头
홀쩍	很快地	인연	缘分
훔치다	抹	일상생활	日常生活

성구(成语)

입맛이 돌다

胃口有所好转。

례: 의료집단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여 환자의 입맛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이)나다

“消息传开”或“出了名”的意思。

례: 소문이 나게 농사를 잘하였다.

번개불에 담배불 붙이겠다

指性子急。

례: 그 애의 성미는 정말 번개불에 담배불 붙이겠더군.





고향의 봄

작사 리원수

작곡 홍란파

그리는 마음으로



1. 나 의 살-던 고향은 꽃 피 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 기 진 달-래



을긋불긋 꽃-대결 차 리 인 동-네



그속에서 놀던-때가 그립습니-다

2.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 추는 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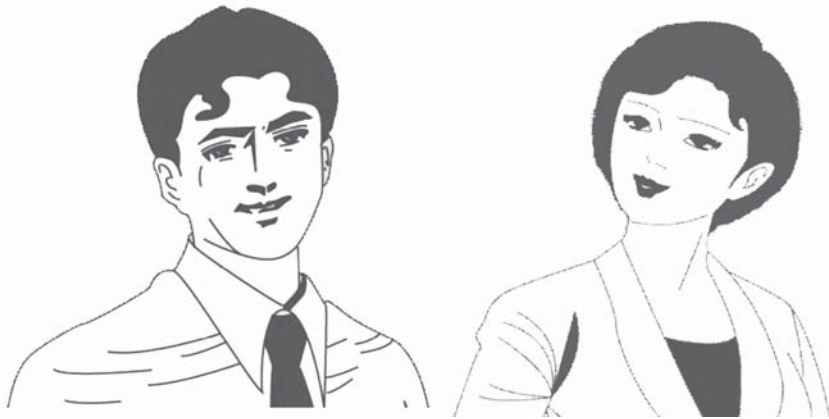


제 13과. 강의실에서 (在教室)

중심 문형 (重点句型)

- 그에게 있어서 《코끼리》라는 발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 영국에서 온 관광객인 잭크가 그 발음이 쉬울듯이 생각하고 한번 발음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 몇번이나 반복하고는 썩 웃었습니다.
-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배운들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낼수 있겠는지.
- 아마 그런것같습니다.

본문 (课文)



김훤이 조선어를 처음 배울 때였습니다.

조선어선생님은 《코끼리》라는 단어를 배워주면서 학생들에게 한번 발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로씨야에서 온 이고리가 《꼬-끼-리》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선생님이 다시 발음해보라고 하자 그는 이번에도 《꼬-끼-리》로 발음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코끼리》라는 발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온 관광객인 잭크가 그 발음이 쉬울듯이 생각하고 한번 발음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코-키-리》라고 씩씩하게 발음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다시 발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코-키-리, 코-키-리...》라고 몇번이나 반복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끝내 그는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발음이 잘되지 않아 안타까와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단어 <코끼리>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겠습니다.

이고리가 <코끼리>를 <꼬끼리>로 즉 <코>를 <꼬>로 발음한것은 이고리의 모국어인 로어에 <К>와 같은 거센소리발음이 없기때문입니다. 잭크가 <코끼리>를 <코키리>로 즉 <끼>를 <키>로 발음한것은 잭크의 모국어인 영어에 <П>와 같은 된소리발음이 없기때문입니다. 아마 이고리는 <코끼리>라는 발음을 로어문자 'Коки' (꼬끼)로, 잭크는 영어문자 'Koki' (코키)로 인식한것 같습니다.

로어에서는 조선어의 <ㄱ>음과 <ㄷ>음을 다같이 <K(ㄷ)>로 나타내고 있으며 영어에서는 <ㄱ>음과 <ㄷ>음을 다같이 <k(ㄱ)>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어의 <ㄱ>음과 <ㄷ>음을 정확히 발음할수 없게 됩니다. 조선어에서는 로어의 <K(ㄷ)>음이나 영어의 <k(ㄱ)>음을 정확히 구별하여 <ㄷ>, <ㄱ>로 발음합니다.

두 사람의 발음중에서 잭크가 발음한 <코>와 이고리가 발음한 <끼>를 합하면 <코끼리>라는 정확한 발음이 될것입니다.》라고 바로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어선생님은 조선어의 말과 글자로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휘는 조선어의 말과 글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경제실무가이기전에 조선어전문가가 된것같았습니다.

발음(发音)



- | | |
|----------|----------|
| • 발음해보라고 | [바르매보라고] |
| • 글자 | [글짜] |
| • 씹씹하게 | [씹씨카게] |
| • 만족하게 | [만조카게] |

문형과 문법(语言点)

그에게 있어서 《코끼리》라는 발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语法短语“-에/에게 있어서”表示“对……来说”的意思。

- 례: ○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것은 과학성에 있어서 세계최고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학생, 학습, 중요하다, 것, 없다
학생에게 있어서 학습보다 중요한것은 없다.
- 남수, 사업, 매우, 중요하다
- 그, 수학, 좀, 힘들다

영국에서 온 관광객인 잭크가 그 발음이 쉬울듯이 생각하고
한번 발음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词尾“-ㄴ듯이”是词尾“-ㄴ듯”的强调形。

례: ○ 그는 도와줄듯이 말하였다.

○ 실마리가 잡힐듯이 알쏭달쏭하였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잭크는 하늘, 날다, 기쁘다
잭크는 하늘을 날듯이 기뻐다.
- 김휘, 힘들다, 여겨지다
- 비, 오다, 하늘, 거뿔다

몇번이나 반복하**고는** 썩 웃었습니다.

词尾“-고는”是连接词尾，表示“先后关系”。

예: ○ 식사를 끝내**고는** 좀 쉽시다.

○ 상품을 사고**는** 비행장으로 가겠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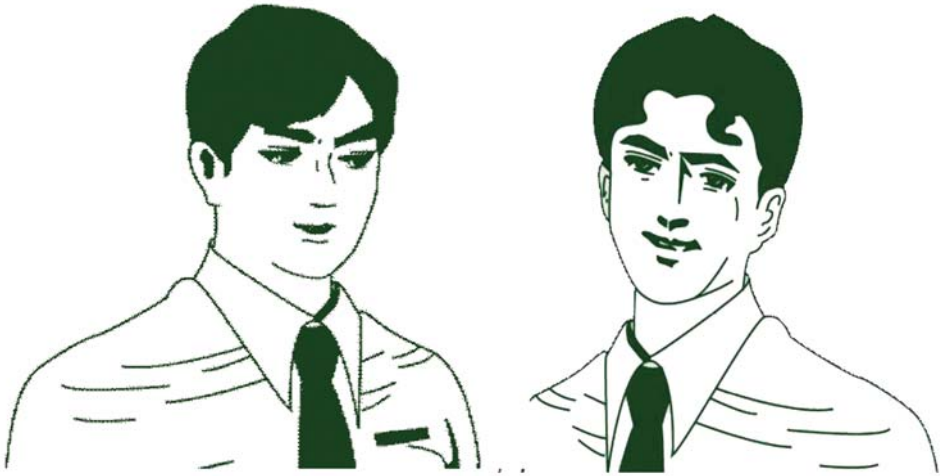
○ 전시장, 돌아보다, 밖, 나가다

전시장을 돌아보고**는** 밖으로 나갑시다.

○ 문건, 연구하다, 토론, 하다

○ 휘발유, 넣다, 인차, 떠나다

대화(会话)



김휘: 정말 상쾌한 아침입니다.

남수: 예, 그렇습니다. 좀 있다가 해돋이가 시작될것입니다.

김휘: 저기 하늘을 보십시오. 벌써 온통 빨갱습니다.

남수: 예,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는데도 하늘이 불그스레합니다.

김휘: 점점 더 빨갱습니다.

남수: 예, 이제는 시뻘개졌습디다.

김휘: 계속 오래오래 빨갱습니다.

남수: 이제는 완전히 새빨갱습니다.

김휘: 나는 아까부터 《빨갱다》고 하는데 당신은 계속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남수: 《불그스레하다, 시뻘겜다, 새빨갱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빨갱다》라는 색깔을 나타내지만 그 색도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김휘: 《빨갱다》라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렇게 많습니까?

남수: 예, 조선어는 사물현상의 의미를 매우 섬세하게 나타내는데 사실 《빨갱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수십가지나 됩니다.

김휘: 그 단어들은 완전히 다 다른어들입니까?


남수: 완전히 다른 단어들도 있고 기본단어에 앞붙이나 뒤붙이를 붙여서 색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례로 빨간 빛같이 세지 않을 때에는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럼하다》와 같이 뒤붙이를 붙여 표현하고 빨간 빛같이 셀 때에는 《시뻘겑다, 새빨갳다》와 같이 앞붙이를 붙여 표현합니다.

김휘: 정말 조선어는 표현이 풍부하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배운들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낼수 있겠는지... 내가 이런 언어를 배우게 된것은 참으로 행운입니다.

남수: 내 보기에도 아마 그런것같습니다.

김휘: 이모저모로 정말 멋진 조선의 아침입니다.

발음 (发音)

- 
- | | |
|--------|--------|
| • 해돋이가 | [해도지가] |
| • 밝지 | [박찌] |
| • 앞붙이나 | [압뿌치나] |
| • 뒤붙이를 | [뒤뿌치를] |
| • 멋진 | [머신는] |

문형과 문법 (语言点)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배운들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낼수 있겠는지.

词尾“-ㄴ/은들”是连接词尾，表示“假设”。

례: ○ 그렇게 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 당신이 가지 않은들 일이 안되겠습니까.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당장, 떠나다, 한, 없다

당장 떠난들 한이 없습니다.

○ 용기, 있다, 어떻게, 하다

○ 아무리, 노력하다, 보람, 있다

아마 그런것같습니다.

语法短语“-ㄴ/는/르것같다”表示“猜测”。

례: ○ 김동무는 아마 오지 못할것같습니다.

○ 철이는 아마 도서관에 가는것같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김휘, 《코끼》, 발음, 로어문자, 《कोकि》, 인식하다
아마 김휘는 《코끼》라는 발음을 로어문자 《कोकि》로 인식한것 같습니다.
- 잭크, 영어문자, 《코끼》, 발음, 《koki》, 이해하다
- 왕용, 비행기, 떠나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조선어선생님은 《코끼리》라는 단어를 배워주면서 김휘에게 한번 발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2) 그에게 있어서 그 발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 3) 그는 《코-키-리》라고 씩씩하게 발음하였습니다.
 - 4) 그는 다시 천천히 《코-키-리, 코-키-리...》라고 몇번이나 반복 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 5) 줌 있다가 해돋이가 시작될것입니다.
 - 6)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는데도 하늘이 불그스레합니다.
 - 7) 기본단어에 앞불이나 뒤불이를 붙여서 색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체신 ⇒ 체신수단, 체신지점, 체신봉사

- 1) 조각 ⇒
- 2) 조개 ⇒
- 3) 증가 ⇒
- 4) 열람 ⇒
- 5) 이행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납득 ⇒ 납득이 가다, 납득을 시키다, 납득을 못하다

- 1) 대수(학) ⇒
- 2) 대양 ⇒
- 3) 방패 ⇒
- 4) 비누 ⇒
- 5) 정숙 ⇒

4.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슬쩍, 못내, 기필코, 덜컥, 감감, 진작

본보기: (진작) 그렇게 말할것이지 왜 이제야 말하는가요?

- 1) 조용한 틈을 타서 영남이는 나에게 () 말을 건네었다.
- 2)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 기뻐하셨다.
- 3) 형님께께서는 사흘이 지나도록 () 소식이 없었다.
- 4)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 팀이 () 우승을 할것이다.
- 5) 그 말을 들으니 () 겁이 났다.

5.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填上恰当的词尾。)

1) 새로 오() 예술체조선수는 몸매() 날씬하였습니다.

⇒ 새로 오(ㄴ) 예술체조선수는 몸매(가) 날씬하였습니다.

2) 자기는 중립을 지키() 하() 그것은 주대가 없는 표현입니다.

⇒

3) 그는 연신 눈() 흘기() 영남이에게 말했습니다.

⇒

4) 선장은 배() 위급하() 공개전파를 날렸습니다.

⇒

5) 과시 그() 기억력은 놀라() 수준이었습니다.

⇒

6) 선생님은 발음() 원리() 대하여 명료하() 설명해주시었습니다.

⇒

6. 다음의 단어들로 토 《-ㄴ/을듯이》나 《-ㄴ/은들》, 《-고는》이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ㄴ/을듯이”或“-ㄴ/은들”, “-고는”形式完成句子。)

본보기: 그, 터놓다, 속, 바싹, 다가왔다, 자기 (-ㄴ/을듯이)

⇒ 그는 자기의 속을 터놓을듯이 바싹 다가왔습니다.

1) 그, 쌓다, 담, 우리, 있다, 일, 무슨 (-ㄴ/은들)

⇒

2) 아버지, 듣다, 말, 나, 용서하다, 너그럽다 (-고는)

⇒

3) 제품개발, 시작하다, 인차, 그, 피우다, 소동 (-ㄴ/을듯이)

⇒

4) 기온, 내려가다, 급격하다, 문제, 무슨, 생기다 (-ㄴ/은들)

⇒

5) 그, 번지다, 또, 책장, 잠, 들다 (-고는)

⇒

7.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아마 -ㄴ 것 같다》나 《-에게 있어서》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아마 -ㄴ 것 같다”或“-에게 있어서”形式造句。)

- 1) 영남이, 제외하다, 체질, 약하다. (아마 -ㄴ 것 같다)
⇒ 아마 영남이를 제외하고는 체질이 약한것 같습니다.
- 2) 창조, 인재, 중요하다, 징표, 하나(~에게 있어서)
⇒
- 3) 그, 부유하다, 대단히, 신임사장(아마 -ㄴ 것 같다)
⇒
- 4) 김희, 조선말, 배우다, 것, 선차적, 일(~에게 있어서)
⇒
- 5) 그, 듣다, 목소리, 장대하다, 체구(아마 -ㄴ 것 같다)
⇒
- 6) 배우, 연기, 형상, 기본문제, 해결하다(~에게 있어서)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본보기: 김희가 조선어를 어느 정도 배웠을 때 조선어선생님은 그에게 《코끼리》라는 단어를 한번 발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 1) 김희가 《코끼리》라는 단어를 발음하자 선생님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 2) 그때 영국에서 온 관광객이 자기가 한번 발음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3) 영국에서 온 관광객은 《코끼리》라는 단어를 대단히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 4) 조선어의 말과 글자로는 동서양의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 5) 김희는 경제실무가가 아니라 조선어전문가입니다.

9.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1) 조선어선생님은 김훤이 조선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했습니까?

⇒ 《토끼》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했습니다.

2) 영국에서 온 관광객은 《토끼》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

3) 김훤은 왜 《토끼》를 《또끼》라고 발음했습니까?

⇒

4) 영국에서 온 관광객은 왜 《토끼》를 《토키》라고 발음했습니까?

⇒

5) 김훤에게 있어서 《토끼》의 발음은 왜 쉽지 않았습니까?

⇒

6) 김훤은 무엇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김훤이 조선어를 처음 배울 때 조선어선생님은 그에게 《코끼리》라는 단어를 배워주면서 한번 발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단어 (词语)

감감	杳然	앞붙이	前缀
거멓다	黑	연기	演技
거센소리	送气音	연신	不断
겁	怕	용서하다	原谅
급격하다	急剧	사물	事物
기필코	肯定	사흘	三天
기억력	记忆力	선장	船长
기온	气温	선차적	首要的
날씬하다	苗条	섬세하다	细致
납득	理解	소동	闹事
다가왔다	坐近	수단	工具
담	墙	슬쩍	悄悄地
당장	马上	시뵤경다	深红
덜컥	忽然	새빨갳다	鲜红
동서양	东西方	색도	色度
대수학	代数学	장대하다	魁梧
모국어	母语	전파	传播
못내	非常	조개	贝
문건	文件	주대	主见
방패	盾牌	중립	中立
번지다	翻	즉	即
보람	有意义	증가	增加
부유하다	富裕	진작	早点儿
불그스레하다	淡红	제외하다	排除
비누	肥皂	체신	邮电
배	船	체질	体质
쌓다	砌	틈	机会

합하다	加	이행	转移
해결하다	解决	인식	认识
휘발유	汽油	예술체조	艺术体操
이모저모	各个方面	위급하다	危急

성구 (成语)

도를 닦다

修炼

례: 장수는 산을 주름잡아다니며 매일 도를 닦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神不知鬼不觉

례: 밖에 있던 물건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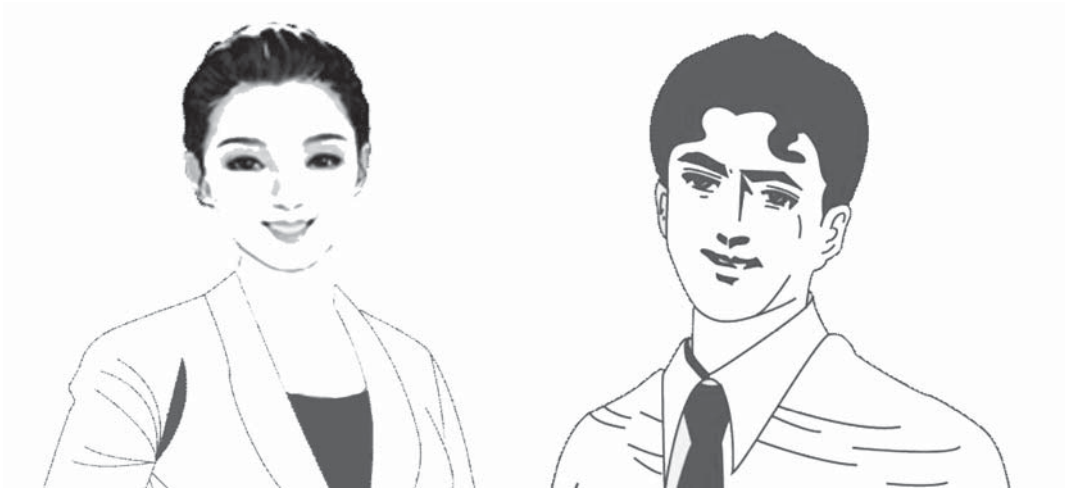


제 14과. 대성은행에서 (在大城銀行)

중심 문형 (重点句型)

- 40€라고 말하**던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가?
- 아무리 생각해보았**됐**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저 새의 이름은 삐꾸기라고 **한**다는데 그럼 삐꼭삐꼭 소리를 내서 삐꾸기입니까?
- 대신 까치는 **비록** 나쁜 벌레들을 많이 잡아먹**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문 (课文)



어느 미술전람회를 참관하던 김휘는 마음에 꼭 드는 도자기꽃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카드에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카드에 돈을 넣기 위하여 대성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는 100€를 내면서 60€에 해당하는 조선돈을 카드에 넣어줄 것을 은행 직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친절한 직원은 《자, 받으십시오. 60€에 해당하는 조선돈 6 000원을 카드에 넣었습니다. 거스름돈 40€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카드와 돈을 주었습니다.

김휘는 의아해하였습니다.

(분명 100€를 냈는데 왜 40€라고 할까?)

시세에 맞는 조선돈과 나머지 40€를 합해보니 돈계산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가 40€라고 하던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보았댔자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서 돈 세는 말과 관련한 조선어의 언어문화에 대하여 듣고 서야 리해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조선어에서는 요구하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돈을 거스름돈이라고 하며 따로 계산하여 부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김휘는 지난 시기 돈을 세는 문화에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습관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요구하는 돈과 잔돈을 합하여 부르는데

습관되어있었습니다.

김휘의 습관대로 하면 100€중에서 60€에 해당하는 조선돈을 주면서 40€와 합하여 《100€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100€중에서 60€에 해당하는 조선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돈만을 가지고 《거스름돈 40€를 받으십시오.》라고 했던것입니다.

김휘는 전람회장으로 돌아와 도자기꽃병을 샀습니다.

김휘는 돌아오면서 조선어의 언어문화대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내 카드에는 6 000원이 있었는데 도자기꽃병 값을 제외하니 거스름돈 500원이 남아있겠구나.》

발음 (发音)



• 100€를	[뱅유로를]
• 60€를	[륙심유로를]
• 6 000원을	[륙처뉘늘]
• 거스름돈	[거스름똥]
• 5 500원	[오천오배권]

문형과 문법 (语言点)

40€라고 말하**던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词尾“-던데”是连接词尾，表示“对立和提示”的意思。

례: ○ 거리가 멀**던데** 빨리 왔습니다.

○ 소문이 요란하**던데** 한번 들어봅시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다리, 상하다, 좀, 낫다
다리를 상했던데 좀 낫습니까?
- 시험, 힘들다, 자신, 있다
- 친구들, 기다리다, 빨리, 가다

아무리 생각해보았**맏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词尾“-맏자”是连接词尾，表示“假设”。

예: ○ 아무리 떠들었**맏자** 그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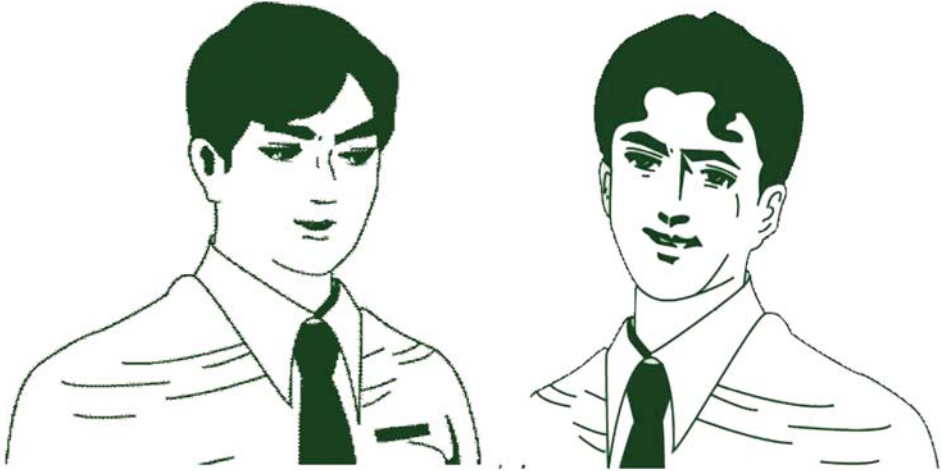
○ 사진을 뜯어보았**맏자** 그를 찾을 수 없어요.

◆ 로 《-맏자》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맏자”形式完成句子。)

- 영아, 듣다, 설명, 이해하다
영아의 설명을 들었**맏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왕용, 사진, 찾아보다, 김휘, 없다, 그
- 떠들다, 아무리, 아이, 그, 듣다, 전혀, 않다

대화(会话)



김희: 남수선생, 아까부터 딱딱 하고 소리를 내는 저 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수: 그 새의 이름은 딱따구리입니다.

김희: 왜 딱따구리라고 합니까?

남수: 벌레를 잡아먹을 때마다 딱딱 소리를 낸다고 하여 딱따구리라고 합니다.

김희: 참, 새의 이름이 신통합니다. 저 새의 이름은 삐죽새라고 한데 그름 삐죽삐죽 소리를 내서 삐죽새입니까?

남수: 예, 옳습니다. 신통히 알아맞추었습니다. 피꼴피꼴 하는 저 새는 이름이 무엇일것같습니까?

김희: 음, 피꼴새!

남수: 대단합니다. 저 새의 이름은 피꼴새인데 피꼬리라고도 합니다.

김희: 그럼 아까부터 까웁까웁 하는 저 새는 이름이 까웁새입니까?

남수: 틀렸습니다. 그 새는 까마귀입니다. 비록 까웁까웁 하고 울더라도 소리를 본따지 않고 까만 색깔을 본따 까마귀라고 합니다.

김희: 그러면 저기 까맣고 흰색이 함께 있는 새는 까마흰귀라고 해야 하겠군요.

남수: 하하, 그 새는 까치라고 합니다. 그 새는 색깔을 본따지 않고 까까 하며 울기때문에 소리를 본따 까치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까치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습니다. 까치가 울면 새 소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김희: 참, 새의 이름에도 이름짓기수법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있구만요.

발음 (发音)



- | | |
|---------|---------|
| • 신통합니다 | [신통암니다] |
| • 피꼴새 | [피꼴새] |
| • 까맣고 | [까마코] |

문형과 문법 (语言点)

저 새의 이름은 삐꼭새라고 **한다는데** 그럼 삐꼭삐꼭 소리를 내서 삐꼭새입니까?

词尾“-다는데”是连接词尾，表示“听说”的意思。

예: ○ 좋은 의견이 **있다는데** 들어봅시다.

○ 아침에 **떠났다는데** 인차 도착할것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날씨, 춥다, 외투, 입다

날씨가 춥다는데 외투를 입으십시오.

○ 영화, 재미나다, 한번, 보다

○ 밤, 밝히다, 몸, 돌보다

비록 까옥까옥 하고 울더라도 소리를 본따지 않고 까만 색깔을 본따 까마귀라고 합니다.

语法短语 “비록 … -더라도” 表示 “让步、假设”。

실례: ○ 비록 비가 오더라도 가야 한다.

○ 비록 좀 늦더라도 꼭 와야 합니다.

◆ 주어진 단어로 《비록 -더라도》 문형의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以 “비록 -더라도” 形式造句。)

- 왕용, 중국사람, 잘하다, 조선어
왕용은 비록 중국사람이더라도 조선어를 잘할수 있다.
- 왕근, 키, 룡구, 크다, 전혀, 못하다

- 눈, 오다, 누구나, 운동장, 가다



조선의 국조—참매 (朝鲜的国鸟—苍鹰)

조선의 국조 참매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기개와 비약의 한길로 출달음치는 조선사람들의 승리적기상을 안고있다.

참매는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부리와 역센 발톱, 매우 빠른 속도, 령리하고 결패있는 기질, 균형잡힌 몸매와 밝은 눈을 가지고있다.

매목 독수리과에 속하는 참매는 백두산일대를 비롯한 북부고산 지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중부이남지대까지 퍼져 사는 우리나라의 사철새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로씨야, 중남아메리카 등에 분포되어 있다.

연습 (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그는 카드에 돈을 넣기 위하여 대성은행으로 갔습니다.
- 2) 그는 100€를 내면서 60€를 카드에 넣어줄것을 은행직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 3) 왜 100€라고 말하면서 카드와 거스름돈을 줄가?
- 4) 아무리 생각해보았댔자 리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5) 새의 이름이 신통합니다.
- 6) 그것은 까만색이라는 색깔을 본따 까마귀라고 합니다.
- 7) 비록 까옥까옥 하고 울더라도 소리를 본따지 않고 까만 색깔을 본따 까마귀라고 합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온실 ⇒ 온실건설, 온실부지, 남새온실

- 1) 예정 ⇒
- 2) 외출 ⇒
- 3) 균형 ⇒
- 4) 등록 ⇒
- 5) 광고 ⇒

3. 다음단어들의 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개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동굴 ⇒ 동굴이 깊다, 동굴을 발견하다, 동굴로 들어가다

- 1) 레질 ⇒
- 2) 습기 ⇒
- 3) 실권 ⇒

- 4) 실력 ⇒
- 5) 절차 ⇒

4.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选词填空。)

곧잘, 그다지, 무려, 빙긋, 삽시에, 심지어

본보기: 수업이 끝나자 교실은 (삽시에) 소란스러워졌다.

- 1) 그들은 휴식일이면 () 그 공원에 찾아가곤 하였다.
- 2) 기온이 몹시 낮은데다가 ()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다.
- 3) 학생들이 () 좋아한다면 새 유희장도 만들어줍니다.
- 4) 그들은 연간계획을 () 3배나 초과완수하였다.
- 5) 영남이는 그의 말을 듣고 () 웃어보였다.

5. 잘못 쓴 토를 찾아 고쳐보시오. (修改用错的词尾。)

본보기: 그들은 그쫘한 일과 쉽사리 자포자기하지 않을것입니다.

⇒ 그들은 그쫘한 일로 쉽사리 자포자기하지 않을것입니다.

- 1) 선원들은 정어리를 잡는족족 가공반에서 보내주었다.
⇒
- 2) 아버지는 침통하게 얼굴로 앓아있다고 불시에 울음을 터뜨리였다.
⇒
- 3) 그들은 어구생산기지로 새로 꾸리면서 여념이 없다.
⇒
- 4) 고가약으로 암만 써도 차도가 없지만 정말 골치가 아프다.
⇒
- 5) 대다수에 룽상선수들이 올림픽참가로 위한 등록을 끝냈다.
⇒

6. 다음의 단어들로 토 《-뻘자》나 《-던데》, 《-다는데》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뻘자”或“-던데”、“-다는데”形式造句。)

본보기: 조용, 아무리, 없다, 그, 주다, 자극 (-댓자)

⇒ 아무리 그에게 자극을 주었잖아 조용이 없을것입니다.

1) 겹치다, 내용, 이, 수정하다 (-던데)

⇒

2) 멋있다, 상점, 그, 가보다, 한번 (-다는데)

⇒

3) 거절하다, 권유, 그, 없다, 필요 (-댓자)

⇒

4) 들다, 잘, 칼, 갈다, 누구 (-던데)

⇒

5) 영남이, 나다, 속보, 모르다, 사실 (-다는데)

⇒

7.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기 전까지는》이나 《-ㄴ/은외에》, 《비록 -더라도》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기 전까지는”或“-ㄴ/은외에”、“비록 -더라도”形式造句。)

본보기: 받다, 견습, 한심하다, 수준, 매우 (-기 전까지는)

⇒ 견습을 받기 전까지는 수준이 매우 한심하였다.

1) 대단히, 가물다, 올해, 높다, 기온 (-ㄴ/은외에)

⇒

2) 구두, 신다, 앓다, 맞다, 하다 (비록 -더라도)

⇒

3) 말다, 공개하다, 검증되다, 가설, 절대로 (-기 전까지는)

⇒

4) 영남이, 바지, 상점, 잉크, 사다 (-ㄴ/은외에)

⇒

5) 억만금, 아끼다, 말다, 요구되다, 하다 (비록 -더라도)

⇒

8.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표시하십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 1) 김휘는 조선의 유명한 도자기꽃병을 사기 위해 대성은행에 들렀습니다. ()
- 2) 친절 한 직원은 40€에 해당하는 조선돈 6 000원을 카드에 넣어주었 습니다.
- 3) 은행직원은 김휘에게 돈 세는 말과 관련한 조선어의 언어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습니다.
- 4) 김휘는 지금까지 요구하는 돈과 잔돈을 따로따로 부르는데 습관되어있었습니다.
- 5) 매 사람의 언어표현에는 오래동안 굳어진 습관적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 6) 김휘는 어느한 전시장에서 마음에 꼭 드는 도자기꽃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9.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 1) 김휘는 어느 은행에서 카드에 돈을 넣었습니까?
⇒ 대성은행에서 넣었습니다.
- 2) 김휘는 왜 카드에 돈을 넣었습니까?
⇒
- 3) 도자기꽃병을 산 다음 김휘의 카드에는 얼마의 돈이 남았습니까?
⇒
- 4) 김휘가 산 도자기꽃병의 값은 얼마입니까?
⇒
- 5) 은행직원은 김휘에게 거스름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주었습니까?
⇒

6) 김희는 어디에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도자기꽃병을 보게 되었습니까?
⇒

10.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시오. (简单叙述一下课文内容。)

어느한 미술전람회를 돌아보던 김희는 마음에 꼭 드는 도자기꽃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

단어 (词语)

가공반	加工作业班	초과하다	超过
가물다	干旱	침통하다	沉痛
거절하다	拒绝	딱따구리	啄木鸟
겹치다	重复	암만	不管……多么……
고가약	高价药	발견하다	发现
골치	头	벌레	虫子
균형	均衡	비록	虽然
광고	广告	빙긔	微微
권유	劝说	선원	船员, 水手
나머지	其他	속보	快报
년간	年度	습기	湿气
달성하다	达到	실권	实权
동굴	洞	실력	实力
등록	登记	심지어	甚至
무려	竟	쉽사리	容易地
매	每个	자극	刺激
존재하다	存在	자포자기	自暴自弃
차도	好转	전람회	展览会

절차	顺序	온실	温室
정어리	沙丁鱼	올해	今年
어구	渔具	예정	预定
영민하다	聪明伶俐	외출	外出

성구 (成语)

날을 따라

一天天, 逐日, 越来越, 日益

례: 봄을 맞은 수도의 거리는 날을 따라 푸른색, 붉은색 단장을 하며 모습을 달리하고있다.

물건을 모르거든 금새보고 사라

便宜没好货, 好货不便宜

一分钱一分货

례: 물건을 모르거든 금새보고 사라고 값을 보면 그 가치를 대체로 알수 있다.



제 15과. 류경치과병원에서 (在柳京牙科医院)

중심 문형 (重点句型)

-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 유능한 의사들이 있으니만큼 치료에서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에 온지 며칠만에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말았습니다.
- 설마 철자법이야 틀리지 않았겠지요.

본문 (课文)



김희와 남수는 평양시 문수지구에 있는 류경치과병원을 찾았습니다.

남수는 김희에게 《예로부터 조선인민은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중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류경치과병원에는 현대적인 치과종합치료기들과 진단 치료실, 보철과 치료실, 구급과 치료실, 재료준비실, 약국, 상점 등을 비롯하여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습니다.》라고 치과 병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었습니다.

류경치과병원의 벽면들에는 치과상식과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걸그림들이 주련이 걸려져있었는데 거기에는 치과위생자료와 치과위생도구들의 사용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었습니다.

김희와 남수는 병원안의 여러 방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고 병원구내로 나왔습니다.

김희는 옆으로 지나가는 중년여성에게 이 병원안에 상점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중년녀성은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이에요.》라고 병원안에 있는

상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상점에서는 사람들이 늘 리용하는 치약과 치솔 등 치과위생도구들과 입안의 염증에 쓰이는 약들, 치과치료재료들을 팔고있었습니다. 치솔도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류경치과병원을 돌아본 김휘는 남수에게 《병원의 설비들도 그렇고 치료조건도 훌륭합니다. 이런 훌륭한 병원이 있고 유능한 의사들이 있으니만큼 치료에서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온지 며칠만에 류경치과병원을 돌아보고 원래 쓰던 이발을 가지고있는 나로서는 늘 걱정하곤 하던 이발과 관련한 불안한 마음이 짝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이 병원은 치과계통의 모든 치료를 할수 있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 계통의 병에 대한 지식과 상식도 알려주고 필요한 물건들도 팔아주는 종합적인 치료봉사기지라는 말의 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합니다.

이 류경치과병원을 돌아보고 설비의 현대화정도나 치료조건, 위생조건도 세계적일뿐 아니라 건물도 웅장하고 깨끗하면서도 특색이 있고 또 이 병원 주변의 공기가 대단히 맑다는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참관과정에 느낀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을 안고 류경치과병원의 정문을 나섰습니다.

발음 (发音)

0

- 치과병원에서 [치과병워네서]
- 이발이 [이빠리]
- 특색있으면서도 [특새기쓰면서도]

문형과 문법 (语言点)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词尾“-예요”是尊敬阶终结词尾，表示“陈述”。

례: ○ 저의 말은 푸념이 아니예요.

○ 조선의 국화는 목란꽃이에요.

◆ 로 《-예요》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예요”形式造句。)

○ 조선, 국수, 소나무

조선의 국수는 소나무예요.

○ 조선, 국견, 풍산개, 국조, 참매

○ 자만, 사업, 금물

유능한 의사들이 있으니만큼 치료에서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词尾“-니만큼”是连接词尾，表示“原因、根据”。

례: ○ 저의 성의니만큼 받아주십시오.

○ 심장이 나쁘니만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로 《-니만큼》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니만큼”形式完成句子。)

- 의사선생님, 주사, 놓다, 인차, 병, 낫다, 것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놓았으니만큼 인차 병이 나을것입니다.
- 치과병원, 설비, 신형, 이다, 치료성과, 크다, 것
- 처방, 정확하다, 치료, 대하다, 마음, 놓다

조선에 온지 며칠만에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말았 습니다.

语法短语“-ㄴ/은지 -만에”表示“某种行动开始后的一段时间”。

语法短语“-고말다”表示“行动的完成”。

예: 우리는 만난지 하루만에 또 헤어지고말았습니다.

그는 약을 먹은지 30분만에 잠들고말았다.

◆ **문법적구 《-는/은지 -만에 -고말다》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는/은지 -만에 -고말다”形式完成句子。)

- 다리치료, 받다, 석달, 의지하다, 지팽이, 던져버리다
다리치료를 받은지 석달만에 의지하던 지팽이를 던져버리고말았 습니다.
- 수술, 받다, 석달, 더, 아프다, 다시, 수술하다
- 옷, 사다, 녀달, 옷, 짜지다, 버리다

류경치과병원 (柳京牙科医院)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위치한 류경치과병원은 우리 당에서 인민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안을 보아도 밖을 보아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러지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류경치과병원은 주체102(2013)년 10월에 개원되었다.

대화 (会话)

김희: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나는 류경치과병원에서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까 전화로 물어본것이 바로 그때문이었습니다. 조선어의 발음법을 모르고 서툴게 발음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혜영: 외국인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차차 익숙되면 조선어의 관습적인 발음들도 잘할수 있습니다.

김희: 그리고 잘 모를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늘 나는 조선어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보았는데 남수선생이 그걸 보고 또 웃었습니다. 왜 웃는가고 물으니 자체로 원인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잘못된것이 없는것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혜영: 설마 철자법이야 틀리지 않았겠지요. 편지의 구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휘: 사랑하시는 어머니, 그간 안녕하니?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있다. ...

혜영: 아, 알만합니다. 우선 《사랑하시는》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김휘: 나는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존경토 《시》를 정중히 써서 《사랑하시는》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혜영: 존경토 《시》는 행동의 주인에 대한 례절관계를 나타내는 토인데 《사랑하는》 행동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휘: 그건 나입니다.

혜영: 예, 바로 그렇기때문에 결국 《사랑하시는》이라고 표현하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존경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니?》라는 표현도 잘못되었습니다.

김휘: 그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까?

혜영: 맺음토 《-니》는 물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례절관계를 나타내는 토인데 듣는 사람이 아래사람이 아니라 웃사람인 《어머니》이므로 《-니》가 아니라 《-버니까》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안녕하니?》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로 써야 합니다.

김휘: 아하, 그러니 《사랑하는 어머니, 그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있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혜영: 예, 바로 그렇습니다.

김휘: 이젠 다 알만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수선생한테 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자랑하겠습니다.

발음 (发音)



- 발음법을 [바름뼈블]
- 웃음거리가 [우슴꺼리가]
- 첫술에 [처쭈레]
- 철자법이야 [철짜뼈비야]
- 헛눈을 [헌누늘]

문형과 문법 (语言点)

설마 철자법이야 틀리지 않았겠지요.

句型 “설마 -겠지요” 表示 “恐怕不至于……吧”、“未必” 的意思。

예: ○ 설마 그만두지야 않았겠지요?

○ 설마 그렇게 하지야 않았겠지요?

◆ 문형 《설마 -겠지요》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 “설마 -겠지요” 形式造句。)

○ 비행기, 앓다, 놓치다

설마 비행기야 놓치지 않았겠지요?

○ 시험, 불합격되다, 앓다

○ 암, 앓다, 걸리다

련습 (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1)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중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2) 치과상식과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걸그림들이 주련이 걸려져 있었는데...

3) 건물도 웅장하고 깨끗하면서도 특색이 있고 또 이 병원주변의 공기가 대단히 맑다는것을 느꼈습니다.

- 4)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 5) 차차 익숙되면 조선어의 관습적인 발음들도 잘할수 있습니다.
- 6) 편지의 구절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치과 ⇒ 치과도구, 치과약품, 치과의사

- 1) 치료 ⇒
- 2) 방문 ⇒
- 3) 공동 ⇒
- 4) 연구 ⇒
- 5) 주사 ⇒

3. 괄호안의 단어에 알맞는 토를 붙여보시오. (给括号里的词语加上恰当的词尾。)

1) 베이징을 (리륙하다)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는데 정군 교수를 (마중하다) 평양의학대학 박사원생 리문진이 비행장에 (나오다)있었습니다.

⇒ 베이징을 리륙한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는데 정군 교수를 마중하러 평양의학대학 박사원생 리문진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2) 나의 형님은 축구를 (배우다) 축구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

3) 철호는 (머리가 좋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성공할수 있습니다.

⇒

4)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다) 사람들의 병치료에 (이바지하다) 생각하였습니다.

⇒

5) 동무는 병이 심하니 약을 (떡다) 동시에 주사도 (맞다) 합니다.

⇒

6) 이 관광지에서 충분히 (휴식하다) 다음 동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다) 조국으로 (돌다)갑시다.

⇒

4. 밑줄을 그은 단어를 뜻이 비슷한 단어로 바꾸어보시오. (用近义词替换划线词语。)

1)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도중에 평양 방문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택시를 리용하여 숙소로 향하는 도중에 평양방문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그 사람은 차를 아주 잘 관리하는데 고장도 제손으로 척척 수리합니다.

⇒

3) 우리는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

4) 사람마다 각이한 직업을 가지고있습니다.

⇒

5) 평양에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매 병원마다 자기의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앞으로는 이삭기와 관련한 의학상식도 잘 알고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5. 괄호안의 단어들에 《-리라고/으리라고》를 붙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将括号里的词改写成“-리라고/으리라고”形式, 并完成句子。)

1)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등생이 (되다) 생각하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등생이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나는 그가 약을 먹는 동시에 주사도 (맞다) 생각한다.

⇒

3) 그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순희를 (사랑하다)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

4) 동무가 여기에 (오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

5) 왕용동무가 1년만에 연구사업에서 꼭 (성공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

6) 동무는 자기가 그렇게 의학을 (좋아하다) 생각하였습니까?.

⇒

6. 다음의 단어들로 토 《-니만큼/으니만큼》, 《-예요》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니만큼/으니만큼”或“-예요”形式造句。)

1) 동무, 병, 심하다, 치료, 받다(~니만큼)

⇒ 동무는 병이 심하니만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날씨, 영향, 받다, 종자, 앓다(~예요)

⇒

3) 소화, 안되다, 소화제, 먹다(~니만큼)

⇒

4) 열, 나다, 해열제, 때, 쓰다(~예요)

⇒

5) 눈, 내리다, 도로, 미끄럽다, 차, 조심히, 운전하다(~니만큼)

⇒

6) 눈, 나쁘다, 지다, 앓다, 안경, 이, 하다(~예요)

⇒

7.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는 동시에》나 《설마 -겠는가》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는 동시에”或“설마 -겠는가”形式造句。)

- 1) 왕용, 조선, 방문하다, 로씨야, 하다(-는 동시에)
⇒ 왕용은 조선을 방문하는 동시에 로씨야도 방문하려 합니다.
- 2) 동생, 작가, 되다, 앓다, 작곡, 배우다(설마 -겠는가)
⇒
- 3) 영호, 할머니, 만나다, 농사일, 돕다, 하다(-는 동시에)
⇒
- 4) 오빠, 저지르다, 오래다, 사고, 운전사(설마 -겠는가)
⇒
- 5) 철수, 친구, 만나다, 그, 형, 하다(-는 동시에)
⇒
- 6) 철호, 축구, 방어하다, 공격, 하다(설마 -겠는가)
⇒

8.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ㄴ지 -만에 -고말다》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ㄴ지 -만에 -고말다”形式造句。)

- 1) 고뿌, 얼마나, 뜨겁다, 4초, 떨어뜨리다
⇒ 고뿌가 얼마나 뜨거운지 4초만에 떨어뜨리고말았습니다.
- 2) 고향, 돌아가다, 일하다, 5년, 위병, 똑, 떨어지다
⇒
- 3) 소설, 얼마나, 재미나다, 3일, 다, 읽어버리다
⇒
- 4) 약, 얼마나, 쓰다, 먹다, 못하다, 얼마, 벨어버리다
⇒
- 5) 신발, 얼마나, 질, 이틀, 한심하다, 벗어버리다
⇒

6) 입원, 열흘, 퇴원하다

⇒

9.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1) 저는 평양산원 의사인데 이름은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 저는 평양산원 의사입니다. 이름은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2) 철호동무는 이전에 의학대학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3) 영남동무는 공원의 한쪽 걸상에 앉아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

4) 그는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

5) 밤새껏 열이 떨어지지 않고 토하면서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

6) 앞으로는 이삭기와 관련한 의학상식도 잘 알고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10. 본문을 내용에 따라 갈라보시오. (将课文根据内容分段。)

단어 (词语)

갈라보다	分成	산원	妇产医院
걸그림	挂图	상세히	详细
구내	区内	설비	设备
구절	段	똑	一下子
국견	国犬	짜지다	撕破
국조	国鸟	약품	药品
금물	要不得	영향	影响
기록되다	记录	오복	五福
관리하다	管理	우점	优点
관습	习惯	운전사	司机
놓치다	没赶上	소감	感想
답답하다	闷	소화제	消化药
던지다	扔	수술	手术
도구	用具	숙소	住处
동시(에)	同时	신형	新型
류경	柳京	자만	自满
리륙하다	起飞	자체	自己
망신스럽다	丢脸	작곡	作曲
물건	东西	정중히	郑重
미끄럽다	滑	종자	种子
박사원생	研究生	주련이	排列
버리다	掉	주변	周围
벽면	墙面	주인	主人
보철	补牙	준비실	准备室
불합격되다	不及格	중년	中年
불안하다	不安	지팡이	拐杖
뱉다	吐	질	质量

재료	材料	현대화	现代化
차차	慢慢儿	해열제	退烧药
참매	苍鹰	활동	活动
척척	麻利	운전하다	开车
철자법	拼写法	웃음거리	笑话
첫술	一口	웅장하다	雄壮
풍산개	丰山狗	이삭기	齧齿
한심하다	不像样	익숙되다	熟练
한잠	一宿	왼쪽	左边
헛눈	不集中	위생	卫生

성구(成語)

헛눈을 팔다

不集中

례: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정신을 집중해야지 헛눈을 팔면서
놀이놀이를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새롭다

刻值千金

례: 요즘은 일이 많아서 하루가 새로우니 열심히 일하거라!

사람은 마음을 믿고 산다

人靠心, 不靠钱

례: 사람은 마음을 믿고 산다고 제일 중요한것은 마음
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작사 집 체

빠르지 않게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작곡 김 혁



1. 하늘은 푸르-고 내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울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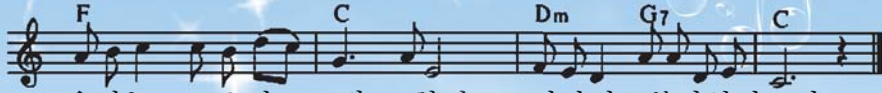


사람들 화목하게 사 - 는 내 조국 한없이 좋 네

(후렴)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 친 형제 세상에 부럼없어 라

2.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녀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렵 몰라라

(후렴)

3.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퍼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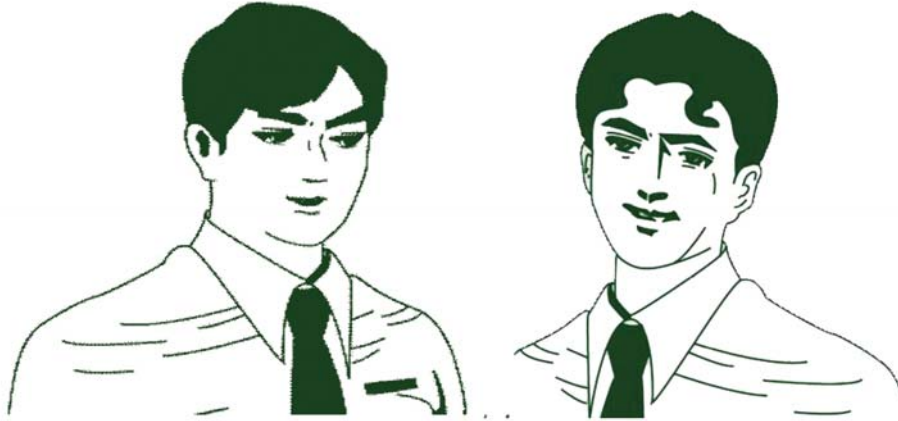


제 16과. 창광원에서 (在蒼光院)

중심 문형 (重点句型)

- 너무 높게 깔지 않았는지요?
- 오늘은 창광원에 가 들어서 수영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 당신은 내가 송화강에서 늘 수영을 하곤 했다는것을 전혀 모르겠지요.
- 모름지기 내가 이길것입니다.

본문 (课文)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하며 평양시를 부감하던 김휘는 시계종소리에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수와 함께 창광원에 가기로 약속하였던것입니다. 현관에서는 마침 남수가 택시를 부르고있었습니다.

5분후 그들은 창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김휘는 리발실로 갔고 남수는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김휘는 먼저 머리를 깎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리발을 하시겠습니까? 곁상에 앉으십시오.》

치너리발사가 친절하게 맞이하고서 숙련된 솜씨로 리발을 하였습니다.

치너리발사가 《머리를 너무 높게 깎지 않았는지요?》라고 묻자 김휘는 잘 깎았다고 사의를 표시하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남자봉사원이 《목욕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묻고는 그에게 목욕도구들을 주었습니다. 김휘는 목욕을 한 후에 곧 안마실로 갔습니다.

남자봉사원이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성스레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목욕과 안마가 끝난 후 김휘는 남수를 만나 함께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접대원이 《손님들은 뭘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음료로 사이다를 두병 하고 주석으로는 국수를 하겠습니다.》

김휘는 리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안마를 하고 식사를 한것들에 대해 한참 돌이켜보다가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었습니다.

(조선말에는 <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구나! <리발을 하다>, <목욕을 하다>, <안마를 하다>, <식사를 하다> ...단어에 <하다>를

붙이면 다 되는구나!)

김휘는 남수에게 말했습니다.

《남수선생, 조선말에서 <하다>의 쓰임은 정말 다양하구만요.》라고 하면서 방금 생각한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김휘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조선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하다>입니다. 김휘선생은 강습소에서 배운것들을 현실속에서 잘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호텔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20분동안 산보를 한 다음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발음 (发音)

• 급히	[그피]
• 꺾는것을	[깡는거슬]
• 숙련된	[승년된/승련된]
• 음료로	[음뇨로/음료로]



在收音读音“ㅁ, ㅇ”后, “ㄹ”的发音
(받침소리 [ㅁ, ㅇ]뒤에서 《ㄹ》의 발음)

在收音读音“ㅁ, ㅇ”后“ㄹ”, 可读成“ㄴ”。

예: 법령[범녕], 목란[몽난]

但是, 在元音“ㅏ, ㅑ, ㅓ, ㅕ”前边, “ㄹ”可读成 [ㄴ]或[ㄹ]。

예: ○ 식량[싱냥/싱량], 협력[협녀/협력]

○ 식료[싱뇨/싱료], 청류벽[청뉴벽/청류벽]

문형과 문법 (语言点)

너무 높게 깔지 않았는지요?

词尾“-는지요”是尊敬阶终结词尾，表示“疑问”。

예: ○ 커피에 사랑을 두지 않는지요?

○ 새로운 형태의 옷을 사지 않겠는지요?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내, 쓰다, 글, 너무, 빨리, 않다

내가 글을 너무 빨리 쓰지 않는지요?

○ 높이, 올라가다, 앞, 잘, 보이다

○ 많이, 먹다, 배, 부르다, 않다

대화(会话)

남수: 김휘선생, 창광원에 가 들어서 수영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김휘: 아, 수영말입니까? 나는 수영을 펴그나 좋아합니다. 당신은 내가 송화장에서 늘 수영을 하군 했다는것을 전혀 모르겠지요? 수영에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는데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내가 이길것입니다.

남수: 정말입니까?

김휘: 합시다. 속담내기.

남수: 좋습니다. 그럼 먼저 50m 자유영경기를 합시다.

...

김휘: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담을 내십시오.

남수: 어떤 주제의 속담입니까?

김휘: 겸손성과 관련한 속담.

남수: 좋습니다. 음,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난다. 절하고 뺨맞는 일 없다.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추 먹어라. 아는체 하지 말고 모르는체 하지 말라. 으르렁대는 소는 받지 않는다.

김휘: 대단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말그대로 속담주머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0m 평영경기를 합시다.

...

남수: 이번에는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담을 말해야겠습니다.

김휘: 속담주제는 무엇입니까?

남수: 이번에는 용감성과 관련한 속담입니다.

김휘: 좋습니다. 진리를 위해 산악처럼 나서는 사람이 참된 영웅이다. 대담성은 투쟁속에서 나온다. 대담성이 승리자를 만든다. 승리는 대담한자를 마주 온다. 대담성이 모든것을 가져다준다. 100명의 소심한자 대담한자 한명을 대신 못한다.

남수: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속담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희: 결국 오늘 내기는 비긴 셈입니다. 수영장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속담들을 교환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정말 의의깊은 경기였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50m | [오십미터] |
| • 100m | [백미터] |
| • 진리를 | [질리를] |
| • 의의깊은 | [의이기픈] |

문형과 문법 (语言点)

창광원에 가 **들이서** 수영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词尾 “-서/이서” 表示 “强调”。

례: ○ 난 혼자서 리발소에 가겠습니다.

○ 셋이서 하루에 그 일을 다 할수 있습니까?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하루종일, 혼자, 책, 읽다
하루종일 혼자서 책을 읽었습니다.
- 넷, 저, 일, 끝내다

- 셋, 창광원, 가다, 머리, 깎다

당신은 내가 송화강에서 늘 수영을 하곤 했다는것을 전혀 모르겠지요?

句型 “-을/를 전혀 모르다”表示“根本不知道”。

례: ○ 차시간을 전혀 모릅니다.

○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철수, 집, 도착하다, 나
나는 철수가 집에 도착하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 나, 그, 일

- 대동강맥주, 맛있다, 맛없다, 김희

모름지기 내가 이길것입니다.

句型 “모름지기 -ㄹ/을것이다”表示 “猜测”。

례: ○ 저 건물은 모름지기 학교일것입니다.

○ 모름지기 그는 합격될것입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아침, 남수, 집, 도착하다

모름지기 남수는 아침에 집에 도착할것입니다.

○ 저, 재미있다, 책, 왕근, 동무, 책

○ 김희, 평양랭면, 맛있다, 맛없다, 모르다



창광원 (蒼光院)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주체69(1980)년 3월 보통강기슭에 일떠선 위생문화편의종합기지이다.

하루 수용능력이 1만여명인 창광원에는 목욕탕, 수영장, 물놀이장, 리발실, 미용실, 식당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연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김휘는 시계종소리에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내려갔다.
- 2) 김휘는 먼저 머리를 깎는것을 잊지 않았다.
- 3) 처녀리발사가 친절하게 맞이하고서 숙련된 솜씨로 리발을 하였습니다.
- 4) 우리는 음료로 사이다를 두병하고 주식으로는 국수를 하였습니다.
- 5) 정말 의의깊은 경기였습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 1) 리발⇒ 리발가위, 리발기계, 리발도구
- 2) 거울⇒
- 3) 음료⇒
- 4) 봉사⇒
- 5) 목욕⇒
- 6) 맥주⇒

3.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머리를 깎다, 봉사분야, 비슷하다, 야릇하다, 기다리다, 피상하다
본보기: 왕근동무와 비슷한 (ㄴ/은) 사람을 보았는지요?

- 1) 대체 얼마나 더 _____ (아야/어야/여야) 합니까?
- 2) 낮게 _____ (니/으니) 보기 좋군요.
- 3) 처녀리발사는 _____ (에/에서) 막히는것이 없습니다.
- 4) 그의 _____ (ㄴ) 웃음이 좀 이상합니다.
- 5) 나는 왕용의 _____ (ㄴ) 조선어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4. 다음의 단어들로 토 《-더라도》나 《-는지요》가 들어가게 문장을 지어 보시오. (用下列词语以“-더라도”或“-는지요”形式造句。)

- 1) 우리, 방법, 그, 실정, 맞다(~더라도)
⇒ 그 방법이 우리 실정에 맞더라도 다시 고려해보시오.
- 2) 야단, 늦다, 앓다, 하다, 오다(~는지요)
⇒
- 3) 나누다, 고향, 가다, 사람, 인사(~더라도)
⇒
- 4) 또, 밤, 새우다, 앓다(~는지요)
⇒
- 5) 불리하다, 조건, 수행하다, 반드시, 과업(~더라도)
⇒
- 6) 어머니, 걱정, 하다, 앓다(~는지요)
⇒

5.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을/를 전혀 모르다》의 문형으로 문장을 지어보시오. (用下列词语以“-을/를 전혀 모르다”形式造句。)

- 1) 리발실, 오다, 앓다
⇒ 리발실에 오겠는지 오지 않겠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 2) 운전기술, 배우다
⇒
- 3) 늦잠, 자다, 지각하다
⇒
- 4) 축구, 계속, 하다
⇒
- 5) 평양, 처음, 오다
⇒

6) 운동장, 면적, 넓히다, 구상

⇒

6. 다음의 단어들을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1) 나, 하루, 운동, 안하다, 답답하다, 못, 견디다

⇒나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하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2) 그들, 부지런히, 일하다, 부, 창조하다

⇒

3) 리발실, 두자리, 동시, 나다, 나, 김휘, 같다, 시간, 머리, 깎다

⇒

4) 리발사, 봉사성, 높다, 머리, 잘, 깎다, 손님, 높다, 평가, 받다

⇒

5) 리발, 하다, 목욕, 사이다, 마시다

⇒

6) 사람들, 시간, 긴장하다, 자주, 모란봉, 오르다, 생활, 즐겁다, 보내다

⇒

7. 본문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표시하시오.

(根据课文内容判断正误。) (맞음: 틀림:)

1) 김휘는 먼저 안마실에 갔습니다. ()

2) 남수는 머리는 높이 깎아야 보기 좋습니다.

3) 그들은 더운 커피를 마시었습니다.

4) 김휘는 목욕을 하고 안마를 하였습니다.

5) 식사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6) 그들은 함께 리발과 안마를 하였습니다.

8.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1) 내 머리는 빨리 자라기때문에 스무날이 되면 머리칼이 귀를 덮습니다.

⇒ 내 머리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스무날이 되면 머리칼이 귀를 덮습니다.

2) 왕용은 리발소에 일찍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깎지 못하였습니다.

⇒

3) 리동무의 제의에 모두 찬성하였지만 나는 반대하였습니다.

⇒

4) 김휘는 미리 리발소에 가서 기다림칸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5) 동무가 요구해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니 절대로 리발사를 탓하지 마시오.

⇒

6) 김휘는 《시간이 이렇게도 빠른가?》라고 남수의 말에 공정을 하면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는 남수의 요구에 가더라도 잠깐 산보를 한 다음에 떠나자고 하였다.

⇒

9. 다음의 문장을 띄여쓰기에 맞게 고쳐보시오. (根据隔写法改写句子。)

1) 리발소에가서얼른머리를깎고오겠으니너무근심하지마십시오.

⇒리발소에 가서 얼른 머리를 깎고 오겠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2) 저의머리를바싹올려깎아주십시오.

⇒

3) 8번자리를담당한리발사동무가어디에갔습니까?

⇒

4) 거울앞에 마주서니마음이얼마나상쾌한지모르겠습니다.

⇒

5) 새로운네댓명의손님들이자기차례를기다리고있었습니다.

⇒

6) 머리는얼굴과머리생김새에맞게깎아야하기좋습니다.

⇒

10. 본문을 내용에 따라 갈라보시오. (将课文根据内容分段。)

단어 (词语)

강습소	讲习所	셈 (이다)	算
겸손성	谦虚	자유영 (수영)	自由泳
고개	头	지각하다	迟到
교환하다	交换	지위	地位
구상	构想	찬성하다	同意
근심하다	担心	투쟁	斗争
긍정	赞成	평영 (수영)	蛙泳
괴상하다	奇怪	협력	合作
내기	赌	떠오르다	想起
리발사	理发师	뺨	耳光
마주	相对	안마	按摩
머리카락	头发	야단	糟糕
미리	早已	야릇하다	奇妙
불리하다	不利	얼른	马上
사의	谢意	용감성	勇气
소심하다	小心	으르렁대다	咆哮
숙련되다	熟练	이삭	穗
실정	实际情况	익다	熟
새우다	熬夜	의의	意义

성구(成語)

눈이 가다

看到的意思。

례: 앞에서 천천히 걷던 할아버지는 길옆의 소나무에 눈이 가자
《내 나이와 비슷한 소나무로군!》하고 조용히 말하였다.

실속(이) 없다

华而不实

례: 왕근이 일요일에 《수영을 한다》, 《책을 읽는다》,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모두
실속이 없는 거짓말이다.

수염을 내리쓸다

装袞作哑, 装模作样, 装疯卖傻

례: 리정은 수염을 내리쓸며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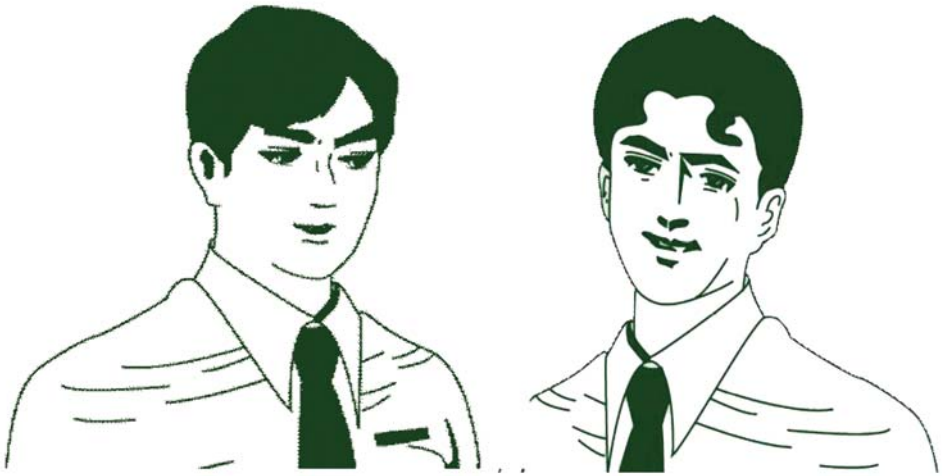


제 17과. 개선영화관에서 (在凯旋电影院)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영화의 내용이 흥미있기도 하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김휘의 호기심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 김휘는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통한 느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 조선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로 이해하려거든 앞으로 더 많은 조선영화도 보고 더 많은 조선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구나.
-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 듣고보니 이해가 됩니다.

본문 (课文)



김휘는 저녁일정으로 남수와 함께 개선영화관에서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영화 《도라지꽃》은 고향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들이 영화관안에 들어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잠시후 영화의 음악선율이 울리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심산유곡, 실구름이 허리에 감기고 두견새가 산다는 두견산!

풀바닥에는 물이 아니라 구슬련이 흐르는 옥사천.

두견산기슭에 수집은듯 남모르게 피어난 한송이의 진보라색꽃송이가 보입니다.

그 꽃이 산골을 떠나서는 못산다는 청초한 도라지꽃입니다.

도라지꽃잎우에 《도라지꽃》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새겨집니다.

영화를 볼수록 김휘에게는 영화에서 나오는 말마디가 모두 새롭게 안겨왔습니다.

김휘는 남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주인공의 동생 송화가 주인공 송림에게 <하늘아래 첫 동네라더니...>이라고 한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수는 《<하늘아래 첫 동네>라는것은 동네가 높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라고 속삭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삐꾸기소리가 들리자 송화가 송림에게 《저놈의 삐꾸긴 밤낮도 모르는 모양이야.》라고 말하자 김휘는 또 그 말이 무슨 뜻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수가 《그 말은 이제까지 시집을 가지 말라고 동생이 언니에게 말했는데 자기 언니를 삐꾸기소리로 불러내는 언니의 애인이 밋광스럽다는 말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흥미있기도 하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김휘의 호기심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이 말들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다음날 김휘는 남수에게 《내가 든 고려호텔은 평양에서 하늘아래 첫 동네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수가 배를 그러쥐고 웃으면서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것은 어떤 일정한 고장을 녀두에 두고 말할 때이고 개별적인 건물을 놓고 그렇게 말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김휘는 다시 남수에게 어제 영화에서 《주인공의 애인이 주인공 송림에게 것처럼 도시로 가자고 간청하였는데 한가지 리해되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도시가 농촌보다 좋다고 생각하는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꼭 농촌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남수는 김휘에게 개인의 운명과 고향의 운명, 조국의 운명은 하나로 련결되어있다고 하면서 향토애가 있어야 조국을 사랑할수 있는것은 생활의 진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수는 김휘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도 많은 도시청년들이 스스로 농촌으로, 탄광으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고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휘는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통한 느낌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조선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로 리해하려거든 앞으로 더 많은 조선영화도 보고 더 많은 조선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구나.)

발음(发音)



- | | |
|---------------|---------------|
| • 선물이 | [선누리] |
| • 첫동네 | [첫통네] |
| •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 [버비야 업찌 안씀니까] |



收音 《ㅎ》의 발음 (받침 《ㅎ》의 발음)

词干末尾的收音“ㅎ”，位于由元音开头的词尾或后缀前的时候，收音“ㅎ”不发音。

- 좋다: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 《좋은》[조은]
낳다: 《낳아》[나아], 《낳으니》[나으니], 《낳은》[나은]
닿다: 《닿아》[다아], 《닿으니》[다으니], 《닿은》[다은]
많다: 《많아》[마나], 《많으니》[마느니], 《많이》[마니]
싫다: 《싫어》[시러], 《싫으니》[시르니], 《싫은》[시른]

문형과 문법(语言点)



영화의 내용이 흥미있기도 하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김희의 호기심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句型《-기도 하다》表示“肯定、强调”。

례: ○ 매일 본문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 간혹 조선말을 섞어쓰기도 한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매끼, 밥, 간혹, 국수, 먹다, 식사, 어떻게, 하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매끼 밥을 먹지만 간혹 국수를 먹기도 합니다.
- 하루, 일과, 어떻다, 보내다, 호실, 대동강, 산보하다

- 식사, 어떻다, 하다, 식당, 가다, 간혹, 주문하다

김휘는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통한 느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语法短语 “-을/를 통한”表示“通过、经过”的意思。

- 예: ○ 복습을 통한 과제수행은 언제나 유익하다.
○ 신용을 통한 거래를 중시한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책임자, 선출하다, 어떻다, 실력, 검증, 언제나, 유익하다
책임자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실력을 통한 검증은 언제나 유익하지요.
- 평가, 대상, 어떻다, 하다, 문답, 제일, 정확하다

- 교육, 효과적, 방법, 무엇, 생각하다, 실물, 교육



조선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로 이해하려거든 앞으로 더 많은 조선영화도 보고 더 많은 조선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구나.

词尾“-려거든”表示“对决心的假设”。

예: ○ 목적을 달성하려거든 이악하게 노력해야 해.

○ 아이를 잘 키우려거든 교육을 해야 한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외출, 부서, 책임자, 승인, 받다, 어떻다,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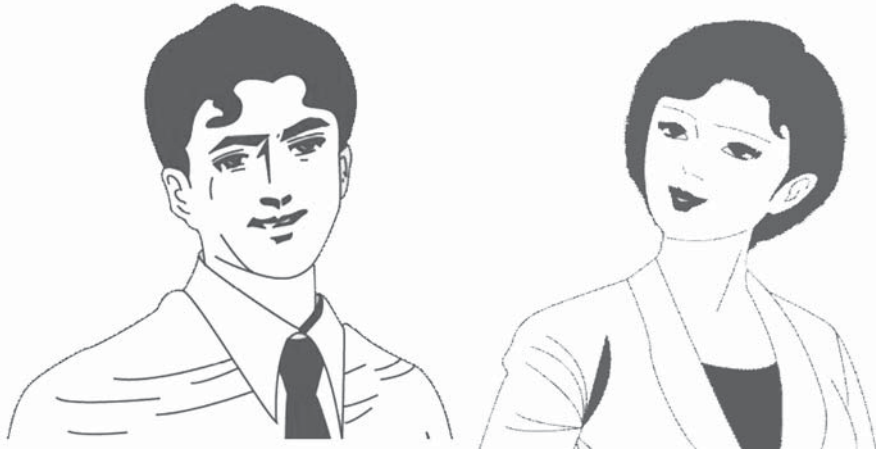
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출을 하려거든 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책, 빌리다, 도서관, 가다, 하다, 어떻다

○ 감기, 걸리다, 치료하다, 의사, 방조, 받다, 어떻다, 하다

대화(会话)



김휘: 영아동무, 나는 한가지 이해되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영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휘: 어제 남수선생과 함께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보았는데 주인공 송림이가 아주 곱게 생겼습니다. 주인공 송림과 그의 애인인 박원봉은 고향마을에서 서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남자인 박원봉이 송림에게 먼저 반했겠지요.

영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김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로 가자는 박원봉의 요구에 주인공 송림이 반대하여 그들의 사랑은 결렬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가 좋다는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찌하여 송림이 애인을 그렇게도 사랑하면서도 고향을 뜨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아: 그러면 김휘선생은 송림이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김휘: 송림은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송림이라면 변화한 도시로 가자는 것처럼 사랑하는 애인의 선의를 마다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영아: 사람마다 다 도시에서만 살겠다고 하면 농촌의 고향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개인의 운명, 고향의 운명, 조국의 운명은 다 하나로 이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도 잘 꾸리고 또 농촌도 잘 꾸리면 온 나라가 다 훌륭하게 꾸려지게 될게 아닙니까!

김휘: 듣고보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사람의 삶과 행복에 대한 심오한

철학입니다. 나는 이번에 와서 회사일뿐 아니라 조선청년들의 인생에 대한 견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소득입니다.

발음 (发音)



• 결렬직전에	[결열직찌네]
• 선의를	[서니를]
• 삶과	[삼과]

문형과 문법 (语言点)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词尾“-르/을가요”是尊敬阶终结词尾，表示“疑问”。

예: ○ 김동무가 제시간에 도착할가요?

○ 구경표를 쉽게 살수 있을가요?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평양, 가다, 조선어, 배우다, 빨리

평양에 가면 조선어를 빨리 배울수 있을가요?

예, 평양에 가면 조선어를 빨리 배울수 있습니다.

○ 오후, 도서관, 책, 빌리다

○ 병원, 나, 병, 치료하다

듣고보니 이해가 됩니다.

语法短语“-고보니”表示“动作的完成”。

예: ○ 한잠 자고보니 피곤이 다 풀렸다.

○ 사연을 듣고보니 이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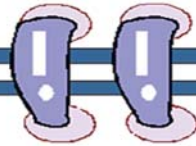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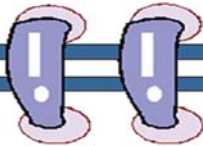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1시간, 동안, 달리다, 몸, 온통, 땀투성이, 되다

1시간동안 달리고보니 몸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었다.

○ 사연, 알다, 오해, 풀리다

○ 땀, 나다, 열, 내리다



도라지의 유래 (桔梗的由来)

전설에 의하면 성이 도가이고 이름이 라지라는 마음씨 곱고 착한 처녀의 이름을 따서 《도라지》라고 했다고 한다. 도라지는 우리 나라 각지의 양지바른 산기슭 또는 깊은 산에서 자라며 널리 재배되고있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개선영화관에서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 2)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 3) 잠시후 영화의 음악선율이 울리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4) 남수는 《<하늘아래 첫 동네>라는것은 동네가 높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속삭여주었습니다.
- 5) 도시로 가자는 박원봉의 요구에 주인공 송림이 반대하여 그들의 사랑은 결렬직전에 이르렀습니다.
- 6) 변화한 도시에로 가자는 것처럼 사랑하는 애인의 선의를 마다하지 않았을것입니다.
- 7) 정말 사람의 삶과 행복에 대한 심오한 철학입니다.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본보기: 관람 ⇒ 관람준비, 공연관람, 영화관람

- 1) 결혼 ⇒
- 2) 보석 ⇒
- 3) 경기 ⇒
- 4) 실기 ⇒
- 5) 휴가 ⇒

3. 알맞는 단어들에 밑줄을 치시오. (选择恰当的词语划线。)

- 1) 극장에서는 가극, 무용, 노래 등 여러가지 (오락, 공연, 운동)을 합니다.
- 2) 사람들이 훌륭한 공연을 한 배우들에게 (감사, 행복, 꽃다발)을 안

겨주었습니다.

- 3) 창광원에서는 목욕, 리발, 미용, 미안, 안마 등 여러가지 (봉사, 안내, 편의)를 합니다.
- 4) 공사가 끝난 후 현지에서는 성대한 (폐막식, 착공식,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5) 배우들이 (바닥, 무대, 운동장)에서 연기를 하고있습니다.
- 6) 그 극장은 (소리, 외형, 색깔)만 보아도 교예극장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4.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선뜻, 공교롭다, 태평양, 이리저리, 억제하다, 실험수값

- 1) 공을 이리저리 물면서 문지기를 골립니다.
- 2) 재차 묻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_____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 3) 감정을 _____ 내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오.
- 4) 조수는 _____를 세밀하게 분석하라는 연구사의 말에 전심하였습니다.
- 5) 교통이 차단되는 통에 _____계도 차시간을 놓치고말았습니다.
- 6) _____은 아시아대륙의 동부와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대륙의 서쪽, 오스트랄리아, 말라이제도사이에 있는 큰 바다입니다.

5. 다음의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결합을 만들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搭配。)

적임자, 몸매, 홀로, 감회, 평소, 손해, 다부지다, 새삼스럽다,
진동거리다, 보다, 머무르다, 고르다

본보기: 적임자를 고르다

-
-
-
-
-

6. 알맞는 토나 문법적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尾或语法短语填空。)

-고보니, -이 아니고, -며/으며, -아서, -는데, -아/어/여

- 1)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예술공연과 관람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극장입니다.
- 2) 민속명절을 맞() 우리는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 3) 이야기를 듣() 빨리 그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 4) 18시가 좀 지나() 극장에 도착하였습니다.
- 5)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있() 영남동무의 부모님들이 오시였습니다.
- 6) 극장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습니다.

7. 다음의 단어들을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 1) 나, 오늘, 모란봉, 오르다, 꽃, 구경, 하다, 영호, 약속하다
⇒ 나는 오늘 모란봉에 올라 꽃구경을 하자고 영호와 약속하였습니다.
- 2) 공연, 요즘, 청년들뿐, 많다, 사람들, 속, 대인기, 끝다
⇒
- 3) 잠시, 후, 종, 울리다, 막, 오르다, 공연, 시작되다
⇒
- 4) 우리, 이야기, 주고받다, 영화, 끝나다
⇒
- 5) 공연, 끝나다, 많다, 사람, 공연성과, 축하하다, 박수, 치다
⇒

8.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 1)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예술공연과 관람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극장입니다.
⇒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공연과 관람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극장입니다.

2) 나는 오늘 영남동무와 같이 모란봉에 올라 꽃구경을 하였습니다.

⇒

3) 영화의 내용도 흥미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채로운 말들은 나의 호기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

4) 일행모두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기다리는데 영남동무가 땀을 흘리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

5) 영남동무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후 우리는 그들을 모시고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

6) 영화관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습니다.

⇒

9. 다음의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합쳐보시오. (将两个单句合成一个复句。)

본보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보니 빨리 영화관에 가보고싶었다.

⇒ 이야기를 듣고보니 빨리 영화관에 가보고싶었다.

1) 영화관에서는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을 상영한다. 시작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다.

⇒

2) 공연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

3) 안내원이 다가오다. 표를 보여주었다.

⇒

4) 영화를 보고났다. 우리는 줄곧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

10.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본보기: 《도라지꽃》은 어디에서 상영되었습니까?

⇒ 《도라지꽃》은 개선영화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1)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의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

2) 무엇을 배경으로 제목이 새겨졌습니까?

⇒

3) 《하늘아래 첫 동네》라는것은 무슨 뜻입니까?

⇒

4) 남수는 무슨 말을 듣고 배를 그려주고 웃었습니까?

⇒

5) 도라지꽃은 어떤 꽃입니까?

⇒

단어 (词语)

간청하다	请求	시집	嫁
감회	感怀	실구름	云丝
건둥거리다	粗心	실물	实物
검증	验证	심산유곡	穷山僻壤
결렬	决裂	새삼스럽다	新奇
결심하다	下决心	적임자	胜任的人
고장(장소)	地方	정신세계	内心世界
고향	故乡	조국	祖国
골리다	招惹	주인공	主人公
공교롭다	不巧	준공식	竣工典礼
교예	杂技	줄곧	一直
극장	剧场	직전	之前
개별적	个别的	진리	真理
개인	个人	진보라색	深紫色
나라	国家	진지하다	认真
낳다	生	질서	秩序
념두	念头	재차	再次
농촌	农村	제목	题目
다부지다	结实	착공식	开工典礼
단순하다	单纯	청초하다	清秀
닿다	接触	축하하다	祝贺
도라지	桔梗	탄광	煤矿
도시	城市	탄원하다	志愿
동네	乡村	투성이	满身是
동부	东部	대인기	魅力
두견새	杜鹃鸟	런결되다	连接
대륙	大陆	론하다	讨论

마다하다 拒绝
 만일 如果
 말라이제도 马来群岛
 모양 样子
 무용 舞蹈
 미용 美发
 밉스럽다 讨厌
 바닥 地面
 박수 鼓掌
 반하다 迷住
 밤낮 日夜
 밖 外面
 번화하다 繁华
 부서 单位
 산골 山谷
 삶 生活
 서쪽 西边
 선률 旋律
 선출하다 选出
 선뜻 欣然
 성대하다 盛大
 속삭이다 窃窃私语
 수줍다 害羞
 수치 数据

평소 平时
 폐막식 闭幕式
 향토애 对故乡的热爱
 허리 腰
 현지 现场
 꽃송이 花朵
 벵기 布谷鸟
 아메리카 美洲
 억제하다 抑制
 언니 姐姐
 영화 电影
 영화관 电影院
 오스트랄리아 澳大利亚
 오해 误会
 운명 命运
 인생 人生
 일반적 一般的
 일정하다 一定的
 일행 一行
 입 嘴
 애인 情人
 예술 艺术
 예술영화 故事片
 외형 外形

성구(成语)

통이 크다

豁达, 大度

례: 언제 보아도 영수만큼 통이 큰 사람은 없어.

사람의 속은 눈을 보아야 안다

眼睛是心灵的窗户

례: 사람의 속은 눈을 보아야 안다고 그가 거짓말을 하는것같지는 않아.



제 18과. 정월대보름날에 (在元宵节)

중심 문형 (重点句型)

- 정월대보름명절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대로 음식을 해먹고 민속놀이도 즐긴다.
- 나는 아직 일부러 달맛이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아름다운 새 안해를 늦게나마 얻고 싶습니다.
- 빨리 달을 향하여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본문(课文)

조선에서는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대로 음식을 해먹고 민속놀이도 즐긴다.

정월대보름날을 맞으며 국수를 먹고 찬 술을 마신다. 그리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저녁에는 자기들의 소박한 념원을 성취하기 위한 소원을 담아 모두가 달을 구경하는 달맞이라는 풍습도 있다.

정월대보름날 저녁 남수와 함께 모란봉에 오른 김휘는 정월대보름날에 고유한 민속놀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남수는 달집태우기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을 질러 밝게 하기 위하여 솔가지 등을 쌓아올려 만든 달집을 불태우는 놀이이다.

달집태우기에 앞서 마을의 어린이들과 청장년들은 매 집들을 돌며 지신 밝기(땅을 맡은 《신》을 밝아주기)를 한 다음 각기 짚이나 솔가지, 나무 등을 해가지고 산기슭이나 언덕에 모여든다. 그리고 모아들인 짚이나 솔가지로 무지를 쌓거나 조그마한 오두막과 다락들로 달집을 만들어놓는다. 달집의 형태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긴 막대기 세개를 삼각추모양으로 세우고 달이 떠오르는 동쪽면만 터쳐놓으며 나머지 두면은 모두 막아 놓는다.

정월대보름날에는 한 마을에만도 이러한 달집이 수십개씩 생겨난다.

달집의 가운데는 새끼로 만든 달을 매달아놓는데 달이 솟아오르는것을 제일먼저 본 사람이 달집에 불을 놓는다.

달집태우기에는 풍요와 행운을 바라는 옛사람들의 소박한 념원이 담겨져있다.

...

김휘는 하나의 민속놀이를 통하여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낙천적이고 깨끗한것을 좋아하는 조선인민의 풍습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발음 (发音)

- | | |
|---------|---------|
| • 민속명절 | [민송명절] |
| • 민속놀이를 | [민송노리를] |
| • 지신밟기 | [지신밭끼] |
| • 산기슭 | [산끼슭] |

문형과 문법 (语言点)

정월대보름명절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대로 음식을 해먹고 민속놀이도 즐긴다.

语法短语“-과 더불어”表示“与”的意思。

예: ○ 고향집과 더불어 추억이 떠오른다.

○ 그 이름과 더불어 기억에 새겨진다.

◆ 《-과 더불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以“-과 더불어”形式造句。)

- 세월, 생각, 깊어지다
세월과 더불어 생각이 깊어진다.
- 력사, 길이, 새겨지다
- 친구, 들놀이,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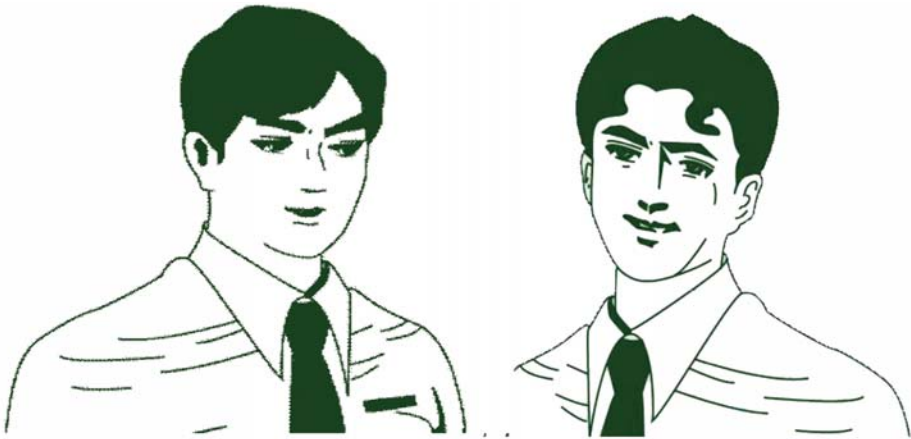


조선의 국견—풍산개
(朝鮮的国犬——丰山狗)

풍산개는 경비 및 사냥에 리용되는 품종으로서 원산지는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일대이다.

풍산개는 령리하고 날래며 적수와 만나면 끝까지 싸우는 이악한 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옳바른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풍산개를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하고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있다.

대화(会话)



남수: 김휘선생, 오늘은 정월대보름인데 달맞이를 가지 않겠습니까?

김휘: 달맞이라니요? 달이야 매일 보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일부러 달맞이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남수: 정월대보름날의 달은 특별히 밝고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정월대보름날에 달맞이를 하는것을 풍속으로 전해오고있습니다.

김휘: 현대 풍속대로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를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남수: 정월대보름날 환히 떠오르는 달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룰수 있다고 합니다. 처녀총각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수 있고 새색시들은 보름달처럼 환한 아기들을 낳을수 있다고 합니다.

김휘: 그거 정말 흥미있는데요. 그럼, 어서 달맞이를 갑시다. 어디가 좋은지요?

남수: 모란봉으로 갑시다.

김휘: 좋습니다. 참, 정월대보름과 관련한 민속어휘들도 있겠는데 알려주시겠습니까?

남수: 그러지요. 정월대보름과 관련하여서는 《한달 봐도 보름보기》, 《한달 잡고 보름은 못본다》, 《개 보름쇠뚝》 등과 같이 《보름》이 들어간 속담들이 있습니다.

김휘: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것은 다 알겠는데 《개 보름쇠뚝》은 무슨 뜻입니까?

남수: 이 말의 뜻은 《남들이 다 잘 먹고 지내는 날에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지내게 된것》을 비유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보름날 개에게

밥을 주면 그해에 파리가 성한다고 하면서 그날 먹이를 주지 않아 개가 하루종일 출출 굶는다는데서 나왔습니다.

김휘: 아, 그러니 명절이어서 잘 먹어야겠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겠습니까?

남수: 그렇습니다.

김휘: 정말 재미있습니다.

남수: 그런데 김휘선생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김휘: 나는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아름다운 새 안해를 늦게나마 얻고 싶습니다.

남수: 아주 좋은 소원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꼭 마음에 드는 녀성을 만날것입니다.

김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습니다.

남수: 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빨리 달을 향하여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발음 (发音)



- | | |
|-------|-------|
| • 밝고 | [발꼬] |
| • 환히 | [화니] |
| • 굶는다 | [굶는다] |

문형과 문법 (语言点)

나는 아직 일부러 달맞이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语法短语 “-ㄴ/은적이 없다” 表示 “从没做过” 的意思。

례: ○ 나는 그 영화를 본적이 없습니다.

○ 나는 그를 만난적이 없습니다.

◆ **물음에 대답해보시오.** (回答问题。)

- 어제 김동무를 만난적이 있습니까?
김동무를 만난적이 없습니다.
- 조선사람과 이야기해본적이 있습니까?
- 금강산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아름다운 새 안해를 **늦게나마** 얻고 싶습니다.

词尾“-게나마”表示“才、好不容易”。

- 례: ○ 어렵פות하게나마 생각합니다.
○ 늦게나마 왔구만요.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그, 때늦다, 깨닫다
그는 때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 김휘, 서툴다, 통역, 하다
- 남수, 소박하다, 성의, 표시하다

빨리 달을 향하여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语法短语“-을/를 향하여”表示“方向”。

예: ○ 나는 금강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기차, 어디, 평양, 떠나다

기차는 어디를 향하여 떠납니까?

기차는 평양을 향하여 떠납니다.

○ 영수, 어디, 가다, 도서관

○ 영남, 어디, 급히, 뛰어가다, 정류소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1) 조선에서는 민속명절 정월대보름날에 여러가지 민속음식을 해먹고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긴다.

2) 정월대보름날의 달은 특별히 밝고 크답니다.

3) 정월대보름날 환히 떠오르는 달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룰수 있다고 합니다.

4) 하루종일 출출 굶는다는데서 나왔습니다.

2. 주어진 정의에 알맞는 단어를 찾아보시오. (读一读, 写上意思相对应的词。)

- 1) 종이에 대오리같은것을 붙이고 실로 매여서 공중으로 날리는 놀이감
⇒ 연
- 2) 가루반죽한것을 눌러 뽑아서 긴 오리로 만든 음식 ⇒
- 3) 쌀에 물을 붓고 끓여 익힌 음식 ⇒
- 4) 국수와 더불어 전해지는 정월대보름음식 ⇒
- 5) 천으로 지어 발에 꿰여 신는것 ⇒
- 6) 달이 뜨는것을 맞이하며 구경하는것 ⇒

3. 알맞는 단어들에 밑줄을 치시오. (选择恰当的词语划线。)

- 1) 대보름날이 오면 사람들은 명절 로 흥성거립니다. (차비, 준비)
- 2) 설맞이를 하기 전에 집안팠을 청소합니다. (열심히, 깨끗이)
- 3) 추석에는 을 기본으로 밥을 짓습니다. (햇곡식, 햇쌀)
- 4) 대보름날음식으로 반드시 쏘아야 할것은 입니다. (국수, 떡국)
- 5) 추석날에 사람들은 조상의 를 찾아가곤 합니다. (묘, 제사)
- 6) 정월대보름날에는 9가지의 검은 나물 을 먹습니다. (밥, 반찬)

4. 괄호안의 단어에 알맞는 토를 붙여보시오. (给括号里的词语加上恰当的
词尾。)

- 1) 달맞이는 달이 뜨는것을 (맞이하다) (구경하다) 민속입니다.
⇒달맞이는 달이 뜨는것을 맞이하며 구경하는 민속입니다.
- 2) 정월대보름명절에 (검다) 나물을 (떡다)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
⇒

3) 고기를 (볶다) 냄새에 (가다) 사람들도 멈춰섰습니다.

⇒

4) 정월보름달을 먼저 (보다) 사람은 복을 (많다) 받는다.

⇒

5) 장기경기에서 이긴것으로 하여 기쁨의 걱정이 가슴속에 (그들먹하다) 차올랐습니다.

⇒

6) 정월대보름명절에는 명이 (길다) 국수를 (먹다) 귀가 밝아지라고 찬술을 마신다.

⇒

5.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词填空。)

물론, 널뛰기, 돈구다, 더불다, 즐기다, 특별하다

1) 조선여성들은 설날에 널뛰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2) 정월대보름명절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대로 음식을 해먹고 민속놀이도_____.

3) 설날에는___정월대보름명절에도 아이들의 민속놀이가 명절의 분위기를 돋구어줍니다.

4) 민속음식들은 조선사람들의 구미를_____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5) 민속놀이들은_____설비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6) 설날_____정월대보름은 전통적인 조선의 민속명절입니다.

6. 다음의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결합을 만들어보시오. (选择恰当的词语搭配。)

달맞이, 개발, 분위기, 찬술, 출출, 널뛰기, 버선, 굶다, 돈구다, 하다, 마시다

○분위기를 돈구다

○

○

-
-
-

7. 알맞는 토나 문법적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选择恰当的词尾或语法短语填空。)

-이니까, -을/를 향하여, -이라는, -ㄴ적이 없다, -뿐 아니라, -ㄴ데

- 1) 우리 학급에는 김명산(이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 2) 나는 지금까지 강의에 빠지(). 습니다.
- 3) 그는 공부를 잘하() 체육도 잘한다.
- 4) 이 책은 내것()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는 내 마음대로이다.
- 5) 우리는 미래() 나아갑니다.
- 6) 이 그림은 훌륭하() 값이 너무 비쌉니다.

8.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 1) 설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 설음식을 먹으며 명절을 함께 즐깁니다.
⇒ 설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설음식을 먹으며 명절을 함께 즐깁니다.
- 2) 나는 평양에 온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조선의 풍속을 잘 모릅니다.
⇒
- 3) 조선사람들은 국수를 좋아하는데 작은보름날 점심에는 국수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
- 4) 추석날에 조선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고유한 미풍량속입니다.
⇒
- 5) 매개 민족마다 고유한 풍속이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민족의 민족성이 반영되어있습니다.
⇒

6)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겨울철음식으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특히 떡국은 설명절에 꼭 먹어야 할 설음식으로 일러왔습니다.

⇒

9. 다음의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합쳐보시오. (将两个单句合成一个复句。)

1) 철남이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 철남이는 문을 세게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 나는 평양에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의 조선말수준은 높지 못합니다.

⇒

3) 추석에는 햇쌀이 납니다. 조선사람들은 햇쌀로 햇밥을 지어 조상의 묘를 찾아갑니다.

⇒

4) 추석은 가을걷이를 앞두고 풍년을 즐기는 명절이다. 설명절은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

5) 민속명절에는 여러가지 민속놀이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민속놀이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

6) 예로부터 조선인민은 설명절과 더불어 민속명절을 즐겨 쇠곤 하였습니다. 민속명절에는 정월대보름과 추석도 있습니다.

⇒

10. 다음의 물음에 본문내용으로 대답해보시오. (根据课文内容回答问题。)

1) 설명절에는 어떤 놀이를 합니까?

⇒ 어른들은 주로 장기와 윷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팽이치기, 제기차기도 하고 연띄우기도 한답니다.

2) 정월대보름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

3) 달맞이는 어떤 풍습입니까?

⇒

4) 민속명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5) 정월대보름명절에는 어떤 풍속이 있습니까?

⇒

6) 달집태우기는 어떤 민속놀이입니까?

⇒

단어 (词语)

가루	粉	불	火
가을걷이	秋收	불태우다	燃烧
격정	激情	비싸다	贵
공중	空中	산기슭	山麓
구미	口味	삼각추	三角锥
그들먹하다	满满地	성하다	招
근면하다	勤劳	색시	老婆
금강산	金刚山	솔가지	松枝
념원	愿望	전해지다	流传
냄새	气味	정열적	热情的
다락	门楼	정의	正义
대체로	大致	정월	正月
밝다	明亮	정월대보름	正月十五日
밟아주다	踩	조상	祖先
변변히	足够	지방	地区
복	福气	짚	稻草
볶다	炒	제기차기	踢毽子
부지런하다	勤勉	제사	祭祀

청장년	青壯年	팽이치기	抽陀螺
출출	餓肚貌	형태	形态
락천적	乐观的	힘껏	使劲
력사	历史	햇곡식	新谷
마을	乡村	햇쌀	新米
막대기	棍子	행운	幸运
무지	堆	뽑다	扳
문화적	文化方面的	끓이다	煮
미신	迷信	깨끗하다	整齐
민속놀이	民俗游戏	안팎	内外
민족성	民族性	어린이	儿童
반죽하다	搅拌	언덕	小山坡
반찬	菜	얼다	娶
발뒤축	脚后跟	연	风筝
추석	中秋	오두막	窝棚
통역	翻译(口译)	유래	由来
태우기	烧	윷놀이	尤茨游戏
택하다	选择	응답	反应
풍년	丰年	일부러	故意
풍속	风俗		

성구(成語)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乐不思蜀

례: 폭포구경만 하겠습니까?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겠습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人勤地不懶

례: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저수확지에서도 많은 소출을 냈구만요.



제 19과. 묘향산으로 가는 길에서 (去妙香山的路)

중심 문형 (重点句型)

- 김휘는 남수와의 글짓기경기를 통하여 조선어실력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게 된것이 무척 기뻐합니다.
- 글짓기경기가 끝날무렵에 빠스는 향산천에 들어섰습니다.
- 지금의 나로서는 무엇이든 좋으니 다 설명해주십시오.
- **제발** 비행기를 태우지 마십시오.

본문 (课文)



남수와 김훤은 조선의 명산 묘향산으로 가는 참관길에 올랐습니다. 조선어에 대하여 어지간히 자신심이 생긴 김훤은 묘향산으로 가는 뻘스안에서 남수에게 글짓기경기를 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남수는 김훤의 제기에 쾌히 응했습니다.

먼저 김훤이 남수에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글을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남수는 주저없이 《머리가 돌아야 몸을 돌려 빨리 가는 길을 찾을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돌다》라는 단어는 《머리를 쓰다》라는 의미와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수가 김훤에게 혼동하기 쉬운 토들인 《로서》와 《로써》, 《든지》와 《던지》, 《려》와 《려》, 《므로》와 《모으로써》를 한 문장안에 넣어 글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주 오는 산발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을 번지던 김훤은 《선수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 결심하고 훈련하러 훈련장에 나가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였던지 높은 수준에 올랐으므로 경기에서는 힘으로만 아니라 기술로써 상대방을 눌러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휘가 남수에게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복합문과 확대문이 들어간 하나의 문장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남수는 무엇이든 자신있다는듯 자신심에 넘쳐 《영수가 오늘 비가 오는가(물음문)고 물었더니 철호는 오늘 비가 온다(알림문)고 말하면서 우산을 가져가라(시킴문)고 하자 영수는 너도나도 다같이 우산을 가지고 가자(추김문)고 하였습니다. (복합문, 확대문)》라고 거침없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김휘에게 직유법, 의인법, 대구법, 대조법, 되풀이법, 벌림법, 점층법, 느낌법, 물음법, 내세움법, 과장법, 자리바꿈법이 동시에 들어가면서도 하나의 주제로 되어있는 문장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김휘는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가로수들과 꽃나무들,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 무연한 농장벌과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비같은 리봉(직유법)을 단 어린이들이 춤추는 모습은 얼마나 귀여운가(물음법). 해님도 부러워(의인법) 속삭이는듯 속삭이는듯(되풀이법). 아(느낌법), 행복동이들의 찬란한 미래여(내세움법), 꿈이라면 깨지 말아, 생시라면 영원하라(대구법), (대조법).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벌림법),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점층법) 그대들의 앞길에 언제나 행복만이 있으라. 천만년(과장법) 길이길이 변함없이(자리바꿈법).》라고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순간 남수의 박수소리가 버스안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점점 난도가 높아지고 격렬해져가는 글짓기경기는 끝이 없을듯싶었습니다.

김휘는 남수와의 글짓기경기를 통하여 조선어실력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게 된것이 무척 기뻐합니다.

글짓기경기가 끝날무렵에 버스는 향산천에 들어섰습니다.

발음 (发音)



- | | |
|-------------|-------------|
| • 산밭들을 | [산밭드를] |
| • 복합문과 확대문이 | [보캄문과 확대무니] |
| • 꽃나무들 | [꼰나무들] |
| • 해님도 | [해님도] |
| • 찬란한 | [찰라난] |

문형과 문법 (语言点)



김희는 남수와의 글짓기경기를 통하여 조선어실력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게 된것이 무척 기뻐습니다.

语法短语“-을/를 통하여”表示“手段、媒体”。

- 례: ○ 김동무를 통하여 소식을 보내왔다.
○ 토론을 통하여 지식을 공고히 한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리론, 무엇보다, 실천, 검증되다, 중요하다
리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합니다.

○ 사람, 눈, 마음, 알다, 어떻게

○ 비, 어떻게, 알다, 오다, 것, 제비, 낮다, 날다

글짓기경기가 끝날무렵에 빠스는 향산천에 들어섰습니다.

语法短语“-르/을무렵”表示“当……时候”的意思。

례: ○ 날이 저물무렵에 떠났다.

○ 회의가 끝날무렵에야 도착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빠스, 언제, 오다, 도착하다, 해, 기울어지다

빠스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해가 기울어질무렵에 왔습니다.

○ 새, 언제, 날다, 해, 뜨다

○ 표, 사다, 언제, 덤비다, 겨우, 기차, 떠나다

대화(会话)



김휘: 남수선생, 묘향산에 대해 좀 알려줄수 없습니까?

남수: 아니, 지금 거기에 참관을 가지 않습니까?

김휘: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비지식을 가지려는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야 참관효과를 높일수 있을것같아서….

남수: 묘향산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싶습니까?

김휘: 지금의 나로서는 무엇이든 좋으니 다 설명해주십시오.

남수: 그렇습니까?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묘향산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경계점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김휘: 예, 정말 위치가 묘합니다.

남수: 묘향산은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지리산과 함께 우리 나라
6대명산의 하나로 알려져있습니다.

김휘: 묘향산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남수: 묘향산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에서 묘향산
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김휘: 정말 이름만 들어보아도 그 경치가 눈앞에 안겨옵니다.

남수: 묘향산은 산과 물, 바위와 동식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채색미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아름다운
산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나무들과 풀들은 약재로
이용되고있습니다.

김휘: 그렇습니까? 남수선생은 묘향산에 대하여 강사보다 더 잘 알고있구만요.

남수: 제발 비행기를 태우지 마십시오.

김휘: 오늘 참관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있습니까?

남수: 먼저 묘향천을 끼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고 비로봉, 만폭동, 상원동일대를 등산한 다음 마지막에 묘향산력사박물관을 돌아보는것으로 합시다.

김휘: 해당한 로정마다 남수선생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남수: 그렇게 합시다.

김휘: 묘향산참관이 정말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막 설레입니다.

발음(发音)



- | | |
|------------|------------|
| • 조각미와 | [조강미와] |
| • 동식물 | [동싱물] |
| • 채색미 | [채생미] |
| • 국제친선전람관을 | [국제친선절람과늘] |

문형과 문법(语言点)

지금의 나로서는 무엇이든 좋으니 다 설명해주십시오.

词尾 “-로서/으로서는”表示 “资格”。

례 : ○ 학생으로서는 응당한 일입니다.

○ 녀성으로서는 그가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늙은이, 힘들다, 일
늙은이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 현재, 불가능하다, 문제

- 책임자, 적임자, 아니다

제발 비행기를 태우지 마십시오.

句型 “제발 -지 말다” 表示 “强调”。

례: ○ 제발 다시는 늦지 마십시오.

○ 제발 비는데 고집을 부리지 말아요.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왜, 아이, 욕하다, 자꾸, 편, 듣다, 말다
왜 아이를 자꾸 욕합니까?
제발 아이 편을 듣지 마십시오.
- 계속, 왜, 가다, 하다, 막다, 말다

- 정말, 수고하다, 소문, 내다, 말다

묘향산 (妙香山)

묘향산은 우리 나라 북서부, 묘향산줄기의 중부에 있는 세계적인 명산이다.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면적 375km², 둘레 300여리, 해발높이 1 909m이다.

련습 (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뻘안에서 남수에게 글짓기경기를 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 2)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글을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 3) 마주 오는 산발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을 번지던 김휘는...
 - 4) 선수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 결심하고 훈련하러 훈련장에 나가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였는지...
 - 5) 복합문과 확대문이 들어간 하나의 문장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 6) 해님도 부러워 속삭이는듯 속삭이는듯
아, 행복동이들의 찬란한 미래여
 - 7) 그래야 참관효과를 높일수 있을것같아서...
 - 8) 묘향산은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 6대명산의 하나로, 특히 금강산의 신비로운 조각미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을 다 갖추고있는 명산, 절승의 산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 9) 바위와 동식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채색미
 10) 묘향천을 끼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고...

2. 주어진 단어로 단어결합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短语。)

본보기: 사고 ⇒ 사고를 치다, 사고가 나다, 사고의 위험

- 1) 도저히 ⇒
- 2) 부담 ⇒
- 3) 훈련 ⇒
- 4) 혈육 ⇒
- 5) 국보 ⇒

3. 뜻이 비슷한 단어를 연결해보시오. (选择近义词连线。)

진정	자리
거동	환성
노상	정말
좌석	도착
당도	늘
환호	움직임

4. 뜻이 반대되는 단어를 연결해보시오. (选择反义词连线。)

주문	해임
임명	건방지다
가입	거절
겸손하다	뻗뻗하다
예쁘다	탈퇴
부드럽다	밉다

5.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选词填空。)

여러, 한번, 후에, 해마다, 만물, 최우수

- 1) 그들은 (해마다) 여기에 와서 경축공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 2) 집주인은 반가와하며 나에게 () 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 3) 여기서 태권도를 배운 선수들이 ()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였다고 합니다.
- 4) 지금 여기에서는 () 체육선수들이 체육경기를 하고있습니다.
- 5) 나도 무엇이든 () 해보고 싶습니다.
- 6) 봄은 ()에 약동하는 새 힘을 불어넣는 계절이다.

6. 밑줄을 그은 단어앞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选词填空。)

정말, 갑자기, 바빠, 가장, 오직, 인차

- 1) 저기 건물앞에서 오는 사람이 의사선생님이 아십니까?
⇒저기 건물앞에서 (바빠) 오는 사람이 의사선생님이 아십니까?
- 2) 여기서 보기에도 단풍이 붉게 물든 산풍경이 멋있습니다.
⇒
- 3) 퇴근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되돌아섰습니다.
⇒
- 4) 사람들속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
- 5) 다른 사람들이 다 도착하였는데 철수동무만 오지 않았습니다.
⇒
- 6) 꼴을 넣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

7.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 1) 운동, 키, 크다, 하다, 많다
⇒ 키가 크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 2) 우리, 보다, 오늘, 가다, 미술박물관, 많다, 작품
⇒
- 3) 4번, 문제풀이, 사용하다, 공식, 맞다, 여기
⇒
- 4) 웃다, 있다, 환하다, 외과의사, 여기, 저, 사람
⇒

5) 산천, 어디, 가다, 아름답다, 조선

⇒

6) 글짓기경기, 난도, 치렬해지다, 가다, 점점

8.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將下列復句分成兩個單句。)

1)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국수를 먹고싶었습니다.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국수를 먹고싶었습니다.

2) 영수가 오늘 비가 오는가고 물었더니 철호는 오늘 비가 온다고 말하면서 우산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

3) 김휘는 버스안에서 그동안 배운것들을 되새겨보면서 남수와 조선어로 글짓기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4) 머리가 돌아야 몸을 돌려 빨리 가는 길을 찾을수 있습니다.

⇒

5) 점점 난도가 높아지고 격렬해져가는 글짓기경기는 끝이 없을듯싶었습니다.

⇒

6) 묘향산은 평양에서 버스로 두시간 남짓하게 가면 되는데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의 경계점에 위치하고있습니다.

⇒

9. 다음의 문장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합쳐보시오. (將下列單句用不同的形式合成復句。)

1) 로동자들이 학교를 건설하였다. 우리는 학교를 견학하였다.

⇒우리가 견학한 학교는 로동자들이 건설하였다.

⇒우리는 로동자들이 건설한 학교를 견학하였다.

2) 유희장에서 보는 유희기구들이 모두 새롭다. 나는 무엇이든 다 타보고 싶다.

⇒

⇒

3) 그들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호텔에 돌아와 감상문을 썼다.

⇒

⇒

4) 선생님은 우리들을 강의실로 안내하였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선어를 배워주었다.

⇒

⇒

5) 우리는 책방에서 묘향산에 대한 책을 샀다. 그리고 호텔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다.

⇒

⇒

6) 체육관에서 우리는 체조선수들의 훈련모습을 보았다. 우리들은 모두 박수를 열광적으로 쳤다.

⇒

⇒

10. 잘못 쓴 토를 찾아 고쳐보시오. (修改用错的词尾。)

1) 거리에 사진을 한장 찍읍시다.

⇒거리에서 사진을 한장 찍읍시다.

2) 봄에는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여냅니다.

⇒

3) 그는 최우수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훈련하였다.

⇒

4) 그럼 여기서 사진을 한장 찍어 동무들을 따라갑시다.

⇒

5) 그는 1등을 함으로서 또다시 영예를 떨치였다.

⇒

6) 곱둥어들이 특기동작으로 기교를 부리지만 정말 희한하였다.

⇒

단어 (词语)

가입	加入	행복동이	宝贝
강사	解说员	알림문	陈述句
거동	举动	약동하다	沸腾
건방지다	傲慢	언뜻	猛然
격렬하다	激烈	영예	荣誉
겸손하다	谦虚	부드럽다	软
경계점	边界点	불가능하다	不可能
경축	庆祝	불리우다	被称为
곱등어	海豚	산발	山脉
공식	公式	스치다	掠过
구월산	九月山	시킴문	祈使句
글짓기	造句	생시	生前
기묘하다	奇妙	자강도	慈江道
기울다	(太阳)落山	자리바꿈법	颠倒法
과장법	夸张法	잠기다	沉浸
나비	蝴蝶	전람관	展览馆
난도	难度	점층법	递进法
남짓하다	多	주단	地毯
내세움법	让作法	주저	犹豫
당도(도착)	到达	직유법	直喻法
덤비다	手忙脚乱	제발	千万
되새기다	重温	좌석	座位
뒤흔들다	震撼	차창	车窗
로정	路程	추김문	祈使句
묘향산	妙香山	치렬하다	激烈
무렵	时候	친선	友谊
물음법	疑问式	칠보산	七宝山
미	美	채색	彩色
밉다	难看	최우수	最优秀
벌림법	开展法	쾌히	痛快地
해님	太阳	탈퇴	退出

태권도 跆拳道
 퇴근하다 下班
 평안남도 平安南道
 평안북도 平安北道
 욕하다 骂

임명 任命
 예비 预备
 위험 危险
 의인법 拟人法

성구(成语)

넋(을) 잃다
 丢了神儿

례: 관광객들은 묘향산의 경치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바늘 따라 실 간다
 秤不离砣, 鼓不离锣

례: 바늘 따라 실 간다고 아버지가 가는데 어머니가
 가지 않으면 됩니까?



제 20과. 다시 만납시다 (再见)

중심 문형 (重点句型)

- 단어의 의미를 잘 파고들지 않고 배우다나니 시험에서 계속
락제를 맞군 하였습니다.
- 혜영선생이 아니었 **던**들 내가 조선말을 정확히 배울수 있었겠
는가.
- 그래 어떻게 비행장에 나왔소?
- **하**마르면 선생을 찾지 못**할**번했습니다.

본문 (课文)



밤새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한 김휘는 뜯눈으로 새날을 맞이하다싶이 하였습니다. 그보다도 김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것은 계약을 성과적으로 체결하고 조선에서 많은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가는 기쁨이였습니다.

김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는 베이징으로 가는 조선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 ..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더니 검은구름이 사정없이 비행기를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꽁－꽁－짜르릉－》 불기둥이 창문을 스치는 순간 비행기가 아슬한 상공에서 내리꽂히면서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김휘의 머리는 앞좌석에 부딪쳤습니다.

《아, 비행기가 떨어진다!》라고 소리치며 깨어난 김휘는 비행기안에서 정신없이 꿈을 꾸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조선사람인 김문철이 평양에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는가고 물었습니다.

김휘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무역일정을 마치고 지금 귀국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문철은 《참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자 꿈을 꾸면서 조선말로 말하길래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선말을 잘할수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김휘는 너무 기뻐 김문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꿈까지 다 조선말로 꾸다니.) 얼마나 기쁘지 몰랐습니다.

그럴수록 온갖 성의를 다해 조선어를 배워주던 강습소 혜영선생의 열정적인 모습과 함께 조선어를 처음 배우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휘는 단어의 의미를 잘 파고들지 않고 배우다나니 시험에서 계속 락제를 맞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단어 <머리>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라는 시험문제가 제시 되었는데 김휘는 단어 《머리》의 의미를 잘 몰라 《선생님이 시험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써냈습니다.

그러자 혜영선생은 시험지에 락제점수를 주었습니다.

김휘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는데 정말 모를 선생이라고 좋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혜영선생은 내가 문장을 지을줄은 알지만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지었으므로 이번에는 《<머리를 쓰다>와 <머리를 떼다>의 차이점에 대하여 쓰시오.》라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험지에 나는 《<머리를 쓰다>와 <머리를 떼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 <쓰>와 <떼>가 다른것입니다.》라고 써내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10점을 맞을것이라고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혜영선생은 또 락제를 주는것이였습니다.

혜영선생은 이번에는 《단어 <머리>가 나타내는 의미에 맞게 각이한 문장을 지으시오.》라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김휘는 시험지에 《머리가 아파서 더는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전적으로 써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혜영선생은 시험지에 《머리를 쓰지 않고 공부를 하니 머리에 병이 들어 머리가 아팠습니다.》라는 대답을 써주었습니다.

김휘는 그 문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머리에 병이 들다》라는 의미는 학습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머리가 아팠다》라는 의미는 인체의 부분이 병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김휘는 그제야 소리를 쳤습니다.

《<머리>라는 단어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었구나!》

김휘가 시험지에 《<머리에 모자를 쓰다>, <머리를 들다>, <머리를 떼다>, <머리를 쓰다>, <머리가 병들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깎다>, <산머리를 바라보다>, <배머리를 돌리다> 등 <머리>가 나타내는 의미는 9가지나 됩니다.》라고 써내자 혜영선생은 마침내 10점을 주었습니다.

그때 김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울 때 성과를 거둘수 있구나. 엄격하면서도 친절한 혜영선생이 아니었던들 내가 조선말을 정확히 배울수 있었겠는가.)

... ..

드디어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김휘는 김문철과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비행장에는 아들 김용이 마중나와있었습니다. 김휘는 아들의 볼에 입맞추며 《애야, 아버지가 조선말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꿈에서까지 조선말을 했구나.》하고 속삭였습니다.

발음 (发音)

• 불기둥이	[불끼둥이]
• 내리꽃히면서	[내리꼬치면서]
• 계약	[계약]
• 배머리를	[밴머리를]
• 차이점	[차이쩜]

문형과 문법 (语言点)

단어의 의미를 잘 파고들지 않고 배우다나니 시험에서 계속 락제를 맞군 하였습니다.

词尾“-다나니”是连接词尾，表示“原因”、“动作的完成”。

- 예: ○ 늦잠을 자다나니 차를 놓쳤습니다.
○ TV를 보다나니 숙제를 못했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진동, 놓다, 받다, 못하다, 전화, 왜, 았다
왜 전화를 받지 았았니?
진동으로 놓다나니 받지 못했어.
- 고속도로, 보다, 이야기, 열중하다, 못하다

○ 주사, 맞다, 제때, 약, 먹다, 앓다, 병, 심하다, 지다

혜영선생이 아니었던들 내가 조선말을 정확히 배울수 있었
겠는가.

词尾 “-던들” 表示 “过去时、假设、条件”。

례: ○ 하루만 빨리 왔던들 형님을 만나보는건데.

○ 통역원만 있었던들 찾아갈수 있었는데.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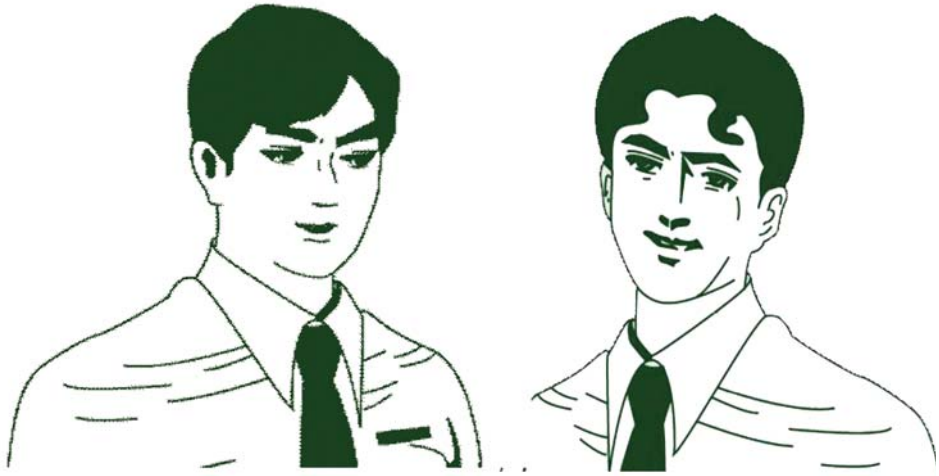
○ 늦다, 제시간, 차, 오다, 앓다, 것

차가 제시간에 왔던들 늦지 않았을건데.

○ 제때, 것, 깨어나다, 차, 놓치다, 앓다

○ 갑자기, 차, 나타나다, 당신, 아니다, 죽다, 것

대화 (会话)



남수: 세관수속을 자체로 하는걸 보니 선생의 조선말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휘: 그렇습니까? 그게 다 강습소 혜영선생과 남수선생의 덕분이지요. 당신들의 모습은 조선과 더불어 나의 심장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남수: 아, 저기 혜영선생이 오는구만. 저기.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그래 어떻게 비행장에 나왔소?

혜영: 김휘선생을 내려주러 나왔지요.

김휘: 그게 정말입니까? 비행장까지 이렇게 나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혜영: 고맙긴요. 그래 세관수속은 다 했어요?

김휘: 예, 방금 끝내는 길입니다.

남수: 김휘선생, 아직 시간이 좀 있는것같은데 기다림칸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어떻습니까?

김휘: 그렇게 합시다. 혜영선생, 난 선생이 비행장까지 나와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혜영: 제일 인상깊은 강습생인데 내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선생! 그런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하마트면 선생을 찾지 못할번했습니다.

남수: 김휘선생이 애를 수태 먹었던것같습니다.

김휘: 두말할것없이 애를 많이 먹었지요. 그래서 인상이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혜영선생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떻게 조선말을 그렇게 빨리 배울수 있었겠습니까?

남수: 가만,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조금후에 비행기가 뜨게 되니 려행하는 손님들은 빨리 비행기에 오르라고 합니다.

김휘: 아,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아쉽구만요. 그럼 떠나겠습니다.

남수: 김휘선생, 먼길에 잘 다녀가십시오.

김휘: 남수선생, 혜영선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선생들의 노력으로 계약도 성과적으로 체결되고 조선어도 잘 배우고 갑니다.

혜영: 잘 가세요. 부디 앓지 말고 건강하세요.

남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랍니다.

김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발음 (发音)



- | | |
|-----------|-----------|
| • 강습생인데 | [강습쌩인데] |
| • 못할번했습니다 | [모탈뻘해습니다] |
| • 아쉽구만요 | [아쉽꾸만요] |

문형과 문법 (语言点)

그래 어떻게 비행장에 나왔소?

词尾“-오/소”是终结词尾,表示“陈述、疑问、命令”。

예: ○ 아주 훌륭하오. (알림)

○ 김동무, 빨리 올수 있소? (물음)

○ 빨리 운동장에 모이오. (시킴)

◆ 주어진 단어들로 대화문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一组对话。)

○ 공연, 훌륭하다, 지금, 제일, 오늘, 저녁, 어떻다, 보다, 중
오늘 저녁에 본 공연이 어떻소?

지금까지 본 공연중에서 제일 훌륭하오.

○ 경기장, 축구경기, 가다, 관람하다, 어제, 어디

○ 홈페이지, 글, 올리다, 이, 어떻다, 하다

하마트면 선생을 찾지 못**할**번했습니다.

语法短语“하마트면-르/을번하다”表示“差一点没”的意思。

- 예: ○ 하마트면 기차를 타지 못**할**번하였습니다.
○ 하마트면 잊**을**번했습니다.

◆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所给词语造句。)

- 길, 막히다, 회의, 늦다
하마트면 길이 막혀서 회의에 늦**을**번했습니다.
- 부주의, 전기사고, 일으키다
- 길, 미끄럽다, 넘어지다

련습(练习)

1. 밑줄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들을 여러번 읽어보시오. (读一读, 注意划线部分。)

- 1) 김휘는 뜬눈으로 새날을 맞이하다**싶**이 하였습니다.
- 2) 계약을 성과적**으로** 체결**하고 ... 돌아가는 기쁨이였습니다.**
- 3) 깊은구름이 사정없이 비행기를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 4) 불기둥이 창문을 스치는 순간 ...
- 5) 아슬한 상공에서 내리꽃**히**면서 ...
- 6) 시험지에 락제**접**수를 주었습니다.

- 7) 드디어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 8) 하마트면 선생을 찾지 못할번했습니다.
- 9) 이거 정말 아쉽구만요.
- 10) 부디 않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주어진 단어로 합친말을 세개이상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三个以上的合成词。)

- 1) 칸 ⇒ 기다림칸, 식사칸, 짐칸
- 2) 비행 ⇒
- 3) 수속 ⇒
- 4) 아침 ⇒
- 5) 단기 ⇒
- 6) 려행 ⇒

3. 알맞는 단어들에 밑줄을 치시오. (选择恰当的词语划线。)

- 1) 청진으로 가는 비행기가 (조금, 언제, 얼마나) 떠납니까?
- 2) 차표는 어느 (매점, 역전, 정류소)에서 팝니까?
- 3) 월산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이따금, 좀) 떠났습니까?
- 4) 함흥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매일, 이따금, 종일) 많습니까?
- 5)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오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번, 열번) 있습니까?
- 6) 집을 떠난지 반년이 넘어서 (빨리, 천천히, 멀리) 가고싶습니다.

4. 괄호안의 단어에 알맞는 토를 붙여보시오. (给括号里的词语加上恰当的词尾。)

- 1) 여기에 (올라오다) 봄계절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 여기에 올라오니 봄계절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2) 가수가 노래를 (마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

3) (자만하다) 건달을 부리면 (성공하다) 없습니다.

⇒

4) 웃사람을 (존경하다) 아래사람을 (사랑하다) 마음을 지니는것이 중요합니다.

⇒

5) 항상 (겸손하다)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습니다.

⇒

6)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에 아주 (좋다).

⇒

5. 다음의 단어들을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完成句子。)

1) 청진, 방면, 가다, 비행기, 하루, 몇번, 있다

⇒ 청진방면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몇번 있습니까?

2) 원산, 가다, 비행기, 몇시, 있다

⇒

3) 평양—모스크바행, 비행기, 한주일, 몇번, 있다

⇒

4) 평양—베이징행, 비행기표, 어느, 요일표, 주문하다

⇒

5) 비행기, 타다, 때, 손짐, 몇kg, 넘다, 안되다

⇒

6) 갑자기, 하늘, 번개, 치다, 검은구름, 사정없이, 다가오다

⇒

6.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는 순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 (用下列词语造句。)

1) 흘기다, 곱다, 눈, 그, 나

⇒ 그는 나에게 곱게 눈을 흘기었다.

2) 전화, 도착하다, 하다, 저녁

⇒

3) 시간, 만나다, 나, 없다, 김동무, 못하다

⇒

4) 사다, 혜영동무, 차표, 끝내, 못하다

⇒

5) 그, 아니다, 실수, 고의적, 하다, 것

⇒

6) 당신, 도저히, 도달하다, 조선말수준, 없다, 수

⇒

7. 다음의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갈라보시오. (将下列复句分成两个单句。)

1) 며칠전 김동무를 전화로 찾았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 며칠전에 김동무를 전화로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2) 말을 주고받을 때 자연스럽게 긍정도 표시하고 대답도 하였을뿐 아니라 기회를 보아가며 질문도 하였습니다.

⇒

3)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것은 돈이나 용모가 아니라 그가 지니고있는 정신도덕적품성입니다.

⇒

4)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데 시선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

5)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로우니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6) 아직 시간이 좀 있는것같은데 기다림칸에 가서 휴식합시다.

⇒

8. 다음의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합쳐보시오. (将两个单句合成一个复句。)

1) 정거장에서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정거장은 바쁜 곳입니다.

⇒ 정거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바쁜 곳입니다.

2) 친구들은 곁상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손전화기로 자료도 보고 서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

3) 빈자리를 찾는데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습니다. 혜영이가 나를 찾았습니다.

⇒

4) 철호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역에 마중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

5)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말을 빨리 배울수 없었습니다.

⇒

6) 나는 비행기안에서 정신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깨여났음을 알았습니다.

⇒

9. 잘못 쓴 단어를 찾아 고쳐보시오. (找出有语病的词语并改正。)

1)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펄펄 기여왔습니다.

⇒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벌벌 기여왔습니다.

2) 운동을 매일 적당히 하면 건강에 아주 훌륭합니다.

⇒

3) 육을 먹는 사람처럼 그는 머리카락을 푹 수그립니다.

⇒

4) 손가락을 흔들며 그는 친구를 바라워주었습니다.

⇒

5) 오늘은 날씨가 차서 덧옷을 벗어야 합니다.

⇒

6) 오래 사귀여도 염통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

10. 맞춤법이 틀린것을 찾아 고쳐보시오. (找出拼写法有误的词语并改正。)

1) 여덟시에 평양역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 여덟시에 평양역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2) 외손자가 보고시퍼 그파게 오신답니다.

⇒

3) 그는 이를 아라서 병워네 갑니다.

⇒

4) 인사를 나눌 때는 트키 조시매야 합니다.

⇒

5) 어두운 곧에서는 앞을 가려보는거시 힘듭니다.

⇒

6) 앞으로 실쭈를 하지 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단어 (词语)

강습생	(培训班) 学员	수속	手续
건달	偷懒	수양하다	修养
고의적	故意的	신음	呻吟
기둥	柱	세관	海关
관점	观点	자연스럽다	自然
덕분	托福	점수	分数
덥석	猛然	칸	间
덧옷	外衣	파고들다	深入
도달하다	到达	파악하다	了解
도전적	挑战性的	푹	低垂
목적지	目的地	품성	品质
매점	小卖店	하마트면	差点儿
바래주다	送行	홈페이지	网页
방송	广播	꾸다(꿈)	做(梦)
벌벌	缓缓地(爬行时)	아슬하다	岌岌可危
볼	脸颊	아쉽다	可惜
부딪치다	碰撞	용모	长相
부주의	不小心	이따금	有时
비행	飞行	애	小孩儿的略称
상공	上空	외손자	外孙子

성구(成語)

심장에 남다

难以忘却，久久不能忘怀

례: 잠깐 만났다가 헤어져도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다.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

说曹操，曹操就到

례: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방금 당신이야기를 하던중입니다.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희망에 넘쳐 다정하게 (♩.=82) 작사 신운호, 작곡 리종오

1. 푸르른 - 하늘가 에 - 희망의 - 나래퍼
고 - 한 없 이 - 자유로 이 - 춤 추
며 - 날으 네 - 비둘기야 - 비둘
기야 - 더 - 높이 날아라 - 내 조
국의 - 푸르른하늘 - 흐 - 리지 못 - 하게 -

Chords: F#m, Bm, E, A, D, Bm, C#7, F#m, C#7, F#m, F#7, Bm6, E7, A6, C#7, F#m

2. 네 자란 보금자리 평양이 하도 좋아
노을빛 담아실고 춤추며 날으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더 높이 날아라
행복 넘친 너의 나래 불구름도 못 막아

3.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녀원 안고
폭풍도 헤쳐가며 미래로 날으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더 높이 날아라
이 강산에 너의 노래 영원토록 울리게

이 책은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조선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교과서이다.

조선어배우기

3

집필 박사 부교수 안종천, 박사 부교수 박길만, 박사 부교수 배광희,
박사 부교수 김영윤, 박사 부교수 안성득, 강승일,
박사 부교수 리혁철, 안세은

심사 조선어교과서심의위원회

편집 김혁철

그림 윤주향

편성 김옥별

장정 조예진

교정 차용국

낸 곳 외국문도서출판사

제작날자 주체111(2022)년 12월 8일

교-22-1541